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

유아교육기관 세대문화의 이해와 협력방안 모색

Understanding and Collaborating Between Generations
in Early Childhood Institutions



일시 : 2021년 4월 24일 (토)

장소 : 온라인 강의실 및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홈페이지

주관/주최 :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후원 : 도서출판 양서원/ 도서출판 정민사/

도서출판 양서원 그룹

❁ 초대 의 글 ❁

2021년 춘계학술대회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N세대, MZ세대 등 세대를 일컫는 용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 간 특성이 두드러지고 이로 인한 세대 간 차이가 뚜렷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세대로 불리는 N세대는 삶의 가치관이나 태도에 있어서 기성세대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영유아교직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에 속한 교사들은 교직원이나 업무방식, 태도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때로 오해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유아교육기관은 교육기관 중에서도 가장 작은 조직입니다.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동료 이해하게 될 때, 서로의 다름이 조직의 저해요인이 아닌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교직수행에 더 큰 보람과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본 학술대회는 한국 사회 세대문화, 교원의 인간관계 및 세대문화, 유아교육기관 구성원의 세대 간 갈등과 해결사례에 대한 강연을 통해 교원들의 세대 간 특성 및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학술분과 외에도 특별세션을 통해 회원여러분의 학문과 연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기획분과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의 민원 사례 및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놀이 사례를 소개하고, 연구윤리 세션에서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연구윤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학술대회가 회원님들께서 세대 간 다름에 대응하는 지혜를 얻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회원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회장 조형숙 드림

❀ 학술행사 일정표 ❀

- ▶ 대주제 : 유아교육기관 세대문화의 이해와 협력방안 모색
- ▶ 일 시 : 2021년 4월 24일(토) 09:00~14:20
- ▶ 장 소 : 온라인 강의실 및 한국영유아교육학회 홈페이지
- ▶ 일 정 :

제 1 부 09:30 ~ 11:40		사회 : 김낙홍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09:00~09:25	접수 및 등록	
09:25~09:30	개 회 식 _ 조형숙 (한국영유아교육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09:30~10:10	기조강연 _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사회 세대 간 문화 경험과 문화 갈등의 자화상 최선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0:10~10:50	제 1 주제발표 _ 교직 내 세대 간 문화차이 및 인간관계 개선 방안 윤소희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직부 교수)	
10:50~11:00	휴식	
11:00~11:40	제 2 주제발표 _ 유아교육기관 구성원의 세대 간 갈등 및 해결방안 최재원 (우정유치원 원장)	
11:40~12:00	한국영유아교육학회 총회	
11:40~13:00	중식	
제 2 부 13:00 ~ 14:20		
13:00~14:20	학술분과 및 기획분과 발표	분과별 온라인 강의실

❀ 분과 발표 일정표 ❀

분과 1	가족지원	좌장	권희경 교수 (건국대학교)
13:00~13:20	영아기 첫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관심사 김수오(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졸업), 조형숙(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3:20~13:40	미혼 남성 사무직 종사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 및 형성 배경 김규나(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졸업), 조형숙(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3:40~14:00	영유아기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위험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김선희(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수료), 윤재희(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분과 2	교사론	좌장	정대현 교수 (충신대학교)
13:00~13:20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 동향 정미선(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강도희(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채영란(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13:20~13:40	유아교육기관 유형별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인권의식 수준 및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 채영란(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박연정(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주영미(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강춘자(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김수아(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13:40~14:00	유아교사 자율성과 유아교육공동체 관계에서 교사헌신의 매개효과 이상미(전북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문병환(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겸임교수)		
14:00~14:20	유아교사 양성 개선에 관한 예비교사의 내러티브 탐구 서혜정(백석예술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분과 3	교수법	좌장	성소영 교수 (안양대학교)
13:00~13:20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임은정(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졸업), 최미숙(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3:20~13:40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순환적 탐구과정기술 중심 모형 개발 및 적용 정미애(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졸업), 권정윤(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3:40~14:00	만 3세 새싹반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흥미영역 통합 운영 실행연구 유예선(세종YWCA어린이집 원감), 안지영(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14:00~14:20	유치원 교원양성대학의 유아수학교육 교과목 운영현황 이주영(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박소민(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이정옥(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분과 4	부모교육	좌장	김민정 교수 (창원대학교)
13:00~13:20	다층구조모델 기반 사회정서 부모교육전문가과정 개발과 검증: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남임(숭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13:20~13:40	부모의 양육 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정현선(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이승민(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		
13:40~14:00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오규호(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졸업), 백지혜(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분과 5	생활지도	좌장	배율미 교수 (강원대학교)
13:00~13:20	유아특수교사가 인식하는 음악활동에 대한 의미 박슬기(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석사졸업), 백지혜(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3:20~13:40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유아 또래유능성 관련 연구동향 분석 이승하(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신나은(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13:40~14:00	피라미드 모델에 기초한 행동지도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김영아(숭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분과 6	운영관리	좌장	박애경 교수 (동남보건대학교)
13:00~13:20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연장반 운영 경험 이남수(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임민정(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13:20~13:40	보육교사의 긴급보육서비스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이상선(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임민정(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13:40~14:00	코로나 19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경험과 의미 탐색 채영란(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부교수), 윤민아(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교수)		
분과 7	코로나19와 현장	좌장	김대옥 교수 (경상대학교)
13:00~13:20	코로나 19 상황의 비대면 유치원 수업 경험에 대한 교사의 이야기 정하나(백석예술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서혜정(백석예술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13:20~13:40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보육현장의 변화는 어떠한가? 백지혜(계명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김소희(계명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13:40~14:00	신종감염병 대응에 관한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공동체간 협력의 실제 - 코로나19 경험을 중심으로 최영미(경산중앙유치원 원장), 박인전(영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윤재희(영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 특별세션 일정표 ❀

기획분과	
13:00~13:40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유아놀이 허윤희(한미유치원 부원장)
13:40~14:20	유아교육기관 민원 사례와 대처방안의 실제 박명금(동은아동청소년상담센터 부소장)
연구윤리	
13:00~13:25	유아대상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안지영(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13:25~13:40	연구윤리 관련 Q & A 윤재희(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유아교육학논집』 편집장)

❁ 포스터 발표 ❁

01. 교사의 놀이신념과 유머감각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전혜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졸업)
유은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02. ‘영어유치원’에 근무하는 한국인 유아교사의 역할과 갈등
안채운 (세종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졸업)
김희연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03.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어려움 - 공립유치원 교사를 중심으로 -
민현지 (한내유치원 교사)
남기원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04. 영아반 보육교사의 관계스트레스와 보육현신의 관계에서 전문성인식과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
이지영 (Tarlac State University, College of Art and Social Science 시간강사)
05. 국내 저출산 관련 연구동향 분석: 2011~2020년 중심으로
조형숙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조현정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06. 어린이집 원장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조직임베디드니스에 미치는 영향:
직무자율성에 의한 내외동기지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민선 (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졸업)
채진영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07. 부모, 원장, 교사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본 가정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
김연희 (창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졸업)
김민정 (창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목 차 ❁

■ 초대의 글	3
■ 기 조 강 연 _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사회 세대 간 문화 경험과 문화 갈등의 자화상	13
최셋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제 1 주제발표 _ 교직 내 세대 간 문화차이 및 인간관계 개선 방안	33
윤소희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직부 교수)	
■ 제 2 주제발표 _ 유아교육기관 구성원의 세대 간 갈등 및 해결방안	51
최재원 (우정유치원 원장)	
■ 기획분과	85
•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유아놀이	
허윤희 (한미유치원 부원장)	
• 유아교육기관 민원 사례와 대처방안의 실제	
박명금 (동은아동청소년 상담센터 부소장)	
■ 연구윤리	111
• ‘유아’ 대상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안지영 (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학술분과 논문 발표	
분과 1 : 가족지원	127
분과 2 : 교사론	139
분과 3 : 교수법	157
분과 4 : 부모교육	173
분과 5 : 생활지도	185
분과 6 : 운영관리	197
분과 7 : 코로나19와 현장	209
■ 포스터 발표	223

A decorative, ornate frame with a central oval shape, featuring intricate scrollwork and floral patterns.

기조 강연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사회 세대 간 문화 경험과
문화 갈등의 자화상

최 셋 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21 한국영유아교육학의 춘계 학술대회 기조강연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사회 세대 간 문화 경험과 문화 갈등의 자화상

최선희(이화여대 사회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의 세대 연대기



목차

1부. 세대: 경계와 구별 짓기

1장. 세대를 둘러싼 그간의 이야기들

2장. 세대의 경계, '우리'와 '당신들'의 이야기

3장. 나에게 묻다, 너는 무슨 세대니?

2부. 한국 사회의 세대 경계와 각 세대의 이야기

4장. 88만원 세대의 역설, 물려받은 것이 많은 세대는 행복한가

5장. X세대, 문화의 시대를 열다

6장. 베이비붐 세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진 세대'

7장. 신얼화 세대, 준비되지 않은 노년의 슬픔

2018년 세종도서(학술부문) 선정
2019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선정

세대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세대 연구와 관련된 질문들

- 세대의 구분은 가능한가?
- (구분이 가능하다면) 세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경험적인 연구 차원에서, 각 세대를 설명, 비교하기 위해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연구의 측면에서 세대를 구분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임의성'은 불가피하며,
학자들이 세대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세대의 구분은 달라질 수 있음

세대에 대한 사회학적 시각

친족계보의
같은 항렬

과제 동질적
집단

코호트
(Cohort)

특정 역사적 시
기에 생존한
사람들

세대

- ❖ 생애 주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특정 시대적 상황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이를 통해 유사한 가치관과 의식 및 태도를 지닌 집단

한국 세대 연구의 역사

세대연구의 흐름

-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시기 두드러졌던 사회 현상이나 구조적 변화를 토대로, 그러한 변화가 극적으로 드러나는 어느 한 측면에 집중, 세대간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줌
- 하지만, 세대에 대한 관심과 방향이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어,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영역별 의식이나 생활상을 포괄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지 못함

1960-1980년대

기성세대 vs 신세대

경제발전으로 인한 신세대
의 가치관 변화에 주목

1990년대

X세대
(문화 세대의 출현)

신세대 라이프스타일과
연동에 주목

2000년대 이후

88만원 세대
(세대 전쟁의 서막)

심화된 세대간 정치적-경
제적 갈등에 주목

연구 방법

양적연구방법

- 대상: 전국 20세 이상 남녀 1,500명
- 기간: 2011년 7월 22일 ~ 2011년 8월 13일
- 표집 방법: 이층 등분식
 - 20-59세: 한국리서치 마스터 샘플 구성, 연령대별로 표본 수 일정하여 무작위 추출
 - 60세 이상: 대도시/중소도시 100개 동을 1차 표본 추출 단위로 삼고, 각 PSU에서 60세 이상 표본 응답자를 5명씩 선정하는 2단계 군집추출방식 사용



질적연구방법

- 대상: 총 41사례
 - 88만원: 12사례
 - X세대: 9사례
 - 베이비붐 세대: 10사례
 - 기타 세대: 10사례
- 기간: 2010년 ~ 2016년
- 초점집단면접 + 심층면접법

2장 세대의 경제, '우리'와 '당신들'의 이야기

본 연구의 세대 구분 및 세대 명칭 명명

세대의 구분과 명명

- 지난 6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코호트적 관점을 견지하되, 각 세대의 연령 혹은 생애주기에 따라 갖게 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세대를 구분하고 명칭을 부여함
- “상징적 경계와 구별짓기”라는 시각에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이러한 세대 구분과 명칭의 적합성을 확인
- 질문지 자료 분석 결과에서 도출한 각 세대의 특징과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한 자료로 각 세대의 명칭을 아래와 같이 선정

88만원 세대

X세대

베이비붐 세대

산업화 세대

2장 세대의 경계, '우리'와 '당신들'의 이야기

세대 구분 및 명칭

88만원 세대(밀레니얼세대)

1980-1992년생

X세대(문화세대)

1970-1979년생

베이비붐세대(유신세대, 민주화세대, 386세대)

1950 - 1969년생

산업화세대

- 1949년생

2장 세대의 경계, '우리'와 '당신들'의 이야기

세대는 스펙트럼이다

한국의 세대 스펙트럼

88만원 세대

X세대

베이비붐 세대

산업화 세대

88만원 세대

X세대

베이비붐 세대

산업화 세대

9

세대 이름 속 숨겨진 이야기

세대 이름 속 숨겨진 이야기

- 사회과학적으로 세대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특정 기간에 중요한 사건들을 공통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로 구성됨
-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세대에 부과된 명칭들은 각 세대에 벌어진 주요 사건·사고의 장면들과 그 연령대의 특징을 체화하고 있는 하나의 표상이자 상징
- 각 세대를 바라보는 미디어와 학계의 시각은 그 세대가 처해있는 사회적 위치와 가지고 있는 시기별로 달라지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시각의 변화가 세대 명칭에 그대로 반영됨

"세대를 이해하는데 있어 이들의 명칭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됨"

10

세대 이름 속 숨겨진 이야기



2장 세대의 경계, '우리'와 '당신들'의 이야기

11

세대 이름 속 숨겨진 이야기

2-30대를 지칭하는 세대명칭들



- 2000년대 후반까지만해도 2-30대에게 부여된 세대명칭은 이들 세대가 갖는 독특한 라이프스타일과 문화적 특성, 능력이 반영된 것
- 2000년대 후반 이후 이들을 지칭하는 새로운 명칭으로 등장한 '88만원 세대', 'N포 세대'는 이들이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측면이 강조된 것
- 청년실업이 중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고착화되면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된 세대 이름이 사용되게 된 것

2장 세대의 경계, '우리'와 '당신들'의 이야기

12



88만원 세대를 둘러싼 시선의 변화(신문기사)

<동아일보> "IP세대" (2008)	<한국경제> "밀레니얼 세대는 경제성장·디지털 특혜 누린 신인류" (2018)
▪ 재미와 열정 (Interest & Passion) ▪ 국제적 잠재 역량 (International Potential) ▪ 혁신의 개척자 (Innovative Pathfinder) ▪ 똑똑한 재테크족 (Intelligent Portfolio) ▪ 만질 수 없는 파워 (Intangible Power) ▪ 상호작용하는 참여 (Interactive Participation) ▪ 즉흥적 인간관계 (Instant Partnership)	▪ 3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세대를 넘어선 'N포 세대' ▪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 IMF 경제위기와 미국발 금융위기(2008년)로 저성장·고용위기를 겪는 세대 ▪ 높은 청년 실업률 등으로 인한 '헬조선 신드롬'

세대 이름 속 숨겨진 이야기

5-60대를 자칭하는 세대 명칭

베이비붐
세대

386민주화
세대

586세대

오팔세대

- 2020년 기준 은퇴연령을 맞은 베이비붐 세대에게 '오팔(OPAL, Old People with Active Life)세대'라는 명칭이 부여됨
- 자신들이 부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으며,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부여된 명칭
-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들의 길어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준비해야만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부여된 '긍정적'인 명칭

2장 세대의 경계, '우리'와 '당신들'의 이야기

15

각 세대별 특징

88만원 세대
(1980-1990)

- 자기계발에 매진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와 태생적 급진열리스트
- "꿀잼"게시는 것이 인생의 목표
- '티브엔 타이프'가 확실한 실용주의파
- 권위를 거부하는 평등주의자들

X세대
(1970-1979)

-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안정을 동시에 누렸던 세대
- 새로운 세대의 모든 것(인터넷/정보와 능력, 개인주의적 성향,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선택)의 시작이 되다
- 탈정치 세대, 문화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다(대중문화의 주도권 장악)

베이비붐 세대
(1950-1959)

-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을 내재화한 마지막 세대
- 공통체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시대
-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성장지향시대
- 노년과 청년을 부양하는 2인 시대
- 베이비붐 세대이며서 오색친환경 오팔세대로

신입의 세대
(1940)

- 삶의 질이 아니라 '생존'이 목적이었던 시대
- 산업화와 도시화 등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한 세대
- 전통적 가치관, 반공 등 보수주의적 권위주의를 내면화하고, 한국 사회의 발전을 이룩했다는 자부심을 가진 세대
- 상실의 시대, 준비되지 않은 노년을 마주하다(약동여된 장수의 끝, 젊음이 권력이던 시대 같 곳을 잃은 노년들)

3장 나에게 묻다, 너는 무슨 세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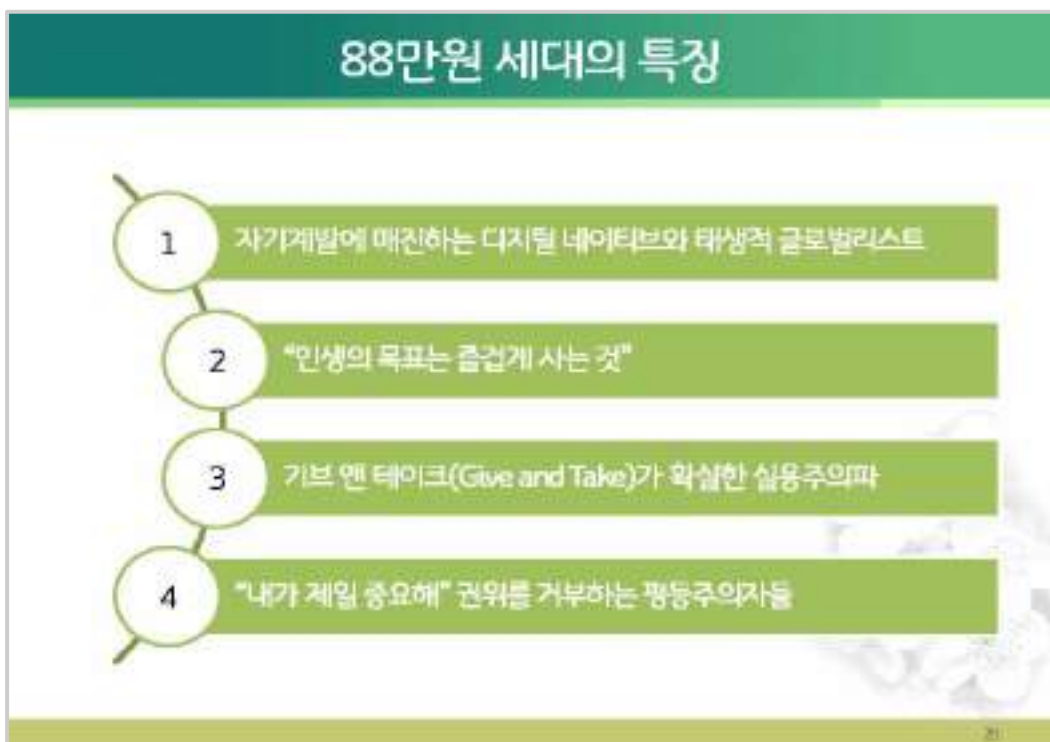
16

“우리는 단군 이래 가장 많이 공부하고,
제일 똑똑하고, 외국어에도 능통하고,
첨단전자제품도 레고블록 만지듯 다루는
세대야. 안 그래? 거의 모두 대학을 나왔고
토익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자막 없이도 할리우드 액션영화 정도는
볼 수 있고, 타이핑도 분당 300타는 우습고
평균신장도 크지.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고, 맞아, 너도 피아노 치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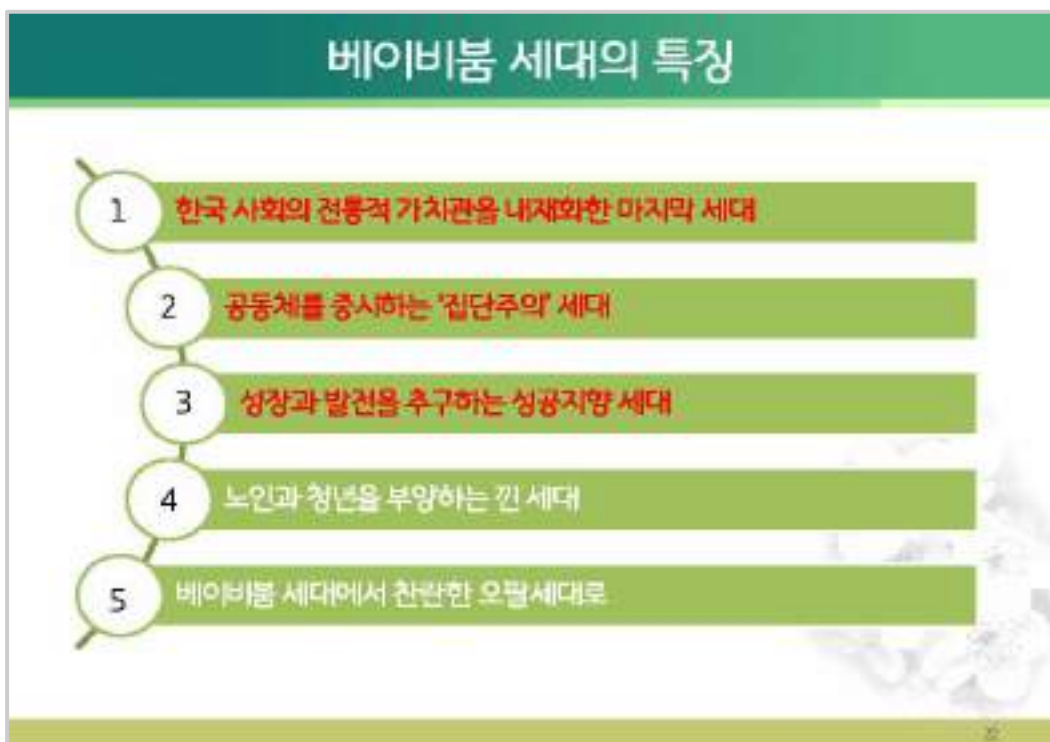
우리 부모세대에는 저 중에서
단 하나만 잘해도,
아니 비슷하게 하기만 해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다 놀고 있는 거야?
왜 모두 실업자인거야?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된 거지?”

2007년 김영하 소설 <퀴즈쇼> 중에서

88만원 세대가 경험한 주요 사건들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 정치적 안정 ▪ 정치적 탈권위 및 긴장 완화의 상황에서 성장	▪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풍족 ▪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 심화
사회적 측면	문화적 측면
▪ 한층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성장 ▪ 남녀 평등에 대한 인식 강화	▪ IT 산업 활성화 (개인용 PC, 케이블 TV, E-mail 등의 보급) ▪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를 배우고 해외경험 및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베이비붐 세대가 경험한 주요 사건들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 4.19 혁명(1960) ▪ 군사정변(1961) ▪ 6.3사태, 베트남 파병(1964) ▪ 10월 유신 ▪ 부마사태, 박정희 대통령 피살(1979)	▪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 ▪ 새마을 운동 시작(1970) ▪ 강남개발(1973) ▪ 수출 100억 달러 달성(1977)
사회적 측면	문화적 측면
▪ 경부고속도로 개통(1970) ▪ 전태일 분신, 사망(1970) ▪ 호남고속도로 개통(1973) ▪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1974)	▪ 국내 최초 흑백 TV 생산(1966)



만화 주제곡으로 베이비붐 세대 특징 알아보기



한국 : 외로워도 슬피도 나는 한 줄이,
완고 완고 또 침착 울긴 왜 울이
일본 : 푸근해 같은 것은 신장 쓰지 않아
납작코어진 하지만 마음에 들고

한국 :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일본 : 말괄량이여 강난처기가 너무 좋아
달리기, 점프기가 너무 좋아.

한국 :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내 이름은 겐다

일본 : 나는 나는 나는 겐다



한국 : 나 혼자 있으면 어쩔지 울을해지지만,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겨울 속의 나하고

일본 : 외로이로 있으면 아주 조금 울을해,
그럴 땐 어떻게 얘기를 해봐 겨울을 보면서

한국 : 웃어라 웃어라 웃어라 헛다마 돌면 바보야
겐다 겐다마

일본 : 웃어라 웃어라 웃어라 겐다, 울보 같은 건
안녕이야. 겐다 겐다.

23

만화 주제곡으로 베이비붐 세대 특징 알아보기



한국 : 어이라고 만만히 보았다가는 그렁구 달구르 큰일나지요

일본 : 어곤어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예요. '여자' 예요.

한국 : 비록 어저로 마어났지만 남자도 못알알 취척 해나네

일본 : 가슴에 두게 볼록한 것이 뒤편에 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한국 : 수수한 옷차림에 모양은 만내도
나만 보면 모두들 좋아하지요

일본 : 화장 같은 것은 하지 않아도
당신은 나에게 벌써 독 바깥이요.



한국 : 그 큰 두 눈에 눈물이 맺히면
오독독한 남자라도 띠라 울지요

일본 : 비장의 무기인 '눈물'을 떠올리면
남자 같은 것은 한입에 넣어

한국 : 묘술천사 꽃분이 착한 꽃분미

일본 : 마녀에이대구는 대녀에이대구는

한국 : 새창식할 마음에 길이 넓거라

일본 : 당신의 마음에 숨어들어갈 거예요.



24

만화 주제곡으로 베이비붐 세대 특징 알아보기

- * 일본 : 폭풍우를 향해 달리는 이사무
- * → 한국 : 씩씩하고 솔기롭고 '나를 식한' 차돌이
- * (<서부소년 차돌이>-원제 <황야의 소년 이사무> 중에서)

- * 일본 : 마녀아이 메구는 마녀아이 메구는
- * → 한국 : 오솔천사 꽃분애 '식한' 꽃분애(<오솔천사 꽃분애>-원제 <코마 마녀 메구> 중에서)

- * 일본 : 무적의 검은 우리들을 위하여
- * → 한국 : 우리들을 위해서만 힘을 쓰는 '식한' 이(<마징가Z> 중에서)

- * 일본 : 벌써! 당중! 미사일 편제
- * → 한국 : 형제고 '인정 많은' 로봇트 용사
- * 일본 :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 로봇이니까. 기계(machine)에니까.
- * → 한국 : 그레이드 그레이드 마징가 차구를 위해 싸운다.

만화 주제곡으로 베이비붐 세대 특징 알아보기



<서부소년 차돌이>(1975)

1970년대 중반 일본에서 국내로 수입 방송된 만화.
원래 제목은 <황야의 소년 이사무>로, 철먹이 때 서부에서 아버지를 잃은 이사무의 이야기를 다룬.

"Oh, Sun boy"로 시작되는 주제가가 한국어로 변안되며 "와, 해님 아들"로 바뀜

만화 주제곡으로 베이비붐 세대 특징 알아보기

- ✦ 일본 : 슈퍼 로봇 마징가 Z
- ✦ → 한국 : 인코안간 코보트 마징가 Z (<마징가Z> 중에서)

- ✦ 일본 : 아다노이드를 무찔러라 제로 테스터
- ✦ → 한국 : 우리의 용사는 우주 **삼총사** (<우주삼총사>-원제 <제로테스터> 중에서)

- ✦ 일본 : 에때다 밎사! 브레스드 파이어
- ✦ → 한국 : 나타나면 모두두 **벌벌벌 떠네**(<마징가Z> 중에서)

- ✦ 일본 : 아아아 사이보그 009(제로 제로 나인)
- ✦ → 한국 : 아아 **무적의 009**(공공구 **복은 영영구**)(<무적의 009>-원제 <사이보그 009>중)

- ✦ 일본 : 황금 BAT(일본어 발음으로 오곤 바트)
- ✦ → 한국 : 황금 **박쥐**(<황금박쥐>-원제 <황금 BAT> 중에서)

- ✦ 일본 : Dash! Dash! 단단단단 Dash! Dash! 단단단단 스크램을 Dash!
- ✦ → 한국 : **달려라 달려 청가, 날아라 날아 청가, 용감하게 싸워라**(<그레이트 마징가> 중)

27

수치로 보는 베이비붐 세대와 88만원세대

❖ 대학 진학률



28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1) 자기계발에 매진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와 태생적 글로벌리스트

❖ 뛰어난 능력과 풍부한 문화자본을 갖춘 세대

- 높은 교육열 및 대학 진학률을 통한 학력자본
-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험 (개인용 PC, 조기 외국어 학습, 해외여행)을 바탕으로 한 컴퓨터 및 영어실력

❖ 자기계발에 매진하는 세대

- 끊임 없는 배움, 스펙과 역량을 위한 노력
- 고학점을 위한 재수강, 제2외국어 학습, 몸매/외모 관리

29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2) “인생의 목표는 즐겁게 사는 것”

❖ 재미와 즐거움'을 삶의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

- 밀레니얼 세대의 75%,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

❖ 여가와 문화생활 중시

- 주어진 연차나 휴가를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YES)
- 휴일에 일이 있다면 꼭 출근해야 한다. (NO)

❖ 재미를 추구하고 여가를 향유하는데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

-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자신이 특별하게 선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에 상관없이 최고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감성, 문화, 유행 등에 민감하여 가치소비와 충동소비를 많이 하는 편

31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3)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가 확실한 실용주의파

❖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에 행동을 취함

❖ '내 것' 중시 경향

- 외환위기 경험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
- 밀레니얼 세대의 고민은 연애나 결혼이 아닌 '취업과 돈'

❖ 최근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실용주의가 극단적으로 나올 수 있음

- 봉사도 스펙: 무조건적인 희생과 봉사 NO

32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4) “내가 제일 중요해” 권위를 거부하는 평등주의자들

- ◆ 자유로움이나 평등과 같은 가치를 중시
- ◆ 즉흥적인 인간관계
 - 온라인 중심
 - '외리나 청' 보다는 '자미와 실용성' 추구
- ◆ 탈권위주의에 대한 지향
 - 부하직원이 상사보다 높게 퇴근해야 한다. (NO)
 - 가장의 권위는 무조건 존중 받아야 한다. (NO)

33

결론



34

A decorative, ornate frame with a central diamond shape and intricate scrollwork on the sides and top/bottom.

제 1 주제발표

교직 내 세대 간 문화차이 및 인간관계 개선 방안

발표: 윤 소 희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직부 교수)

교직 내 세대 간 문화차이 및 인간관계 개선 방안

윤 소 희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직부 조교수

2021. 04. 24.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 CONTENTS

- 01 다세대 일터로서의 교육조직
- 02 교직 내 세대 간 문화차이 : N세대를 중심으로
- 03 세대 간 화합을 위한 관계개선: 인간관계 5C 이론
- 04 정책적 제언



1. 다세대 일터로서의 교육조직

조직 운영의 3요소: 3M







교사는 타 조직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동일 직급 내 다양한 세대가 존재하는
다세대 일터(multigenerational workplace)

(Abram & von Frank, 2014)

유치원 연령 별 교사 분포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대전교육청	부산교육청	인천교육청
20대	3,424명	6,043명	1,155명	2,046명	1,474명
30대	1,674명	3,382명	375명	663명	723명
40대	882명	2,138명	218명	413명	428명
50대	374명	1,300명	129명	238명	218명
60대	163명	294명	56명	107명	80명

출처: 2020. 04. 01. 기준 교육청 별 교육통계연보 자료

- 공, 사립 유치원 포함(어린이집 교사 수 제외)
- 초, 중등학교 급 보다 20대 비중이 월등하게 높음
- 20대와 30대 급간에서도 인원 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남
- 초, 중등학교 급보다 N세대에 속한 비중 높고, 다세대일터로서의 특징 부각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

교직 내 세대 현상에 관한 선행연구

주제	연구물	키워드
교사-학생 간 세대 차이 연구	조애귀(1995), 김종경(2005), 박갑기(2008), 차명섭(2017)	교사-학생 간 관계, 세대 차이, 갈등 해결, 의사소통, 가치관 차이, 문화적 차이, 권위주의, 소동 부재
교사 세대 간 교직의식(교직관), 교직수행 차이 연구	강신문(1990), 이항재, 고옥심(1998), 이태영(1997), 이희문(1997), 구성서(2002), 장대성(2008)	교직관, 인간관계, 전문성, 가치관, 소속감, 혁신, 풍토 조성, 신리, 학교 경영
교사 세대 간 갈등에 관한 연구	이종익, 이명신(2011), 최효진(2015)	베이비부머, X세대, Y세대, 가치관, 세대의식, 세대 간 차이, 업무 방식, 학교 관리자
특정 세대에 관한 연구	박후남(2005), 김재원(2018), 윤소희 외(2019)	밀레니얼 세대, Y세대, 젊은 교사, 직업 동기, 업무 인식, 교직 경력 전망, 포레스트, 신혼, 가치관, 행동양식, 지식

출처: 김지선 외(2019:9)

2. 교직 내 세대 간 문화차이: N세대를 중심으로

세대 구분 및 특징

구분 기준		세대 명칭	특성
연령/ 생애 단계	연령 (10년 단위)	1000세대, 2030세대, 3040세대	영공학적, 사회적 성숙에 따른 효과 강조 상업적 목적과는 차별화
	생애 단계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노년기	
역사적 경험	역사적 사건	6.25세대, 무신세대, IMF세대	정치, 경제, 문화적 사건과 상황, 경험을 중시 상업적 목적 활용은 낮음
	시대 특성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베이비붐 세대, 386세대, 88세대	
문화적 형태적 특성	문화적, 형태적 특성	신세대, X세대, N세대, Z세대	사회의 문화, 형태적 특성 반영 상업적 목적을 위한 차별화
	소비 형태	P세대, WINE세대, MOSAIC 세대	

출처: 박재홍(2009: 15), 윤석 외(2018: 48) 일부 수정

N세대의 특징

- 01** 디지털 문명에 자연스럽게 익숙함, 인터넷·공간에서 자신의 의견 개진
(황일희, 2003)

- 02** 문화의 다양성 수용, 개성과 차별화 추구하는
 개인주의 성향
(이수영, 2004)

- 03** '삶의 유희', '재미' 추구, 현재가 더욱 중요
(임종택, 2010)

- 04** 자유로운 선택과 맞춤형 상품 중시 소비문화
(임종택, 2010)


N세대 교사 문화 분석 준거



N세대 교사들의 교직관

입직 전



‘학부 때 교직관에 대해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전문직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교사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전문성을 높여야 더욱 노력해야 하고...’

➤➤ 전문직관

입직 후



‘아이들이 힘들게 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냥 직업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도는 하는데 기대는 하지 않아요. 감정을 싹 빼는 거죠.’

➤➤ 노동직관

교직관의 변화





N세대 교사들의 지식관

수업멘토는 인디스쿨	교과서 내용이나 수업 준비는 주로 인디스쿨을 참고해요. 일부는 부장님께 여쭙어보지만... (E교사)
Youtube로 수업시작 아이스크림 마무리	동영상같은 유튜브를 해요. 애들이 그런 거 보는 걸 좋아하고. 저는 그동안 참 잘 수 있었나 싶고... (A교사)
수업 연구하기엔 글썽해요...	과목이 엄청 많으니까 다 연구하기엔 힘들죠... 한 번밖에 배워올 수 없고... (H교사)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신은...	동영상, 매체를 자주 사용하지만 어디까지 사용해야 수업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을 못하잖아요. 책정연이... 대단지 (C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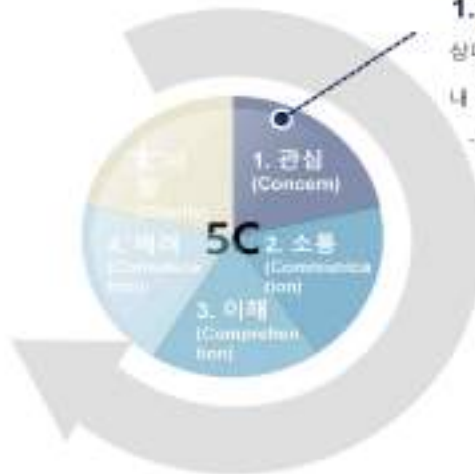
3. 세대 간 화합을 위한 관계개선 : 인간관계 5C 이론

세대 간 화합을 위한 인간관계 : 5C



김도가 외(2018)

세대 간 화합을 위한 인간관계 : 5C



1. 관심 갖기

상대방에게 마음이 끌려 신경 쓸

내 마음을 보여줄 준비를 함.

- 선생님, 오늘 힘들어 보이시네요.
- 선생님, 오늘 머리핀이 잘 어울리시는데요?
- 선생님 반 아이들이 좀 예절이 예쁘더군요.

세대 간 화합을 위한 인간관계 : 5C



2. 소통하기

상대방에게 호감을 이끌어 냈다면,
대화나 문자 등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의 심리적 관심을
표현하는 과정

- 아이들을 수업에 집중시키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 온라인 수업 영상 찍는게 헛갈리네요.

세대 간 화합을 위한 인간관계 : 5C



세대 간 화합을 위한 인간관계 : 5C



세대 간 화합을 위한 인간관계 : 5C

5. 사랑하기

관심, 소통, 이해, 배려를 통해
최종적으로 상대방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열렬히 좋아함으로 자신도
행복해질.

· 인간관계의 총적점이자 또 다른
관심, 소통, 이해, 배려로 이어지는 출발점



4. 정책적 제언

정책적 제언 : 기관 차원

01

세대 간 교육철학, 비전 공유를 위한 시간, 여건 조성

세대 간 인식 차이를 극복, 공동 목표를 향해 헌신, 협력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은 불리치 시간, 여건 등을 조성하여 공유할 수 있는 환경 마련

02

전문직·학습공동체 등을 통한 소통, 협력 강화

기성세대 교사들과 N세대 교사들 간 지식이 상호적으로 보완, 긴밀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강화

03

의례화, 보여주기 식 관료주의적 교직문화 개선

N세대이 고요한 참여성, 혁신과 변화에 대한 유연성, 지적 개방성 등을
통해 새로운 교직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

정책적 제언 : 행정 조직 차원

01

교직원 성찰, 재정비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제공

노동직권을 가지고 교직생활을 지속하는데 현실적 어려움 봉착
스스로 교직관을 성찰, 재정립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구축

02

각 기관 내 교사 세대가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배치

단위 기관 내 교사 선발 및 전보 시 여러 세대가 분포하여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고 동성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03

유아교육기관 차원의 교사 세대에 관한 장기적 연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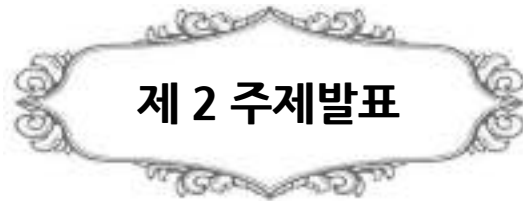
유아교육조직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여를 수 있도록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연구 진행 필요

참고문헌

- 김도기, 김재현, 문영진, 유미라(2018). 학교 내 인간관계 형성에 대한 시론적 고찰: 영화를 중심으로. *GCL*, 8(5), 149-175.
- 김윤정(2009). 교사문화의 진단도구 개발 및 특성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김지선, 윤소희, 유미라(2019). 학교조직 내 교사 세대 간 인식 차이와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CP 2019-13*.
- 박재홍(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달론에 대한 비평적 검토. *경제와 사회*, 81, 10-34.
- 윤소희, 유미라, 김지선, 김도기(2019). A초등학교 N세대 교사의 교직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교원교육학회*, 36(3), 315-341.
- 온석, 안승재, 합선유, 풀백의(2018). 세대 차이인가, 계층 차이인가? *아시아리뷰*, 8(1), 41-74.
- 이수범(2004). N세대 소비문화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광고학연구*, 15(3), 71-90.
- 임흥택(2018). *90년생이 온다*. 서울: 위밀북.
- 정성호(2003). N세대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의의. *강원인문논총*, 11, 389-413.
- Abram, J. B., & von Frank, V. (2014). *The Multigenerational workplace: communicate, collaborate, and create community*. Corwin Press.
- Palmer, P. J. (1998). 이종인, 이은정 역(2011).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서울: 한문화.
- Stane-Johnson, C. (2016). *Generation Identity, Educational Change, and School Leadership*. NY: Routledge.

감사합니다

윤 소 희 (vivaolga@hnu.kr)



제 2 주제발표

유아교육기관 구성원의 세대 간 갈등 및 해결방안

발표: 최 재 원 (우정유치원 원장)

유아교육기관 구성원의 세대 간 갈등 및 해결방안

우정유치원 원장
중앙대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최 재 원

목 차

- 1 세 대
- 2 갈 등
- 3 세대간 갈등
- 4 세대별 특징
- 5 유아교육기관의 특징
- 6 세대간 갈등 사례
- 7 세대간 갈등 경험에 대한 반응(대응)
- 8 세대간 갈등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

1. 세대

세대 : 동일한 역사, 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함으로써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유사한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합



2. 갈등

갈등

· '갈등(葛藤)'은 취 '갈(葛)'과 등나무 '등(藤)'

취와 등나무 모두 대를 휘감고 올라가는 성질이 있는데 취는 오른쪽, 등나무는 왼쪽 방향으로 감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은 나무를 타고 오르게 되면 서로 목을 조르듯 얹히고 설리게 됨.
취와 등나무가 얹히면 서로 질겨서 자르기도 힘들고 뿌리까지 뽑기도 어려워 풀리지 않음.

·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



2. 갈등

갈등의 기능

순기능

- 집단 내 응집성 강화
- 사고방식, 행동의 개선
- 집단의 상호 적응력 강화
- 개방적 상호관계 조성
- 창의적 변화 지향적

역기능

- 독재적 리더의 등장
- 과업 강조
- 규범행동 강화
- 부정적 평가
- 의사전달 및 소통의 감소
- 적대적 부정적 태도 증가

3. 세대간 갈등

세대갈등??

▶ 세대간의 행동양식, 가치관 등의 차이가 현실 속에서 어떠한 특정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세대차이??

▶ 각 세대에 따라 경험, 사고방식, 가치관이나 행동 등에 있어 일정한 차이 또는 다름이 존재하는 경우



3. 세대간 갈등



(출처 : 삼공회의소, 약치기그림)

3. 세대간 갈등

꼰대??[ggon:dae]

영남사투리 '꼰대기'와 프랑스어 '꼰테(comte)'에서 유래된 말로,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학생들의 은어 최근에는 "꼰대질"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

꼰대의 자세

Who 내가 누군지 알아
What 뭘 안다고
Where 어디 감히
When 왕년에
How 어떻게 나한테
Why 내가 그걸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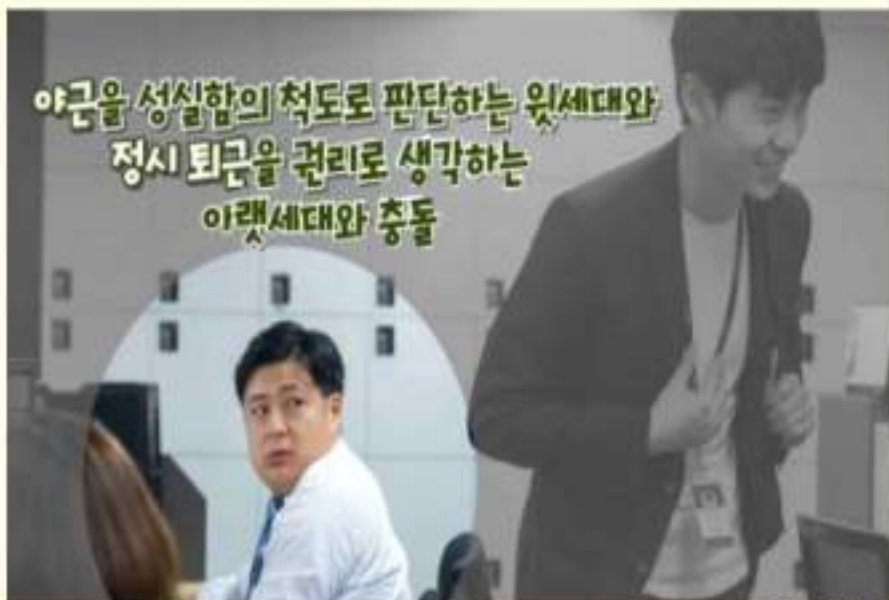


(출처 : jobsN, eposter)

3. 세대간 갈등



3. 세대간 갈등



(출처 : 상공회의소)

3. 세대간 갈등



(출처 : 성공회예소)

3. 세대간 갈등



(출처 : 성공회예소)

이러한 세대갈등은 일부 세대로 인해 발생하는 것일까요?

3. 세대간 갈등



(출처 : 네이버 블로그)

고대로부터 세대갈등은 항상 있었다.



3. 세대간 갈등



신세대 생각

노약자석은 노인, 임신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대중교통 이용객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므로 노인들만
독점하는 자리가 아닌,
자리가 비어 있으면 언제든지
앉을 수 있다.

기성세대 생각

지하철에서 아무 생각없이 노약자석에
앉았다가 노인에게 큰 용변을 당한다.
왜 젊은이가 노약자석에 앉는가?
왜 노인들은 큰 소리로 망신을 주는가?

노약자석은 경로석이므로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3. 세대간 갈등



2008년 이전의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008년 이후의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왜 그래야 하세요?

4. 세대별 특징

교직현장의 세대

베이비붐 세대

1954

- 대학시절 학생운동 성행
- 공동체 의식
- 직장내 위계와 권위에 대한 존경심
- 장시간 근무와 헌신의 동일시

386 세대

1970

- IMF
- 경제발전시기 출생
- 개인주의 성향
- 탈권위주의
- 물과 불의 균형 추구

X 세대

1980

- 컴퓨터에 익숙한 세대
- 강한 자의성, 능동성, 긍정개방
- 자유로운 표현과 뚜렷한 관점
- 위험회피, 순응적
- 사회적 이슈에 무관심

N세대

참고 : 김재원, 정바울(2018)

4. 세대별 특징

베이비부머, X세대

출생시기 : 1946년~1979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일의 성공, 개인의 개성보다 생존이 더 중요

근검절약, 고용안전

조직 중심, 고용주 충성

가족중심 가치관

기존의 방식을 고수

N 세대

출생시기 : 1980년~1999년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자신의 행복에 대한 가치 중요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

연애가 아니라 솔직함이 미덕

다양성, 개성

기술을 이용한 멀티태스킹 능력

자존감 높음, 사고의 유연성

오락성과 즐거움 추구

4. 세대별 특징

구분	60~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충성의 대상	회사 그 자체	자기 팀과 프로젝트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미래
충성의 대가	회사에 대한 충성은 곧 나에 대한 충성	몸값과 승진을 보장함	회사에 헌신하면 헌신책이 됨

4. 세대별 특징

신세대 교사들의 특성

개인의
권리 추구

순직함

수평적
관계 지향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정직함



4. 세대별 특징

기성 세대 교사들의 특성

집단
우선시

교사의
권위 중시

개인의
희생
필요불가결

수직적
문화에
익숙함



4. 세대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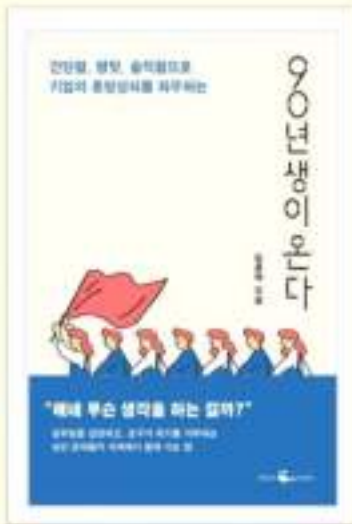


5. 유아교육기관의 특징

1. 소규모 조직 (한정적인 인간관계)
2. 유아, 학부모, 동료, 상사와의 관계 유지
3. 교사 간에는 수평적 관계형성, 원장과는 수직적 관계형성
4. 느슨하고 융통성 있으며 가족적인 특성
5. 여성이 많으므로 각자의 개인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이해를 통해 맥락 형성
6. 사적인 인간관계 중심의 의사소통 방식
7. 업무분장 및 역할 기대 측면에서의 어려움
8. 한명이 동시에 여러가지 과제 수행하므로 부담은 크고, 과제 완성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9. 교육과정 운영 시 자율성과 융통성
10. 각자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을 더욱 중요시
11. 담당 학급 운영 외에 진행되는 대부분의 업무는 공동업무
11. 일반 학교보다는 근무환경 열악
12. 적어도 2~3세대가 공존하고 함께 일하는 다중 세대로 구성된 조직



6. 세대간 갈등 사례



VS



(출처 : 매일북, 네이버블로그 Sunnyday-Ya)

6. 세대간 갈등 사례. 신세대

기존방식 고수	업무분장	조직문화	기 타
- 재물잔치, 작은 음악회 - 교구, 교재 만들기 - 교육 계획안, 교육일지 형식 고수	- 나이순 - 하향식 지시	- 회생, 봉사 당연시 하는 분위기 (주말 무급출근, 야근) - 권위적, 융통성X	- 초퇴, 연가 사용시 구두보고 - 업무시간 이후 이루어지는 회식, 워크샵 등 - 사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 및 충고

6. 세대간 갈등 사례. 기성세대

교직원	관계맺기	조직문화
• 원장-성직관 • 교사-전문직관, 노동직관	• 취미, 언어, 음식 • SNS • 솔직함	• 원장-가족과 같은 끈끈함 • 교사-개인주의 • 공동체 의식 부족 • 잦은 이직

유아교육기관 구성원의
세대간 갈등 사례

6. 세대간 갈등 사례

사생활



“남자친구 있나요?
좋은 나이에 남자친구는 왜 안 만나요?”
“남자친구는 어떻게 만났어, 결혼은 할거야?”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친목의 대화 주제**일 뿐
사생활에 간섭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원장(관리자)



지극히 **사적인 부분**인데 왜 계속 묻는지 이해도 안되고
나도 왜 계속 대답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직장을 일하는 곳이지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하고 싶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인 대화를 직장에서 길게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교사



6. 세대간 갈등 사례

사생활



내가 머리스타일이나 복장을 치장하면
“무슨 약속에 있냐? 어디 좋은데 가냐?” 꼬치꼬치 물어보신다.
지난번 방학 때도 누구랑 어디 가냐고 물어봐서 당황스러웠다.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왠지 **체크 당하는 기분**이다.

교사



그냥 **관심의 표현**이자 **관리**일 뿐. 별 의미는 없다.
원장으로서 이정도의 관심이 지나친 것인가?

원장(관리자)



6. 세대간 갈등 사례

사생활



요즘 젊은 교사는 **다양한 취미**를 갖고 있다.
우리 교사는 만화, 음식, 여행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고
주말마다 번개여행을 다녀 온단다. 체력도 좋아~
취미에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 보면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다.



예고없이 저녁 회식을 하는 경우,
약속 있다며 참석하지 않는 교사를 보면 지나치게 **개인주의**라는 생각이 든다.
회식도 조직생활의 일부인데...



6. 세대간 갈등 사례

복무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조퇴를 쓰지 않고 학교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내가 교사일 땐 매일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하고 조퇴를 써본 적이 없다.
육아 휴직이나 연가에 자유롭게 못했다.
젊은 교사들은 **책임감은 없고 권리만 주장**한다.
여러가지 번을 너무 잘 알고있는 세대라
담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이 당혹하다.



원장(관리자)



조퇴, 연가, 육아휴직 등의 개인 복무 제도의 사용은
개인의 의무이자 권리인데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너무 억압적이다.

교사



6. 세대간 갈등 사례

복무



교사의 자기개발과 유치원에 도움된다고 판단하여 대학원 진학을 허락했다.
교사는 유예를 놓이시간에 과제를 하고, 아프다고 결근하고, 행사 시 공동작업도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여 매우 실망하고 화가 났다.
다른 교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1년동안 종일반 교사로 지내다가 교육과정담당 교사로 임용했다.
이 교사는 "급여차이는 없는데 왜 이렇게 일이 많나요? 건의해도 되나요?"
종일반 교사와 교육과정 교사는 역할과 책임이 다른데 그러한 **마음의 준비도 없이 교육과정 교사**를 하려고 했는지 답답했다.



6. 세대간 갈등 사례

복무



당직에 대한 지침이 지역청별로 다르고 원마다 다르다.
나는 한학기 동안 많은 일을 하며 힘들게 지냈는데 방학 때 쉬고 싶어도 당직 일수가 많다.
협의해서 유아들이 많은 시간에 당직을 하고 유아들이 적어지는 오후에는 일찍 퇴근하고 싶다.
당직을 강제하면 안된다는 규정도 있는데...

교사



방학이라도 종일반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밀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당직은 당연하다.**
왜 유치원 지침에 자주 불만을 갖는지...

원장(관리자)



6. 세대간 갈등 사례

복무



개원기념일은 재량휴업일로 간주하여 하루 쉬기로 했는데 이번엔 개원기념일이 공휴일이라 평일을 따로 정해서 쉬긴 어렵다. 일하는 엄마들은 누구에게 아이들을 맡기겠나? 미리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미안하지만 이번 개원기념일에는 별도로 쉬지 못하니 양해바란다.

원장(관리자)



미리 여행 일정을 맞춰 두었는데 환불해야 하는지... 이번만 평일에 쉬면 안되나요? 속상하다.

교사



6. 세대간 갈등 사례

복무



어린 교사는 매사에 엉덩이가 가벼워야 한다. 우리 때도 다 그렇게 해왔고 그때에는 더 위계질서가 엄격했다.

원장(관리자)



선배보다 왜 내가 더 일찍 출근해야 되고 더 늦게 퇴근해야 하는가? 유치원에 온 손님이나 학부모도 왜 우리가 접대해야 하는지. 우리만 왜 엉덩이가 가벼워야 하는지...

교사



6. 세대간 갈등 사례

복무



업무 중, 고민되는 부분을 여쭙보곤 하는데
원장님이 "일일에 지시를 다 해야하나? 알아서 좀 해봐"
라며 귀찮아 하셨다.
그래서 알아서 했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하라고 하신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교사



요즘 교사들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가르쳐 줘야 한다.
어릴 때부터 **고민하는 습관이 부족한** 듯 하다.

원장(관리자)



6. 세대간 갈등 사례

복무



업무능력이 미흡한 교사에게 자세히 가르치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알만하고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장 : 선생님 이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사 : 원장님, 알고있지만 안했어요.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시니까요~
원장 : 죄송하다고 하면 되지 꼭 그렇게 말을 해야겠어요?
매우 과감한 생각이 들었다

TALK



6. 세대간 갈등 사례

성(性)인지 감수성



"선생님은 엄청 늘씬하고 멋지다.
남자들에게 인기 많겠는 걸. 젊음이 부럽다."

좋은 의미에서 젊은 선생님의 **외모에 대해 칭찬**을 한 것일 뿐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 진짜 부러운데...

원장(관리자)



아무리 여자이신 원장선생님이라도
이러한 발언은 **수치심**이 느껴진다.
내 몸매를 평가받고 있다 느낌이 들기도 한다.

교사



6. 세대간 갈등 사례

성(性)인지 감수성



"아무래도 **남자니까 힘쓰는 일, 고치는 일**은 남자 선생님이 해야지.
유치원 안에 참새가 들어왔다가 죽었네.
징그로우니까 남자교사가 치우면 좋겠다.
군대 갔다 왔잖아."

원장(관리자)



"나도 징그럽고 싫어요."

원장님이라도 망해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키는 것은 불쾌한데
안할 수 없으니 **역지로 했다**.

교사



6. 세대간 갈등 사례

성과급



많은 업무를 하였음에도 경력순으로 성과급을 받는 것은
업무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교사



계속되었으면 **관행**이고,
선생님도 언젠가 고경력교사가 되면 받을 성과급이니
속상해 하지 않길 바란다.

원장(관리자)



6. 세대간 갈등 사례

수업



우리 때는 수업자로 직접 만들었지, 환경 꾸몄지,
늘 수업에 고민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왜 요즘 교사들은 수업준비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정시에 퇴근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하루 일과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요즘 선생님들은 너무 편히 사는 것 같다.

원장(관리자)



교구제작시 인터넷, 소셜미디어 이용하거나
원재품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뭐라 하시는 것도
지나친 **간섭이자 침해**라고 생각된다.

교사



6. 세대간 갈등 사례

업무



발달이 늦은 유아와 학부모의 태도 때문에 많이 힘들고 자존심이 상했다.
그런데 원장님은 나에게만 학부모를 이해하라고 하며
저자세로 나가길 권유한다.
왜 교사 편에 서지 않고 학부모 편만 드는지..
교사의 대변인이 되어 주시면 안되는지..

교사



유아들이 각각 개별적인 것처럼 학부모 역시 유형이 다르다.
특히 예민하고 별난 학부모와 갈등이 있을 때는
교사가 최대한 인내하고 수용적이어야 원만히 해결된다.
저자세가 아니라 **전략**이다.

원장(관리자)



6. 세대간 갈등 사례

업무



종일반은 혼합연령이라 하루 종일 정신이 없고 힘이 든다.
아무리 우리 반 원아 수가 미달이라도 교사가 이렇게 힘든데
한명이 더 들어오면 더 힘들고 수업의 질이 떨어질 게 뻔하다.

"종일반 유아를 그만 뽑으면 안되나요?"

교사



원장은 **운영자**이다.
교사의 어려움도 알겠으나 학급당 **원아 수가 미달되어 충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사의 건의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혼란스럽다.

원장(관리자)



6. 세대간 갈등 사례

업무



교직에 적응하여 해급경쟁을 열심히 배우고 정학해야 할 저경력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젊은 교사들에 더 많이 일해야 하고 힘든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교사

나도 **젊었을 때 다 했던 업무들**이다. 젊은 사람이라 빠르게 일처리 할 수 있으니 업무를 좀 더 가져가도 괜찮을 거 같다. 시간이 지나면 도움이 많이 될거야~

원장(관리자)



6. 세대간 갈등 사례

업무



과거에 교사들은 행사준비나 평가 준비에 정성스럽게 열심히 임했었다. 지금 교사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하에 일을 불리지 않는 것 같다. 어느 정도 **해보고 힘들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하에 처음부터 힘든 표정을 짓거나 무반응으로 일관한다.

원장(관리자)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다. 원장님의 의견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교사



6. 세대간 갈등 사례

업무



학사운영의 일정을 미리 결정했어도 방학 당직, 행사 등의 구체적 일정은 **가변적인 유치원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일정을 미리 알려주기 어려울 때가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원장(관리자)

가변적인 상황은 이해되지만 행사일정이 빨리 확정되어야 생활주제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방학휴가는 언제인가? 미리 알아야 **스케줄**을 잡지.
면담 때 내 상황을 말해볼까?”

교사



6. 세대간 갈등 사례

장학



장학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원장님의 원내 장학은 최소한의 횡수를 말한다.
나는 원격수업이 중요해졌으니 그와 관련한 장학을 받고 싶었는데
원장님은 나의 수업기술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동극수업 장학을 받으라고 권하셨다.
왜 동극수업을 장학을 하시겠다는 건지... 별 의미가 없다.
나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

교사



원장이 교사의 **수업을 지도하고 관리** 하는 것은
주요 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원장(관리자)



6. 세대간 갈등 사례

장학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왜 어린이들에게 친구라고 하나요?
질문보다는 지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밤어만 하지 말고 선생님이 왜 그렇게 했는가 잘 생각해 봐요."

원장(관리자)

원장님이 교실에 직접 들어오셔서 수업을 참관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창 밖이나 몰래 숨어서 나의 수업을 살짝 본 후,
고투리를 잡고 이야기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나의 수업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비판하는 모습에 **마음에 병**이 생겼다.
교사로서 **나에게도 수업권과 아동권**이 있다.

교사



6. 세대간 갈등 사례

장학



주간교육계획안 작성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원장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원장님은 의견을 받아 적으라 말씀해 주셨는데
나의 의견도 더하여 적었다가 "본인 의견을 적을 거면 왜 도움을 요청했나"
라는 말을 들었다.

자신의 수업스타일만 고집하는 원장님.
교사의 수업스타일이 원장님의 생각과 다를 경우
교실에 들어와 직접 교정하시는 원장님,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매우 난감하다.



6. 세대간 갈등 사례

복장, 용모



개인으로서 **나를 표현**하는 부분이므로
활동에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편하게 일하려면 청바지를 입고 싶고,
여름엔 더우니까 민소매도 입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일도 하고 싶다.



<허용의 수준>

- 1대원장 : 청바지와 네일 금지 (절대 안된다.)
- 2대원장 : 헌정학습시, 청바지 허용
- 3대원장 : 행사시, 청바지 허용
- 4대원장 : 매주 금요일 청바지 Day

코로나로 외출이 어려우니 스트레스 풀고 낙미 필요하다.
말은색, 손톱 짧게 정도는 허락한다. 단, 보석같은 파츠는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안된다.
손톱이 곧 무기가 된다.

교사의 **일상적 언행, 복장, 용모** 등은
유아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한다.



원장(관리자)

6. 세대간 갈등 사례

용모, 언어

한 교사가 목과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왔다.
몸이 안 좋은가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며 더운 여름에도 계속 긴팔을 입고 다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신체부위에 문신**을 하고 가리고 다녔던 것이다.
직설적으로 경고했다 "당장 지우세요"



"재원씨! 반가워요." "헐!" "대박!"

유아에게 자연스럽게 건네는 교사의 말이다.
교사의 성향이 다름을 인정하지만,
어린 교사들은 말투와 행동들이 다소 **가벼운 경향**이 있다.
물론 유아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방법이겠지만, 너무 가볍게 느껴질 때가 많다.
어느정도 까지 **허용**해야 할지?



원장(관리자)

6. 세대간 갈등 사례

유치원 전통



원장님께 간식 드릴 때 컵시, 포크의 위치, 냅킨을 접우는 방법까지도 교육받았다. 원래, 학부모 관리보다 **원장선생님께 대한 예의**에 더 신경써야 하니 무엇이 중요한건지 잘 모르겠다.



환경구성 시, 글자를 **붓글씨**로만 쓰게 하신다. 컴퓨터 폰트가 다양해져서 붓글씨 제도 출력 사용 가능한데 글에 붓에 물감을 묻혀 쓰고 말린 후에 붙여야 하는지... 시간과 노력이 너무 들어간다. 너무 **구시대적인 전통**이다.

구시대적인
전통

설날 전날, 원장님과 식사를 한 후 집에 돌아가서 명절을 잘 보내시라고 연락 드렸다. 명절이 끝난 후, 출근했을 때 명절 당일엔 연락이 오지 않아서 서운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명절 전에 연락 드렸는데 당일에 한번 더 연락드리는 게 맞는가?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지? **무엇을 잘못 한건지...**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제작한 역할영역의 배경과 환경이 촌스럽다고 활용하지 못하고 **유치원에 선호하는 색, 분위기, 배경으로 다시 구성**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6. 세대간 갈등 사례

회의



실수하거나 잘못 했을 때 조용히 일대일로 만나서 잘 얘기해주면 좋겠다. 모두 있는 자리에서 질책하면 **모욕감**을 느끼고 오히려 **반감**이 생긴다.



교사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실수는 회의시간에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비교적 무회해서 말하는데도 교사들은 **상처**를 많이 받는다. 요즘에는 지적하기도 어렵다. 교사가 반성하려는 의지보다 상처받았다는 표현을 해서 분위기가 삭막해진다. 앞으로 더 잘하라고 하는 것인데... 교사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기대할 수 없다.

원장(관리자)



6. 세대간 갈등 사례

회의



우리 원은 회의할 때 겸허이 우선시 된다.
곧고루 의견을 얘기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이 90% 이야기 하시고 나머지는 **종정**해야 한다.
어린 교사가 의견을 제시하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빠 하신다.
또 제대로 듣지도 않고 '선생님이 뭘 알아?'라며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원장님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된다.

교사



교사회의 시, 전체적인 맥락이나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모른 채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직설적인 제안**을 하는 교사를 보면 **무례함**을 느낀다.
심지어 가끔은 '**나에 대한 도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쾌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예의 바르게 깊이 생각하고 말했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원장(고경력 교사)



6. 세대간 갈등 사례

회의



원장님이 교실에 필요한 매트를 사오셨다.
그 전에 교사들과 협의한 매트가 아니고
원장님께서 임의로 정하신 제품이라 활용성이 없었다.
이럴 거면 왜 교사들과 **협의**하는건지?

교사

회의 중에, 원장님은 중간중간 업무를 보시거나 전화를 받으신다.
원장님의 다른 업무로 인해 회의진행 중에 하영없이 기다려야 했다.
이로 인해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각자 업무시간에 차질이 생겼다.
원장님은 회의를 못했으니 퇴근이 늦어진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회의가 아니면 다음날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중요한 회의였다면 퇴근시간에 엄박할 것이 아니라
여유로운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6. 세대간 갈등 사례

연수



교사연수가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여러 업무로 분주한데 연수가 있으면 좀 그렇다.
개인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교사연수도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다.



교사

교사는 늘 각종연수나 재교육을 통해 자기수업에 대해 점검도 하고,
현재 교육상황에 대해 빠르게 이해해야 한다.
교사연수는 기회가 되면 무조건 받는 것이 **중요**하다.

원장(관리자)



6. 세대간 갈등 사례

기타



최근 세월호 사건이나 학교에 괴한이 침입하여 난동사건이 있었는데
만약 유치원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선생님 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교사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아이 한 명을 더 구해야 진정한 교사...

원장(관리자)



교사 1 : ...
교사 2 : ...
교사 3 : 그런 상황이 되어봐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



6. 세대간 갈등 사례

기타



새로운 원장이 부임하여 교사들과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았다**.
 교사들이 사사건건 원장의 의견에 반대하고 학부모와 단합하여
 원장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계속 되었다.
 몇몇 교사가 퇴사하자, 학부모들이 원장의 과도한 업무 지시가 원인이란서
 원장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장은 **교사의 눈치**를 보게 되고,
 제대로 업무 지시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7. 세대갈등경험에 대한 반응(대응)

신세대

기성세대

7. 세대갈등경험에 대한 반응(대응)

신세대

- 전통을 배운다.
- 입학적 불만함을 느끼나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를 통해 배우기도 한다(예: 책, 환경, 친구들 등).
- 대학 후에도 무제한 열, 행동 없었는지 반성해본다.
- 일을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받아들여 노력한다.
- 개인의 경험과 생각이 다르므로 다양한 관점이다.
- 나보다 어린 교사에게 할애해야 겠다고 다짐을 한다.
- 나도 본대가 더나가 생각하게 된다.
- 경험에서 나오는 노력을 배운다.
-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신세대의 특성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

- 거부감 느낀다.
- 그대로 따르는 것이 힘들다.
- 또 하나의 일이 생기는 것 같다.
- 실망 않는다.
- 답답하고 무력감을 느낀다.
- 태와 시 동양의 특성이나, 요령 살피고 눈치를 보게 된다.
- 의견을 표현해봤자 수용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 의견을 제언하지 않는다.
- 소중을 해도 한계가 있다.
- 신뢰감이 없어진다.
- 좀 참지 않도록 조심한다.
- 서로간의 의견이 맞지 않게 되었다.
- 내일이 많으니 위로 불려지게 된다.
- 조직문화 좋고 소문이 잘라서 과실히 나쁜 소문의 부인종이 불만 격발한다.
- 서로를 잘 이해 노력한다.
- 장차한다.
- 가능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

7. 세대갈등경험에 대한 반응(대응)

기성세대

- 합리적인 생각을 배운다.
- 법적 근거에 관심 갖고 열심히 공부한다.
- '과제는 알아주'식의 대화를 자주한다.
- 신세대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세습관이 없어 긍정적이다.
(예 : 알바하마에 활동, 업무수요, 효율성, 정보검색능력 등)
-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려 노력한다.
- 개인적으로 소중의 시간을 자주 하려하려고 한다.
- 교사 관에 서서 존중해주며 조율한다.
- 변별을 기록을 제공한다.
- 분위기를 파악하고 중간중간 대화로 협의한다.
- 지내며 가르친다.
- 매사에 본을 보려고 노력한다.
- 전거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
- 일관성이 없다.
- 상황을 이해시킨다.

- 기본에 치지 계속불허의 행동을 해서 불편하다.(합리적 시간제한)
- 가치관과 혼란을 느낀다.
- 비슷한 면에 있지만 어울리게 된다.
- 눈살을 찌푸리고 여의 정도 안한다.
- 보지않 해도 심박수가 증가하고 상상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 조업교사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늘 걱정한다.
- 당혹감과 당황함에 늘 당황하게 된다.
- 강요하고 지시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 여공학과와 안전사고만 나지 않으면 다행이니 교사에게 바랄 게 없다.
- 환경이 제 필요조건인가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 역시 당근과대박이 모두 필요하다.
- 직설적으로 경고한다.
- 교사 시절을 회상하며 마음을 가라앉힌다.
- 오류를 찾아낸다.
- 배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 교사의 의무를 강조한다.

8. 세대간 갈등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



- 명확한 자기인식
- 다름에 대한 이해와 수용 그리고 용기
-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그릇된 신념의 변화
- 신뢰를 바탕으로 한 권한위임
-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피드백
- 명확한 의사소통기술
- 세대간 상호보완적인 업무와 역할
- 신뢰, 고마움, 미안함을 담은 작은 보상
- 교직원문화개선을 위한 원장의 주도성



건강한 유아교육 기관



“갈등은 해결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김은성(2004). 조직구성원의 세대 갈등 해소를 위한 리더십 역할에 관한 연구
2. 김재원, 정바울(2018). 밀레니얼세대 초등교사의 직업동기, 직무만족, 그리고 경력 전망에 관한 탐색적 연구
3. 김혜린(2020). 90년대생 초등학교 교사의 세대 갈등 경험에 관한 연구
4. 박은혜(2016). 유아교사론. 청지사
5. 이승희(2012). 유치원 교사의 발달 단계에 따른 월장과의 갈등 수준과 갈등 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6. 임종택(2018). 90년대생이 온다. 웨일북
7. 원영희, 한정관(2019). 세대 갈등과 세대 통합에 대한 고찰
8. 조백(2016). 인성이 실력이다. 해냄출판사
9. 차성현, 이재택(2015). 학교운영방식에 대한 교장-교사간 인식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특성 탐색
10. 최수람, 신건호(2020). 유아교육기관의 조직 갈등이 교사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
11. 창업경영신문. HR로 조직 내 세대갈등 극복한다.
12. EBS. 박종근의 90년대생과 일하는 방법



기획분과



-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유아놀이 8
허 윤 희 (한미유치원 부원장)
- 유아교육기관 민원 사례와 대처방안의 실제 99
박 명 금 (동은아동청소년상담센터 부소장)

기획분과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유아놀이

허 윤 희¹⁾

I. 서론

디지털 영상시대에 부응하는 유아교육은 현재 유아교육의 본질을 충실하게 지키는 일인 것이다(목영해, 2010).

“놀이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들보다 훨씬 더 잘 놀고, 잘 말하고, 유쾌하고 건강하다. 그들은 이미 정해진 흥미영역을 선택하고, 선생님이 이끄는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참아야 하거나 새노래를 한 소절씩 따라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저 신나게 놀고, 자유롭게 말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갈등을 제법 잘 해결하는 능력자들이다. 그들이 놀이하는 공간은 특별한 곳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교실과 복도, 책상 아래와 바깥 놀이터이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그 자체로 ‘놀이하는 아이들’이고, 그것을 잘 바라보고 귀 기울일 줄 아는 어른들에 의해 보호받고 존중받고 있다(Davis, 2017). 놀이는 어린이에게 놀이하는 그 순간과 자체가 목적이며, 재미와 즐거움, 행복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써 놀이하는 주체인 어린이에 의해 일어나고 행해지며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유아에게 놀이는 삶 그 자체이자 삶이 곧 놀이가 된다(곽노의, 2003). 또한, 진정한 놀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만이 아니라 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힘으로 놀이를 탐색하고 구성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야한다. 임부연 등(2019)은 연구를 통해 놀이와 배움을 연속적 관계, 즉 놀이~배움의 분리불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를 통해 유아교육의 근원으로 놀이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환기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놀이~배움의 표기법은 놀이와 배움을 연속성의 개념으로 이해하도록 하였다.

유아교육은 ‘놀이를 통한 배움’을 교육과정의 이념으로 지지하여 왔고 놀이와 학습을 분리하지 않으며 통합적 관점에서 제시하여 왔으나, 종종 놀이와 학습이 발달을 위한 도구나 지식성취를 위한 방법적 차원으로 오해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해 보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임부연 외, 2019). 현재 유아들이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손쉽게 접하며 세계적으로도 유아들의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높아지게 되면서 멀티미디

1) 한미유치원 부원장

어를 활용하는 시간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사례에 소개되는 디지털매체인 웹캠은 유아들이 놀이상황에서 웹캠을 어떻게 이해하고, 웹캠을 통한 자신과 주변의 인물들과 상황 그리고, 환경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소개는 유아를 좀 더 이해하는데 중요하며 매체자체로써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유로운 유아 디지털 놀이에 대한 인식과 연구는 국내외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유아의 자유로운 디지털놀이에서 나타나는 교육적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해 현상학적 시각으로 관찰 및 분석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디지털놀이 경험을 통해 어린이들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디지털 사용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II. 본 론

1. 놀이와 유아교육과정

1) 놀이의 의미와 가치

「2019 개정 누리과정(안)」은 유아교육의 기본 정신인 ‘놀이’를 중심으로 유아들의 배움을 지원하는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재정립하고자 ‘자유놀이’를 강조하고, ‘놀이시간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의 문장을 명시하였다(김은영, 2019). 이를 통해 정부의 교육혁신 방향에서 강조하는 놀이와 씬,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 방향을 통일감 있게 추진하고자 하였다(김은영, 2019).

포스트모던 관점에서의 자유선택활동의 시간과 공간은 획일적이고 절대적인 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선형적인 시간표에서 탈피하는 것과 더불어 유아들과 함께 재구성해야 한다는 관점(김보라, 2013)에서 유치원은 유아가 놀이에 대한 흥미 있고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삶의 현장으로 확장 되어야 한다. 그동안 유치원 현장에서 관찰을 통해 비구조적 자유놀이 환경을 통해 유아들은 스스로의 욕구와 흥미에 따라 놀이시간 및 놀이공간을 자유롭게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운영하는 놀이주체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스스로 새로운 놀이규칙을 만들고 다시 깨는 순환적 반복을 통해 놀이에 몰입하고 변형하며 재창조하는 능력 또한 보여주었다(임부연 외, 2008).

놀이는 단순한 행동 범주라기보다는 다면적이며, 매우 복잡하다(지성애, 2019). 그러나 교육 및 심리 연구자들은 놀이의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다음처럼 서술한다.

- 놀이는 즐겁다.
- 놀이는 저절로 일어난다.
- 놀이는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된다.
- 놀이는 본질적으로 내적인 동기부여가 된다.
- 놀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 놀이는 상징적이다.

- 놀이는 규칙으로부터 자유롭다.
- 놀이는 놀이하는 사람에 의해 지배된다.
- 놀이는 의미가 있다.
- 놀이는 단편적이다(episodic).
- 놀이는 현실에 기반하여 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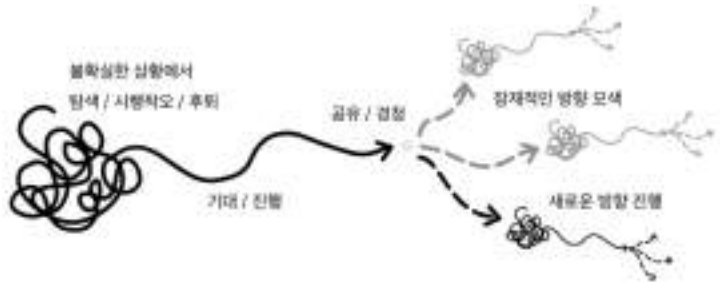
2) 놀이중심 교육과정(발현적 교육과정)

발현적 교육과정이란 계획 또는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학습자가 반응적이 되도록 요구하는 계획의 과정이다(조은지, 2011). 즉 이미 계획되어 잘 짜여진 학습과정에 따라 학습자가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학습자와 교사가 그 상황에 맞게 교육과정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조은지, 2011). 유아중심 학습의 이론은 교사가 일반적인 교육 및 활동의 목표를 설정은 하되, 프로젝트나 활동의 구체적인 교수안은 미리 수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사는 유아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미리 어떤 활동들이 일어날까 하는 가설을 세우고, 유아들의 관심과 욕구에 맞출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교육목표를 세우는 발현적 교육과정(emergent curriculum)을 포함하고 있다(유구종, 2007). 이러한 발현적 교육과정 속에서 21C가 요구하는 반응적이고 반응적인 유아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록화(documentation)는 필수적인 과정이다(오문자, 1998).

3) 놀이에서의 교사의 역할

임부연과 손연주(2019)에 의하면, 현재의 교육과정은 조금 더 ‘열림’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발현적인 놀이 맥락의 공간을 융통성 있게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는 교육과정을 살아있는 것으로 접근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배움의 장을 열어줄 뿐, 아이들이 직접 놀이하고 배우는 삶의 시간들을 격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와 아이들, 교육과정이 앞으로 함께 놀이하는 놀이 감수성, 놀이에 대한 고민, 민감성, 창작성, 즉흥성, 융통성과 같은 역량들을 함양함으로써 노마드적¹⁾이고 예측 불가능한 ‘놀이~배움’을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글을 통해 교사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 이것은 교사는 가르치는 자의 위치를 벗어나서 유아와 함께 배우는 자가 되라는 것을 의미한다.

1) 디지털 기기를 들고 다니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로, 제한된 가치와 삶의 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어 가는 유목민이다. 21세기는 새로운 유목민(遊牧民, Nomad)의 시대라고 한다. 현대인들은 휴대전화, 노트북, PDA 등과 같은 첨단 디지털 장비를 휴대한 채 자유롭게 유랑한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 이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은 이제 일상생활로 정착되었다. 캐나다 미디어학자 마셜 매클루언(Marshall McLuhan, 1911~1980)은 30여 년 전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면서 전자 제품을 이용하는 유목민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노마드’는 ‘유목민’이란 라틴어로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가 그의 저서 『차이와 반복(Difference and Repetition)』 (1968)에서 ‘노마디즘(nomad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서 유래하였다(네이버 지식백과] 노마드 [Nomad] (콘셉트커뮤니케이션, 2014. 4. 15., 이현영).



현장의 교사 역할은 ‘놀이~배움’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과 함께 그 속에서 포착되는 아이들의 ‘배움’을 전문적으로 교육과정과 연결하여 후 기술하고 관찰·기록하며 교육 분야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아이들의 실증적이고 가시적인 학습이 아니라 잠재된 역량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이의 발현과정에 귀 기울이는 것이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봄’에서 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Arnold, 2014), 그만큼 아이-존재와 놀이, 삶의 가치를 풍요롭게 읽어줄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임부연 외 2019).

유아 놀이의 재조명, 그리고 교육적 함의’에서 자유놀이와 더불어 유아의 놀이 주도성과 자발성이라는 유아의 놀이의 본질을 보존하는 교사의 역할 중재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하였다(지성애, 2019).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적합한 중재는 유아의 자유로운 놀이를 방해하기 보다는 유아 놀이를 확장 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으므로, 교사-유아 간 진정성 있는 교감을 바탕으로 한 교사의 놀이 중재는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계속 강조될 것으로 본다(지성애, 2019).

놀이 2017, 놀이로 유아교육 본질 찾기(경기도교육청, 2017)에서 유아 주도적 활동에서 적절한 교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도움주기-유아가 필요로 하는 자료나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준다.
- 함께 놀기-놀이자로 참여함으로써 놀이에 필요한 기술, 적절한 상호작용 방법 등 긍정적인 모델링을 제공한다.
- 이끌어가기-새로운 놀이 주제와 방향을 제안하거나 기존의 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다음 단계로의 방법을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 지지하기-유아가 놀이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놀이 장면을 말로 설명하도록 격려한다.
- 개방적 환경 조성하기-놀이가 확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유아가 자율적으로 놀이를 탐구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개방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놀이2018, 유아교육, 놀이로 풀다(경기도교육청, 2018)에서는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교사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다음과 같은 교사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다.

- 놀이중심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교사의 ‘자율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 놀이중심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은 유아의 놀이 확장을 위해 교사의 ‘융통성’이 발휘되어야 한다.
- 놀이중심교육과정은 유아를 존중하고 유아의 놀이성을 ‘수용’해야 한다.

- 놀이중심교육과정은 교사의 관찰을 통해 유아의 관심과 흥미가 ‘발현’되도록 한다.
- 놀이중심교육과정은 교사의 놀이 탐구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개발이 필요하다.

놀이2019, 놀이로 유아의 삶을 담다(경기도교육청, 2019)에서는 놀이 들여다보기(교사의 시선으로 보기, 유아의 시선으로 담기), 놀이 이해하기(놀이 흔적 남기기, 놀이 속 의미 찾기), 놀이 여정 담기(놀이를 함께 하는 교사, 놀이 자라는 유아)를 통해 놀이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다.

4)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놀이

구성주의 관점에서 놀이의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구성주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 흥미에 의해 선택한 놀이에 참여한 유아는 놀이 속에서 학습을 경험한다. 2) 유아의 자발적 흥미가 있는 의미 있는 맥락 속에서 지능과 지식을 구성해 간다. 3) 물리적 지식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실패는 자신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태도를 기르고, 성공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한다. 4) 진정한 놀이 경험은 유아로 하여금 흥미와 실험과 협동이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유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내면의 방식에 따라 능력을 발전시켜가도록 도와줄 수 있다.

5) 진정한 자유선택활동

교사는 진정한 자유선택활동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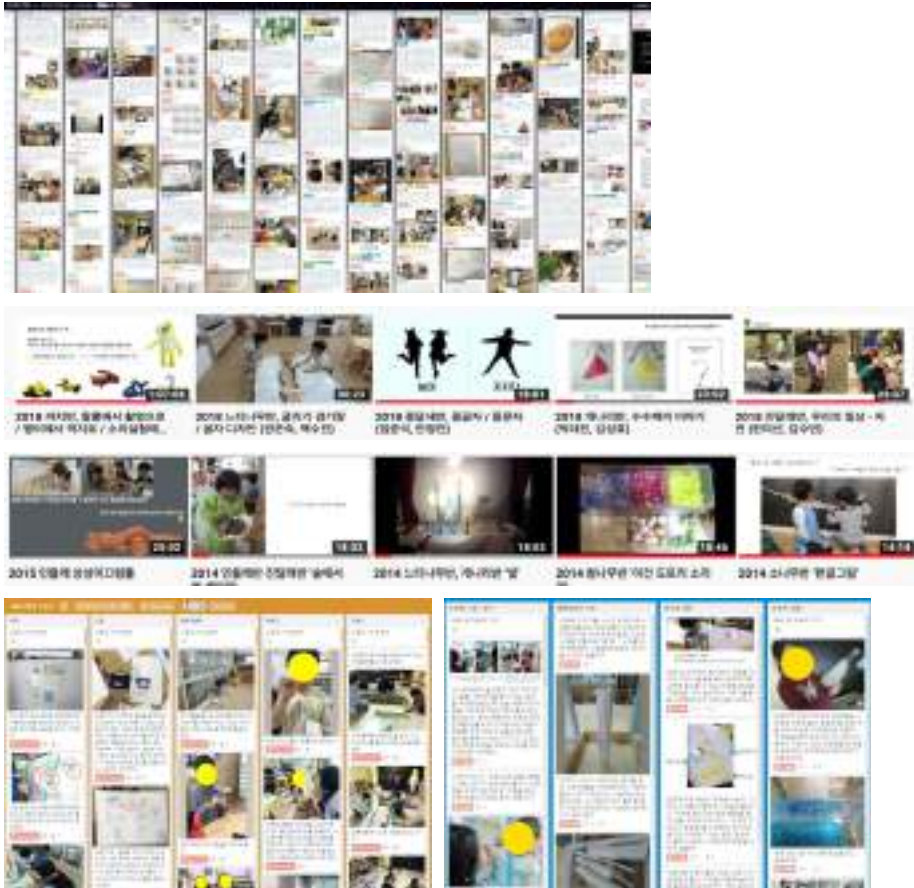
1) 진정한 자유선택활동이란 유아가 자신의 자유의지 또는 자발성과 능동적인선택에 의해 활동을 선택함을 의미한다. 2) 자유선택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가 진정으로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는 일이다. 3) 교사가 이미 선택해 놓은 교재와 교구 안에서 유아들이 다시 선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제한된 자유다. 4) 모든 교실의 유아들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실행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못하다. 5) 유아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기 보다는 교사에 의해 활동을 할당 받거나 적어도 교사가 이미 선택의 범위와 정도를 조정해 놓은 활동 안에서 제한된 선택을 하게 된다.

2. 놀이에서 유아의 흥미 확장하기의 실제

1) 기록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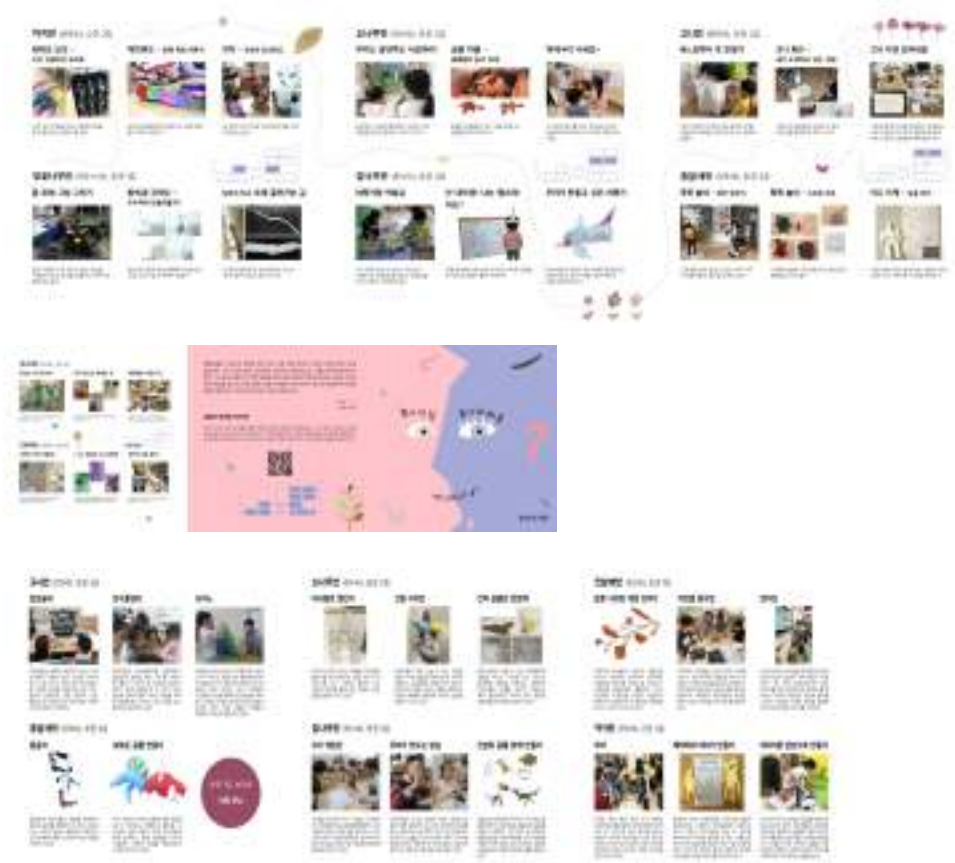
2) 교육흐름의 예시



3) 공유1- 가정과의 공유(반과 반 사이의 경계 허물기)

교실의 놀이 이야기를 가정과 공유하는 ‘공유 모임’과 교실의 놀이를 직접 참여하는 ‘참여 수업’을 매개로 교실의 놀이를 확장하며 H유치원 교육에 관한 큰 맥락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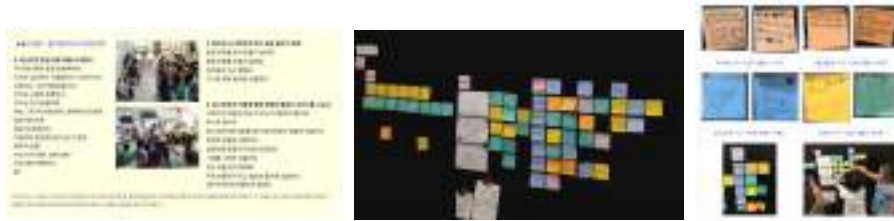




4) 공유2- 공간의 공유

인접한 교실은 공간을 공유하며 함께 놀이한다. 두 교실이 만나는 공간만 아니라 서로의 교실이 방문하며 다양한 관계 맺기를 한다.





5) 공유3- 놀이의 공유(어린이 기록작업)



6) 놀이의 실제 - (1) 영상놀이





7) 놀이의 실제 - (2) 웹캠(천장카메라)





III. 결론

1. 발견, 확장 그리고 융합

천장 카메라는 2018년 종달새반 놀이가 벽에 전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사도 어린이도 자연스럽게 시작된다. 천장웹캠은 사진 촬영 기능과 동영상 기능이 모두 있으며 처음에는 천장에 설치되어 있다가 유아들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면서 동작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위와 옆 두 곳에 설치된다. 웹캠과 관련된 놀이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에 만5세 어린이 이야기인 “몸으로 글자를 만들 수 있어요”로 시작된 웹캠은 2018년에는 몸 글자 대회를 시작으로 상형문자를 만드는 놀이까지 진행 된다. 2018년에 교사는 이것을 ‘몸 문자’라고 불렀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만5세 새 반(만5세 반 이름은 새와 관련되어 있음) 중 두 반에서 웹캠을 활용 한 놀이가 진행되지만 반마다 이야기는 다르다. 놀이의 실제에서 소개된 2019 천장 웹캠은 교사보다는 어린이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놀이다. 현재 H 유치원의 교실과 복도, 현관 등 다양한 공간에 디지털매체들이 놓여져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이다. 종달새반의 10월 활동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학기 천장 카메라는 어린이들이 함께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며 친구와 자신의 몸짓을 살펴 보고 이야기의 흐름에 맞게 배경과 몸짓을 구성해 보는 시도를 하기를 바랬고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교사의 지원에 몇 가지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긴 했으나 어린이들은 이야기를 함께 구성해 보는 것 보다는 다양한 효과에 더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효과를 사용하면

서 여러 나라(효과: 거울, 엑스레이, 흑백, 색연필, 열 카메라, 만화책...)에 여행을 간다는 이야기가 잠깐 나오기도 했지만 이야기 구성으로 흘러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린이들의 관심은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보여 지는 지에 대한 관심이 더 컸습니다. 어린이들의 관심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고민하며 놀이를 들여다보면서 ‘움직임에 음악을 함께 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움직임이 크기에 처음에 빠른 음악을 들으면서 놀이 해 보게 하였을 때 아이들은 정말 신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 상황이 조금 위험하기도 하기에 조금 느린 음악을 지원하자 “흥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이는 멈춰집니다. 흥이 없기에 멈춰진 놀이를 흥을 더 해서 놀이를 지속하게 할 것인지 고민하다 어린이들과 안전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하고 어린이들이 원하는 흥이 있는 음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활동안, 2019.10.)

종달새반 유아들은 음악에 맞춰 이야기가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 갔다. 디지털이라는 것이 웹캠을 활용한 놀이 속에서 어떠한 발견과 확장 그리고 융합이 이루어지는지를 중심으로 결론을 써가려한다. 디지털놀이라는 것이 혼자놀이, 거친 신체놀이 등과 같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놀이를 디지털이라는 매체가 어떻게 발견하고, 확장, 융합시켜 주느냐에 대한 것이다.

발견은 큰 의미에서는 놀이가 다양해지고 확장되었던 장면, 새로운 놀이의 창안과 놀이 창안에서의 디지털 매체의 역할인 촉매로서 시간, 공간, 규칙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제한적인 공간에서 다양하게 놀기, 놀이감의 발견, 기능의 발견, 새로운 주체의 발견 등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1) 놀이의 발견 2) 기능의 발견 3) 재미의 발견이다. 확장은 디지털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놀이보다 다양하게 확장되었던 장면, 결국 디지털 매체는 놀이를 확장, 기존의 놀이가 열리는 것도 있고 새로운 놀이로 전개, 공간과 시간의 확장, 보여 지는 관점의 확장을 이야기한다. 구체적으로는 1) 관점의 확장 2) 언어의 확장 3) 놀이의 확장 4) 교사의 지원을 통한 확장이다. 융합은 현재와 과거의 융합이며, 웹캠의 제한된 공간과 전체 공간의 융합이며, 글과 몸의 융합, 남기기와 지우기의 융합이 일어난다. 웹캠놀이에는 음악이라는 요소가 더해지면서 새로운 놀이가 창출되며, 진정한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현재와 과거의 융합 2) 음악과 상상의 융합 3) 음악과 영상 그리고 효과의 융합이다.

이번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 자료를 재구성하는 시간을 통해 위기와 어려움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생각하게 하였다. 스스로 언젠가부터 즐거움과 평온함은 행복으로 힘들과 어려움은 불행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아들의 놀이를 바라볼 때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에 원감인 내가 먼저 동요하고 불안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기는 아이들의 삶에 필연적인 것이며 심지어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유아들은 그것을 극복함으로써도 성장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의 존재 자체가 유아들의 본질과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능동성을 의미를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했다.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2017). 놀이2017, 놀이로 유아교육본질찾기.
- 경기도교육청(2018). 놀이2018, 유아교육, 놀이로 풀다.
- 경기도교육청(2019). 놀이2019, 놀이로 유아의 삶을 담다.
- 오문자, 박병희, 박선희 공저(2005). 기록작업을 통한 학습의 가시화. 파주: 양서원.
- 유구중(2007). 주제극놀이 활동 전개과정에서의 디지털 기록화를 통한 유아의 교육활동과 의사소통 변형. 열린유아교육연구, 12(2), 303-326.
- 임부연, 오정희, 최남정 (2008). 비구조적인 자유놀이시간에 유아들이 보여주는 ‘진짜 재미있는 놀이’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8(1), 185-209.
- 임부연, 손연주(2019). 유아교육과정의 맥락 속에서 살펴본 ‘놀이~배움’의 의미.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9(3), 265-287.
- Arnold, J. C. (2014). Their name is today: Reclaiming childhood in a Hostile World.
- Davis, B. (2017). *Listening to children: Being and becoming*. 변윤희 외 공역 (2014). 어린이에게 귀 기울이기: ‘이기’와 ‘되기’. 서울: 창지사.

기획분과

2021 춘계학술대회 기획분과1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유아교육기관 민원 사례와 대처방안의 실제

동은아동청소년상담센터
박명금

학부모 민원의 개념



출처: 박명금(2019) 국공립어린이집운영이 경험한 학부모민원의 사례 및 인식

학부모 민원의 유형 및 내용

영유아 건강 안전	교육의 내용과 질	운영관리
- 안전사고 및 상해 - 아동학대 의심 - 건강/정결/위생 - 급식	- 교사의 인성과 자질 - 교육 프로그램 - 행사 및 현장학습 - 일과운영	- 반편성 - 교사 대 아동비율 - 교직원 관리 - 운영시간 - 기타
사회적 이슈와 불안이 학부모 민원으로 표출	전인적 발달에 대한 기대, 양육의 책임	운영 전반에 관한 주체적인 접근

출처: 박영금(2019) 국공립어린이집통장이 결함한 학부모민원의 사례 및 인식

학부모 민원의 양상



부모와 교사의 관계

“2인 3각 달리기”



“관계유지의 목표는 부모가 아니라 “유아”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 아니라



부모가 되어 돌아온 Y세대

- 외환위기 후의 사회변화
- 자녀양육에 대한 불안
- 인정할 수 없는 권위에 대한 불신
- 학교와 가정의 역할이 합의되지 않은 사회의 불만



과도한 요구, 민원 제기

출처: 박미향 외(2018) *법률 학부모 대응 레시피*에서 부분 발췌

부모를 이해한다는 것

- 부모 역할의 어려움, 스트레스 이해하기
-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 인정하기
- 부모의 임파워링(Impoering) 지원하기

당신의 양육행동은 중요하다!!

당신은 충분히 잘 하고 있다!!

- 부모의 부정, 불인정 태도를 비난하지 않고 기다려주기

학부모 민원 이해하기

- 학부모 민원은 사회적 현상이다
- 학부모 민원은 교사의 능력을 재는 잣대가 아니다
- 단서의 포착과 역량을 키우는 방향을 모색하자
-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선을 긋고 자신을 돌보자
- 아이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교육적 지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교사 자신을 돌보기

1) 스트레스 관리하기

- Positive : 괜찮아, 해결할 수 있는 일이야
- Help me :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 Write : 구체적, 단계적으로 실천할 일 적기
- Choice :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
- Wait : 능력 밖의 일도 있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

2) 분노 조절하기

- 분노는 원초적이고 강렬한 감정
- 힘의 권력관계가 작용
- 심리적 역동 살피기, 힘겨루기, 나쁜 감정의 출발, 에너지의 고갈 등
- 멈춘다, 피한다, 이완시킨다, 위로한다, 선택한다.

3) 소진과 우울감 극복하기

출처 : 강정원, 윤기복, 안지영(2018) 영유아교사를 위한 마음상담.

학부모 민원 발생원인에 대한 입장

학부모

- 초기 단계에서의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의 문제
- 형식적인 처리에 대한 불만
- 충분한 설명 부족과
- 회피성 답변
- 나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
-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함
- 지속적으로 제기해도 변화 없음

소통의 문제

교사 또는 기관

- 학부모의 개인적 성격 특성이 특정상황에 드러나는 것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자기애성, 히스테리성, 편집성 ...)
- 자신의 잘못을 책임 전가하는 것
-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심리
- 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
- 자기 자녀만을 위하는 이기심

학부모 개인의 특성

부모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라

◦ 적절히 질문하라

◦ 1,2,3 화법을 사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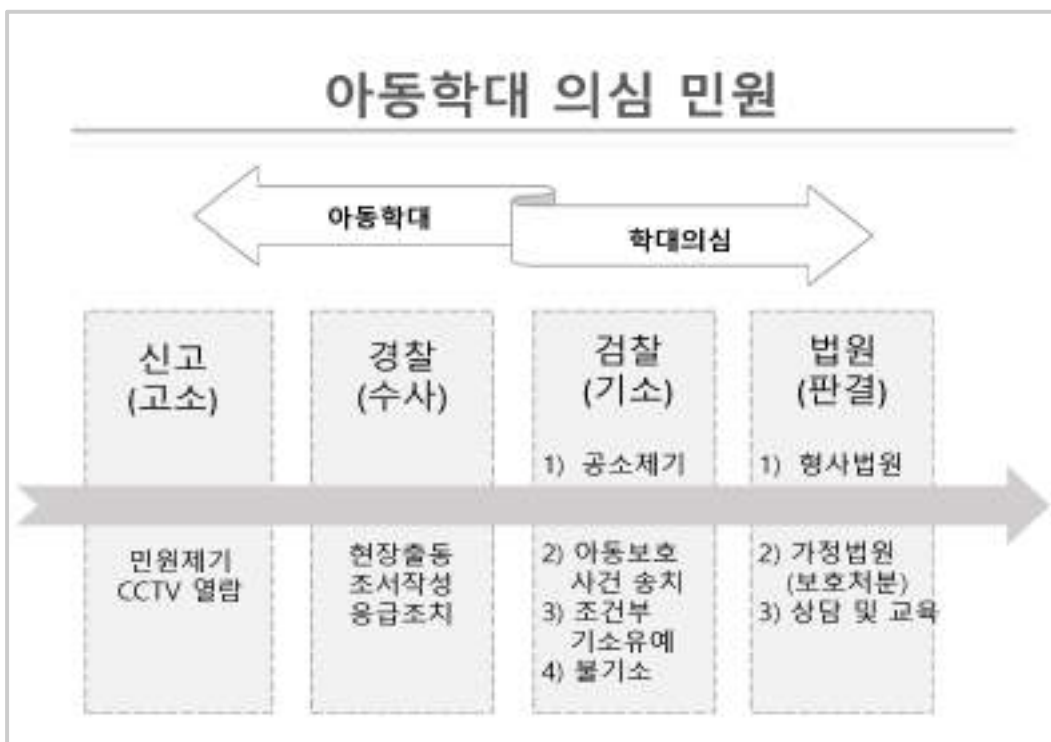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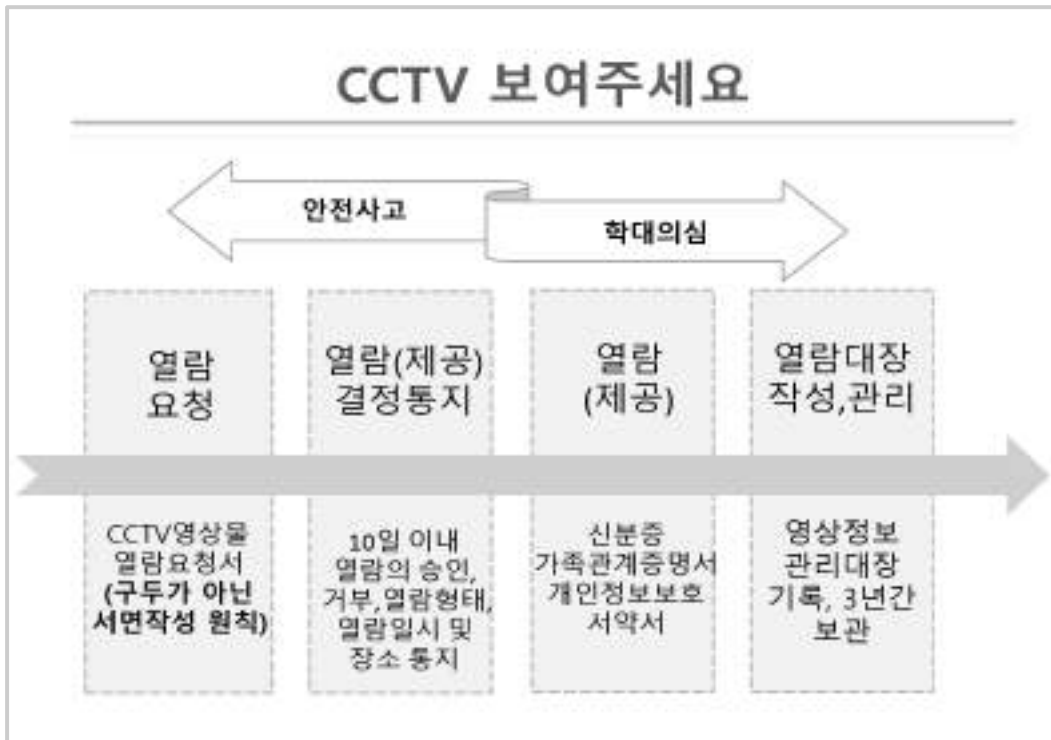
출처: 엄지숙, 이영순, 조영숙, 김현주 (2018) 유아교사론. 경기 : 정민사

안전사고 및 상해

- 초기 응급처치가 적절하였는가?
-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했는가?
- 지정병원을 이용하였는가?
- 주의해야 할 사항 : 사고경위, 상해정도를 설명할 때,
아이와 직접 통화를 원할 때
- 원장님과 동료교사가 함께 사고를 인지하도록 알리는 것이 중요

또래 갈등의 중재

- 모두 우리의 아이들이다.
- 유아와의 관계를 과장하지 않는 일관된 교사의 태도가 필요
- 평가와 판단을 배제한 중립적인 태도
- 단정적인 평가보다는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자료를 제시



학부모 특별민원

- 억지 주장, 부당한 요구
- 무례한 언행(폭언, 폭행)
- 인터넷, SNS에 올리겠다는 엄포
- 협박, 위협, 소란, 난동
- 물리적인 업무 방해
- 상급기관에 반복 제기
- 거짓말 (허위신고)
- 지나친 사과, 보상금 요구
- 기타

학부모 특별민원의 대응

- 평정심을 가지고 청중하게 말하라

꼭 지켜주세요

- 1) 절대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 2) 경청 및 공감표현 - 중단요청 - 녹음 - 상담불가 안내 후 퇴실 요청
- 3) 빠른 종료 - 물리적 거리 확보하기

‘고르디우스’의 매듭

최종책임과 해결의 의지 : 관리자의 포용과 결단

심리적 · 사회적 지지

교사의 심리적 회복 지원하기

스스로의 휴식과 치유의 시간이 필요
주변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미안함
자신이 침해의 대상이 된 것을 용납하기 어려움

기관 차원의 사회적 지지

대다수의 여성으로 구성된 깊은 유대관계 : 애정 어린 멘토링
너 어떡하니? : 나 어떡하니?
영유아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집중 논의, 교실에서의 개입방안 협의

기관의 조직문화 개선

기관 차원의 학부모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 갈등요인 분석 및 시스템 점검
- 유아교육기관 자체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 조직하기
- 전문가와의 협력관계 구축하기

조직 갈등 관리

- 원장의 리더십
- 교사-교사의 신뢰와 소통의 문제

딱딱한 식빵을 촉촉하게 만드는 법

새로운 시작 결심하기

- 교사는 권위를 가진 존재
- 자기 객관화 : 반성적 사고
- 지도와 안내를 긍정적으로

누군가의 인정보다 중요한 것은 직업적인 성실함이다.

참고 문헌

- 김정원, 홍기물, 안지영(2018). 영유아교사를 위한 아동상담. 경기: 정민사
- 박명금(2019)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경험한 학부모 민원의 사례 및 인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미함, 이정희, 김민정, 한영진 공저(2018). 별별 학부모 대응 레시피. 서울: 학지사
- 엄지숙, 이명순, 조형숙, 김현주 (2016) 유아교사론. 경기: 정민사



연구윤리



- ‘유아’ 대상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113
안 지 영 (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유아’ 대상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¹⁾

안 지 영²⁾

I.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의 성찰

1. 윤리적 딜레마의 시작

연구라는 본질 자체가 타인의 생각과 삶을 알아내고자 하는 행위이다. 연구자는 타인의 일상 속에 들어가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생각을 묻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 적으며, 그들이 행동하는 바를 분석한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감정까지도 읽어내려고 노력하는 등, 사람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연구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연구의 행위적 특성들로 인해 연구자들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행위에 관하여 윤리적 문제에 심각하게 맞부딪히거나, 혹은 겉으로는 문제시 되지 않을 정도의 정당한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연구자 스스로 내적인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연구적 특성 때문에 연구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비윤리적인 행위’(O’reilly, 2012)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윤리(Ethics)’는 얼마든지 연구자의 편의대로 해석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Morrow & Richards, 1996). 이러한 이유로, 윤리적 문제로 인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더욱 사려 깊게 연구대상에게 접근해야 하며,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연구의 해석과 이해에 오류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탈실증주의적 연구 패러다임은 연구의 결과만이 아니라 연구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러한 연구의 결과를 얻기 위해 지나온 맥락과 연구대상자와의 관계가 어떠하였는가를 중요시하고 있다.

양적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로,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로 지칭되는 연구의 대상이 유아 혹은 그들의 주변 환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연구의 윤리성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더욱 깊어지게 한다. 자신의 연구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자신의 연구로 인해 연구에 참여하는 유아나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미쳐질 것인지, 자신의 텍스트들이 그들에 대한 진실성 있는 접근을 하고 있는지, 혹은 예측하지 못하는 다른 연관성들이 파생되지 않는 것인지 등에 대한 의문들이 생길 것이며, 이러한 질문들은 손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

1) 본 학회의 강연원고는 발표자의 『‘유아’ 대상 질적연구의 연구윤리와 진정성』(2015) 내용을 수정·축약 및 재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본디 질적연구를 중심으로 쓰였으나, 연구방법의 논리를 넘어서서 ‘유아’라는 대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하는 모든 연구에서 숙고해야 하는 ‘대상에 대한 윤리성’과 ‘쓰기 행위의 진정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가 아니다. 연구 속에 담겨있는 연구윤리는 매우 복잡하여 단 한가지의 명쾌한 해결방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Mason(2002)의 말대로, 연구자가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제기하고 가능한 가장 최선의 답을 얻어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윤리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일 것이다. 또한, Bourgois(1990)의 언급대로 연구의 도덕적·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어떤 확실한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거만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연구자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면과 이론적인 측면 모두에서 윤리적 문제를 생각하고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 즉 무엇을 위한 연구인가, 누구를 위한 연구인가라는 질문 자체만으로도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에 대하여 학계에서 통용되고 합의된 윤리의 문제를 넘어서, 또 다른 마음의 딜레마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연구자는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최선의 것이라고 판단되는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그러한 선택과 결정에 대하여 최대한 책임을 지려고 한다. 연구자 자신의 연구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고백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전은희, 2012). 김미덕(2013)은 ‘성찰’이라는 말 자체가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자기 비판적인 행동이며, 연구자 자신이 이러한 성찰을 통해 세계와 현상을 숙고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였다. 즉, 연구의 윤리적 문제점들을 바로 인식하고, 연구자 자신의 정체성과 한계를 밝힘으로써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간의 평등한 관계를 고민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2. ‘유아’ 대상 연구의 윤리지침에 대한 성찰

연구를 한다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이어서 연구자는 자신이 의도한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며, 연구의 대상이 되는 존재는 연구의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화가 되기 쉽다. 이러한 연구자의 의도성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 대한 윤리적 고려에 대하여 간과하게 할 위험을 존재하게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연구대상(혹은 정보제공자)를 위한 복지와 안녕에 대한 지적과 연구자들의 자기성찰적 반성을 기초로 하여 여러 학회 혹은 협회는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윤리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인류학회의 윤리규정(Code of Ethics of the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2004)은 연구의 윤리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우선,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 연구자는 연구대상에게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자의 설명을 바탕으로 연구대상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동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한 연구는 외부인에게 노출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물론 연구의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에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연구자와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 간의 상호호혜성을 고려하여 연구에 참여한 이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의 보상은 상식적인 의미로써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Spradley(1980)도 연구의 윤리성과 관련하여, 연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보제공자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연구대상자(정보제공자)의 신체적·사회적·심리적 복리를 보호해주고,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해주어야 하며, 연구대상자의 권리, 이해관계, 감수성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대상들과 관련된 모든 자료수집과 최종 보고서에는 그들이 익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름과 장소 등 바꾸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연구대상(정보제공자)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되며, 연구자가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정보제공자를 이용하는 것은 곧 착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가 완성되면 정보제공자가 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인류학회와 Spradley의 연구윤리에 대한 지침은 매우 중요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이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고려사항이 언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영국의 의학연구에 관한 윤리적 지침 중 유아와 연관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윤리지침(Ethical Conduct of Med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2000)이 발표되었고 구체적인 지침은 다음의 여섯 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어린이³⁾가 포함된 연구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며 윤리적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어린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만의 흥미의 세계가 있는 독특한 존재이다. 셋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어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답을 얻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넷째, 연구의 과정은 도덕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다섯째, 모든 연구계획서는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섯째, 어린이, 부모, 혹은 보호자로부터 법적으로 타당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윤리적 원칙은 연구에 있어서 유아(혹은 18세 이하 청소년까지)라는 연구의 대상이 어른과는 달리 더욱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영역임을 인식한 발전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의학적 연구가 미성년과 관련된 연구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한 윤리적 원리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유아 관련 연구에 대한 윤리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이러한 유아대상 연구에 대한 윤리성에 대한 고려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British Sociological Association(BSA)에서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가 나이, 사회적 지위, 무력한 존재인 경우와 같은 요소에 의해서 특별히 취약한(vulnerable) 경우에는 특별한 보살핌(special care)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특별한 보살핌’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아’의 경우에는 위에서 명시하고 있는 세 가지의 불리한 조건, 즉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지위가 없거나 낮으며’, ‘무력한 존재’라는 항목에 모두 해당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종의 지침들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잠재된 윤리적 딜레마를 풀어나가는데 기준

3) Ethical Conduct of Med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2000)에서는 ‘children’을 18세 미만의 모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children’을 ‘유아’로 명칭을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이기에 ‘어린이’라는 명칭으로 대신한다.

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며, 연구의 시작과 끝에서 자신의 연구를 되돌아보는데 유용한 잣대가 되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orrow와 Richards(1996)가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윤리적 지침은 연구자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들, 즉 유아들의 인종, 종족, 성별, 위계 사이의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모두 다루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지침도 연구자 개인이 연구현장에서 시시각각 당면하게 되는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법이 되지는 못한다. 연구현장에서의 연구자는 고독한 존재이며, 결국 자신의 앞에 놓인 윤리적 선택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3. 성인 연구자와 어린 연구대상과의 관계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층위의 권력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이러한 권력 메커니즘은 연구대상과의 접촉, 그들과의 관계 맺음, 인터뷰, 글쓰기의 과정과 그 내용, 그리고 출판과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작용한다(Wolf, 1996; 김미덕, 2013 재인용). 이러한 권력의 중층성은 연구자와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 간의 권력관계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고, 동시에 그러한 권력관계는 연구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내내 공존하게 된다. 연구자와 연구대상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불평등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그 대상이 소수자일 때 더욱 주의깊게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 대상자가 사회적 약자이거나 특수 상황에 놓인 여성이거나, 혹은 연령이 어린 유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연구자와 연구대상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의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에 대하여 연구대상에게 자발적 동의를 얻는 것으로부터 연구를 시작한다. 그러나 연구동의서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은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어낸 동의가 연구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동의인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강원·임소연·하대청(2013)은 연구 동의서에 서명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연구가 비윤리적인 것인가, 아니면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하면 다 윤리적인 것인가, 혹은 연구에 대하여 모호하게 설명하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 비윤리적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연구동의서가 갖고 있는 이중적 양면성에 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자들이 연구에 동의하기 전까지 연구자는 그들의 참여 여부에 촉각을 세우며 민감할 것이며, 연구에 참여한 자들이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에는 오히려 연구자로서의 윤리적 자세에 대한 측면보다는 연구자와 연구대상 사이의 일종의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들이 서명한 이 종이가 있으니 그들은 연구에 참여해 줄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는, 그런 암묵적인 책임감을 그들에게도 떠넘긴 것 같은 상황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서덕희(2012)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연구자 자신은 청정한 상태에서의 자율적 계약 맺기라고 생각하였으나, 자신의 전문성이 일종의 압력이 되고 있다고 성찰하였다. 즉, 연구에 대하여 속속들이 알지도, 알 수도 없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받는 형식적인 절차로 윤리

를 대신하겠다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절차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를 위하여 거 짓을 말하지 않고, 최대한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연구대상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대상은 내용을 안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연구에 동의하면 연구윤리가 지켜진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동의를 순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이전은 연구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권력을 쥐고 있는 상태였다면, 연구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연구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의 객체로서 소비'되기 시작하는 권력 관계가 발생한다. 특히 그 대상이 유아일 경우에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사이의 위계적 관계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연구자와 연구에 참여한 대상과의 위계관계이다. 연구자가 연구의 현장에서 연구대상과 사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상호호혜성,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Mason, 2002).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은 어린 연구대상과의 관계 이상의 또 다른 관계성이 중첩되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위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Mayall(1994)은 연구에 있어서 어른들을 인터뷰하듯 아이들의 이야기만으로 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유아는 사실이 아닌 것과 사실인 것을 구별하지 못 할 수 있으며, 유아들은 인터뷰하는 이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며, 아이들이 하는 대화나 이야기들은 자신들이 어른들에게 들어왔던 바를 말하는 것이 많다는 점이다.

연구자와 어린 참여자 간의 위계적 관계로부터 오는 불평등한 관계는, 이강원·임소연·하대청(2013)이 지적하였듯이, 그들 간의 대화를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생산해내는 텍스트의 연장일 뿐이며, 그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조차 연구되는 사람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연구 대상자인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능력을 존중하기 보다는, 연구자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은밀하고, 침략적이고, 착취하며, 학대하는 연구'(James, 2007)가 되는 것이다. 즉 연구자의 특권, 그리고 그 이해관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연구자는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인과 유아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는 지속적으로 연구의 전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타인과의 특정한 간주관적 관계'(Toren, 2005)는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의미 없음으로 무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당하는 이로서의 유아들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고, 주변화 되고, 제외되게 된다. 그리고 그에 반해 전문가로 지칭되는 성인 연구자는 힘이 있고, 수준 높은 지위를 취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런 위계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다.

Clifford와 Marcus(2000)는 연구자는 객관적 관찰자가 아니며, 연구자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가 연구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유아대상 연구의 위계 관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학자들은 연구 대상으로서 유아를 보는 관점부터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Morrow & Richards, 1996; Corsaro, 1997; Alderson, 2000; Christensen & Prout, 2002; James, 2007). 그리고 이러한 잠재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에 대한 진실성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 아이들을 보는 관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연구과정에서 진정한 참여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고려하

지 않는다면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다.

II. 연구대상으로서 유아를 보는 관점

1. ‘행위자’로서의 유아

연구자와 연구대상으로서의 유아 사이에 만들어지는 권력관계는 유아의 ‘목소리’를 왜곡시킬 수 있고, 거기서 파생되는 권력에 대한 인식은, James(2007)의 언급대로, 연구자와 연구대상 사이의 관계 속에서 ‘연구의 과정이 더욱 정치화되도록’ 만든다.

윤리(Ethics)라는 것은 도덕적 원칙과 행동의 규칙을 세우는 것이다(Morrow & Richards, 1996).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자가 윤리적 잣대를 갖는 것은 자신의 연구가 정치화되고 자신의 연구대상이 나타내는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더욱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있어서 연구자는 유아가 자신의 연구로 인해 잠재적 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구의 도덕성을 지키는 것은 ‘연구대상이 되는 이가 나쁜 영향을 받거나 위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도덕적 원칙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이 존중받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증진하는 것’(Sieber, 1993)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도덕적 원칙과 행동의 규칙으로 삼기 위해서는, 연구자로서 유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경험을 존중하면서 연구에 임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점검하고, 자신의 연구가 어떠한 원칙과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Alderson(2000)은 연구자 자신이 유아에 대한 어떠한 관점을 취하고 있는가가 연구의 도덕적 방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유아’를 어떠한 존재로 보고 있는가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방법, 자료수집, 연구의 해석과 이해에 있어서 큰 틀을 달리하도록 만든다. 즉, ‘관점’은 순간순간 맞이하게 되는 연구자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준거가 되는 것이다. 유아기의 다양한 본성을 인식하는 것은 아이들이 처한 현실적인 삶에 대하여 드러내도록 해주며, 여성학에서 여성의 특성을 이해하고 과거의 남성주의의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했던 노력과 마찬가지로 유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Bluebond-Langner와 Korbin(2007)은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여성연구가 행동 문화, 사회의 이론적 부분에서 여성이 중심에 놓이도록 하였듯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이들의 다양한 경험과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문화와 사회의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자발적 행위자(agency)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임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성인 연구자의 도덕적 책무가 중요한 것이다.

유아를 ‘사회적 행위자(social actor)’(Christensen & Prout, 2002)로 보는 관점은 유아가 자신들만의 경험의 세계와 이해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아가 그들이 사

는 사회문화적 환경 안에서 자발적으로 행위를 하고, 역할을 감당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유아는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경험을 개념화할 수 있는 존재이며, 단순히 가족의 일부로써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이다(Corsaro, 1997). 이러한 관점에서는 연구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특수성이 고려된다면 유아와 성인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기본적 원칙들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아는 자신을 둘러싼 가족이나 학교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행위자(actor)로 고려되므로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범위의 목소리를 내는 존재로서 이해되는 것이다.

2. '사회적 유아'에 대한 관점

Morrow와 Richards(1996)는 연구자가 유아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적용되는 연구방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설명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네 가지의 연구대상으로서의 유아를 보는 관점 중 첫 번째는 '발달하는 유아(developing child)'로 보는 관점이다. 이는 아이들의 능력은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낮은 수준이며, 그들의 말은 대부분 유도되어 이끌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낮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가진 연구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관찰 등의 연구방법을 취하게 된다. 두 번째는 '부족 유아(tribal child)'로 아이들을 마치 인류학자들이 탐험하여 발견한 새로운 종족이듯, 그들 나름의 규칙이 존재하지만, 그들의 세계는 전혀 알려진 바 없는 모르는 상태의 것이며, 그들의 존재성은 성인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타인(other)로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유아대상 연구는 참여관찰⁴⁾의 연구방법이 적합하지만, 성인 연구자가 그들의 세계에 온전하게 참여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는 '성인 유아(adult child)'로 보는 관점으로, 아이들은 하나의 능력 있는 존재로서 인정되고 공유되지만, 아이들은 성인과 다를 바 없는 축소판 성인이라는 생각에서 전적으로 성인중심의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갖고 연구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방법이 성인에게 적용하는 연구방법과 동일한, 즉 질적연구에서부터 설문지, 조사연구와 같은 양적연구까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은 유아를 '사회적 유아(social child)'로서 보는 관점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자들이 당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와 연구방법적 측면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앞의 '성인 유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능력 있는 존재이며 연구참여자로 공유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유아를 성인과 동일한 존재라고 보지 않고, 그들만의 능력, 다른 개념체계를 가진 존재이며 유아기의 세계는 획일적이지 않고 수많은 다

4) '참여관찰'은 '관찰'과는 다른 것으로, 인류학자인 말리노브스키(Malinowski)에 의해 하나의 연구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관찰실의 유리벽 넘어 멀리 떨어진 연구대상으로서 대상자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자의 관점을 가지고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 들어가 연구자가 '참여'함으로써 연구대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정보제공자들을 연구대상이 아니라 인간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후 참여관찰은 현장연구를 하는 문화기술적 연구, 질적연구의 필수적인 연구방법으로 자리하였다.

양성을 담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아이들은 각기 모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의사소통체계를 갖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으로 유아대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연구방법, 즉 놀이, 그림 그리기, 이야기 나누기, 색칠하기 등 ‘유아’라는 그들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가 활용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연구자의 관점이 어떠한가는 단순히 유아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연구 맥락 자체가 크게 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만약 유아를 보는 관점이 그저 자신의 연구의 대상자, 연구의 ‘객체’로서 본다면 그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이해되기 보다는 유아의 의존성, 그들의 유약함과 무능함을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은 유아라는 존재가 어른들의 관점에서만 평가가 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판단하는 것은 부모나 선생님처럼 유아 주변의 삶에 관여하고 있는 성인들의 설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유아라는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온전한 존재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유아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는 진실성이 의심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유아의 ‘목소리’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연구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인간’(Spradley, 1980)이라고 보고 있는가? 연구에 참여한 아이들은 실상 연구의 ‘객체’가 아니었는가? 연구참여자로서 지칭하고 있는 연구대상인 ‘유아’들을 진정한 의미의 참여자로 보았는가? 다시 이러한 질문들로 돌아가야 한다. 연구의 시작점으로부터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인 유아들과 동등한 도덕적인 관계맺음으로 출발하였는지, 그들의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와 행위에 대하여 진정성 있게 귀담아 듣고 보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들을 하나의 ‘주관성을 가진 존재’(Woodhead & Faulkner, 2000)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서 윤리적 고려는 단순히 법적으로 타당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 혹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연구윤리 지침들을 잘 따르고 있는지의 문제만이 아님을 되새겨 본다. 연구의 윤리는 자신의 연구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 어린 연구의 대상들이 진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연구도구로서의 연구자 자신이 준비되어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진정성은 아이들의 감정과 그들의 경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하는가 하는 연구자의 의도와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유아와의 연구에서 윤리적 지침은 연구자와 유아와의 실제적 상호작용 과정에서만 의미를 가진다(Davis, 1998). 즉, ‘연구하는 나’와 ‘연구되어지는 그들’ 사이에서의 만들어지는 관계와 의사소통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 어떠한 윤리적 기준을 따를 것인지는 전적으로 연구자의 몫이다.

III. ‘유아’ 대상 연구의 진정성

1. 발견한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전통적 과학의 영역에서는 유아를 발달하는 존재로서 ‘유아’라는 하나의 커다란 집단은 비슷한 유형의 발달과정과 사회적 능력을 지니는 보편적 존재로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물론 발달적·연령적 특성을 바탕으로 유아들의 보편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실제로 수많은 기여를 남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문화인류학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 유아의 특성들이 전지구적인 맥락에서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밝혀왔다. 인류학의 거장인 Mead의 사모아 인에 대한 연구나 Malinowski의 멜라네시아 인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온 수많은 문화인류학적 연구는 아이들이 처한 문화적 맥락에 따라 우리가 흔히 예측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성장 발달의 형태로 성숙해가고, 사고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만은 아님을 드러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서구사회에서 이루어진 이론과 연구로부터 발현된 ‘정상적(normal)’ 유아 발달의 개념과 문화기술적 연구들이 보여준 수많은 증거 사이의 대결로써 여겼다(Bluebond-Langner & Korbin, 2007). 즉, 보편적 유아기에 대한 일반화된 정의를 거부하게 하였다. 유아가 성장하여 하나의 사회 안에서 문화화되고 사회적 존재가 되어가는 모습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준조(2004)는 사람에 대한 연구가 ‘양’보다 ‘질’이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가족과 살고 있고,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술주정뱅이인지 근면한 사람인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질’을 자세하게 알아야 가능한 것이고, 이처럼 각각의 개성이 있는 사람들을 똑같이 몇 사람이라고 ‘양’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부조리라고 하였다. 이처럼 한국에서 자라온 아이와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성장한 유아의 사회화의 과정과 문화는 분명 다르다. 또한, 같은 한국이라고 할지라도 서울과 제주도의 문화적 환경은 다를 것이며, 같은 서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동네와 옆 동네의 문화는 분명 같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지리적·위치적 차이로 인해 빚어지는 차이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곳이든지 집단과 집단의 차이, 조직과 조직의 차이, 교실과 교실의 차이, 가족과 가족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는 각각이 너무도 다양한 그들 나름의 문화와 독특한 맥락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아의 문화에 대한 의미와 관련하여 Bluebond-Langner와 Korbin(2007)이 인용한 Toren(2006)의 설명은 매우 적합한 표현이라 여겨진다. ‘우리 성인들이 그러하듯이, 아이들의 각각은 이미 만들어진 세계에서 태어났다. 이 세계는 이미 각각의 사물에 의미가 부여되고 있고, 그들은 시간과 함께 이 의미들을 새로이 만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은 유아들의 다양성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Walsh(1998)가 말한 것처럼, 연구자들은 유아들이 피아제가 묘사한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러한 발견을 알리는 것에는 위험이 따른다. 연구자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 예를 발견할 때, 그것을 꾸며내고자 한다. 연구자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연구자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탐구의 대상을 접할 때, 연구자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전제된 판단을 내려놓고,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낯설게 보고, 자신이 경험하고 본 것을 자신의 지식과 개념 내에서 가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연구의 윤리와 진정성의 기본은 ‘당신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을 꾸며내지 말라(Becker, 1996)’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연구란 세상이 보기와는 다르다는 가정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세계가 보이는 대로라면 연구도 연구자도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Walsh, 1998). 그러므로 우리는 유아들의 삶과 경험의 다양성에 대하여 연구대상인 유아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구 대상이 되는 유아가 다른 유아와 다르게 구별된다는 다양성은 유아들이 갖고 있는 보편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아이들이 생산해내는 문화적 맥락에 대하여 신중하게 인식하여야 하며(James, 2007), 연구의 텍스트 안에서는 각각의 유아들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특수성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들 고유의 문화와 맥락을 무시하는 것은 연구의 진정성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유아들을 연구대상자로, 연구참여자,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한다는 윤리성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일상의 행위 안에서의 풍성한 이면들, 표면 아래에 숨겨진 복잡하게 얽힌 의미망을 이끌어낼 수 있을 때, 맥락 안에서의 유아들의 행위와 반응에 대하여 진정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그 다음의 ‘유아’ 대상 연구를 위하여

연구의 현장에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연구 대상자를 어떻게 섭외하였으며, 어떻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는지, 그리고 익명성과 비밀에 붙이는 것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연구윤리의 가장 중요한 코드이며, 이러한 중요사항들을 항상 고려함으로써 연구과정 중에 닥치게 되는 다른 실제적 문제들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중심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 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연구의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 연령이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James(2007)의 표현대로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small voice)를 탐구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아주 큰 이슈(large issue)가 될 것이다. 이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의 윤리와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을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 연구자는 유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점의 패러다임을 세울 필요가 있다. 연구자로서 가져야 하는 유아에 대한 태도는 그들을 연구의 ‘객체’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유아는 유능성을 지닌 존재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유능성’은 성인의 세계에서 의미하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며, 그들은 그들 나름의 세계관과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세계는 모두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그저 ‘일반화된 유아기’를 지나가고 있는 동일한 집단으로 의미화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성별, 문화, 집단은 모두 다른 색깔과 목소리

를 내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들을 구별하여 들을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 각각의 아이들의 구별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연구의 진정성은 자신이 수집한 자료가 어떻게 창출되었는가에서 시작이 된다. 드러내고자 하는 진실이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타당한 방법으로 접근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연구해야 하는 대상이 유아인 경우에는 그들로부터 진실한 사실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는 것이다.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능력과 의사소통의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는 유아에게 맞는 매체를 활용하고, 이야기, 그림그리기 등의 그들의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할 때만이 연구는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

셋째, 연구를 위한 글쓰기의 진정성은 유아들의 문화와 각기 다른 사회적 맥락이 재현될 때 가능한 것이다. 각각의 유아들의 삶은 다양한 그들의 이야기와 문화와 맥락을 담고 있다. 우리가 유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피적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다양한 경험의 세계를 다 담아낼 수 없게 된다.

‘진짜’를 왜곡하는 것만큼이나 비윤리적인 것은 없는 것이며, ‘진짜’의 삶은 모두 다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연구자가 그들의 삶을 속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재현해내기 위해서는 유아들의 일상의 삶에서 보게 되는 관계성을 이해하고, 그들을 둘러싼 문화와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내는 작은 몸짓과 목소리를 진정으로 담아낼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미덕 (2013). 인류학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 성찰적 연구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6(1), 3-41.
- 서덕희 (2012). 사회적 소수자 연구윤리로서의 ‘초월’: 국제경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을 직면해야 하는 한 연구자의 성찰일지. *교육인류학연구*, 15(1), 93-120.
- 안지영 (2015). ‘유아’ 대상 질적연구의 연구윤리와 진정성. *교육인류학연구*, 18(1), 67-104.
- 이강원·임소연·하대청 (2013). 민족지 연구의 실험장으로서의 ‘위로의 연구’(studying up): 세 현장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6(2), 3-44.
- 전은희 (2012).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아동들에 대한 인류학적 현지연구를 한다는 것: 연구고정의 어려움과 한계, 시사점을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15(3), 63-97.
- 카와다 준조 (2004). 人類學的認識論をのために. 박동성 (역) (2012). *인류학적 인식론을 위하여*. 서울: 시그마프레스.
- Alderson, P. (2000). Children as researchers: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rights on research methodology. In P. Christensen and A. James (Eds). *Research with children: Perspectives and practices* (pp. 241-275). London: Falmer Press.

-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2004). *Code of ethics of the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AAA
- Association of Social Anthropologists (1987). *Ethical Guidelines for good Practice*. ASA.
- Becker, H. S. (1996). The epistemology of qualitative research. In R. Jessor, A. Colby, & R. A. Schweder (Eds.). *Ethnography and human development: Context and meaning in social inquiry* (pp. 53–7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Bluebond-Langner, M., & Korbin, J. E. (2007).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he Anthropology of childhoods: An introduction to “Children, childhoods, and childhood studies”. *American Anthropology*, 109(2), 241–246.
- Bourgois, P. (1990). Confronting anthropological ethics: Ethnographic lessons from Central America. *Journal of Peace Research*, 27(1), 43–54.
-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1991). *Code of Conduct Ethical Principles and Guidelines*. BPS.
- British Sociological Association (n.d). *Statement of Ethical Practice*. BSA.
- Christensen, P., & Prout, A. (2002). Working with ethical symmetry in social research with children. *Childhood*, 9(4), 477–497.
- Clifford, J., & Marcus, G. E. (Eds.). (1986). *Writing culture: The poetics and politics of ethnography*. Berkeley, LA, London: Univ of California Press.
- Corsaro, W. A. (1997). *The Sociology of childhood*. Thousand Oaks, CA: Pine Forge Press.
- Davis, J. M. (1998). Understanding the meanings of children: A reflexive process. *Children & Society*, 12(5), 325–335.
- James, A. (2007). Giving voice to children’s voice: Practice and problems, pitfalls and potentials. *American Anthropology*, 109(2), 261–272.
- Lindsay, G. (1999). *Researching children’s perspectives: ethical issues*. Buckingham: Open Univ Press.
- Mason, J. (2002). Qualitative interviews; Asking, listening and interpreting. In T. May (ed). *Qualitative research in action* (pp. 225–241). London: Sage.
- Morrow, V., & Richards, M. (1996). The ethics of social research with children: An overview1. *Children & Society*, 10(2), 90–105.
- National children’s bureau (1993). *Guidelines for research*. London: NCB
- O’Reilly, K. (2012). *Ethnographic methods*. New York: Routledge.
- Sieber, J. E. (1993). The ethics and politics of sensitive research. In C. Renzetti, & R. M. Lee (Eds). *Researching sensitive topics* (pp. 14–26). Newbury Park: Sage.
- Spradley, J.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신재영 (역)(2006). 참여관찰법. 서울: Cengage.
- Toren, C. (2005). *Mind, materiality and history: explorations in Fijian ethnography*. New York: Routledge.
- Walsh, D. (1998). *Good research and good questions: exceedingly extended acquaintances with*

extremely small matters. 유아교육에서의 질적연구, 5-56. 한국유아교육학회
1998년도 연차학술대회.

Wolf, D. (1996). *Feminist Dilemmas in Fieldwork*. Colorado: Westview Press.

Woodhead, M., & Faulkner, D. (2000). Subjects, objects or participants? Dilemmas of Psychological research with children. In P. Christensen & A. James (Eds). *Research with children: Perspectives and Practices* (pp. 10-39). London: Falmer Press.



제 1 학술분과 논문 발표

가족지원

좌장 : 권희경 교수(건국대학교)



- 영아기 첫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관심사 129
김수오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졸업)
조형숙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미혼 남성 사무직 종사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 및 형성 배경 132
김규나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졸업)
조형숙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영유아기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위험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135
김선희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수료)
윤재희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영아기 첫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관심사

김 수 오¹⁾ · 조 형 숙²⁾

I. 연구의 필요성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단체의 노력에도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부모는 양육의 과정을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으로 여기며(조형숙, 정우영, 고선아, 2017) 양육의 어려움과 부담감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기도 한다(임현주, 최항준, 이대균, 2012). 이러한 사회적 인식 속에서 첫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부모는 자녀로 인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고(황지애, 2014) 성숙해지는 기회를 갖게 된다(임선희, 2017). 그러나 첫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부모가 겪는 첫 경험이기 때문에 낯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임선희, 2017). 부모는 양육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느끼고(이대균, 황주미, 2008) 양육효능감이 낮아진다(권경숙, 2008).

이를 위해 어린 자녀를 처음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관심사를 미리 알고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의 관심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부모가 양육관심사에 따른 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얻고 있는지 함께 살펴본다면, 부모의 양육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알맞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영아기 첫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관심사는 어떠한가?
2. 영아기 첫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관심사에 대한 정보 취득방법은 어떠한가?

1)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졸업

2)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I.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1개월부터 15개월까지의 영아기 첫 자녀를 양육하는 4쌍의 부부 8명을 연구 참여자로 설정한 후 2020년 1월 25일부터 2020년 2월 25일까지 4차시에 걸쳐 녹음 및 기록, 이메일의 형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1차 면담에서는 자유롭게 출산과 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1차 면담 중 양육의 어려움과 양육의 과정 중에서 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토대로 2차 면담과 3차 면담을 진행하였고, 4차 면담에서는 양육태도와 양육역량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더불어 SNS나 수기를 통해 작성한 부모의 육아일기를 문서 자료로 수집하였다.

2. 자료 분석

녹음으로 수집된 자료는 모두 전사하였으며 이메일로 수집된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다. 그 결과 A4용지 72장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읽으며 의미 있는 부분을 표시하였고 표시된 내용 중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를 통해 핵심어를 찾는 과정을 거쳤으며 핵심어에 따라 면담자료와 문서자료를 분류하였고 유사한 개념을 유목화 하였다. 이에 오세희(2015)와 이지현(2010)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양육관심사를 건강, 놀이, 교육, 발달, 환경 등 5가지로 범주화하였으며 위의 과정에서 유아교육과 교수 1인과 유아교육과를 전공한 석사졸업생 1인의 자문을 구하였다.

III. 주요 결과

1. 영아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관심사

부모의 양육관심사는 자녀의 건강, 놀이, 교육, 발달, 환경 등으로 나타났고, 이 중 특히 건강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건강의 하위항목으로는 수면, 섭식, 배변, 질병 등이 있었으며 이 중 수면과 섭식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모든 연구 참여자는 자녀와의 놀이에 참여하였으며 놀이가 자녀의 양육에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놀이에 대한 하위 양육관심사로는 놀이 방법, 놀잇감, 발달시기에 따른 놀이, 놀이에 대한 자녀의 반응 등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는 기본생활습관이나 훈육, 부모의 모델링을 가정에서 부모가 제공하는 자녀의 교육이라고 여겼으며, 첫 자녀가 아직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영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이후 교육과 교육기관에 대해 미리 관심을 갖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자녀의 발달에 관심을 갖고 자녀의 발달을 통해 보람을 느꼈다. 발달의 영

역 중에서는 신체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에 관심을 보였으며 시기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발달에도 차이를 보였다.

부모는 자녀의 양육 환경에 양육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첫 자녀를 양육하면서 변화하는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관심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2. 양육관심사에 대한 정보 취득 방법

연구 참여자는 양육관심사를 관심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따른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다. 양육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는 부모 및 조부모, 지인, 병원, 서적, 양육 프로그램, 인터넷, 양육 커뮤니티와 아내로부터 얻는 방법이 있었으며 양육관심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함께 이용하며 그 과정에서 양육관심사를 해결하는 모습과 동시에 취득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IV.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는 첫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고 있었다. 부모는 자녀의 건강, 놀이, 교육 발달, 환경 등 양육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정보를 취득하며 양육지식을 형성하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둘째,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양육관심사를 갖기도 하지만 서로의 양육관심사를 공유하면서 공동의 양육관심사를 가졌다. 어머니는 남편에게서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가장 많이 원하며(이지현, 2010), 배우자의 양육지원과 양육보람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현정환, 2020). 자녀에 대한 양육관심사를 공유하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함께 취득하는 경험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보람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부모는 다양한 방법으로 양육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다. 특히 부모는 양육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부부가 함께 취득한다는 점에서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와 만족도가 높았다. 이를 통해 첫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양육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취득하고자 하였으며 자녀의 월령, 양육환경, 양육태도 등에 따라 비슷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정보를 공유하며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양육정보를 원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언택트 시스템을 활용한 양육정보 포털을 형성하고, 영·유아를 월령에 따라 세분화하여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알맞게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혼 남성 사무직 종사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 및 형성 배경¹⁾

김 규 나²⁾ · 조 형 속³⁾

I.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저출산(low fertility rate)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추세는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초저출산국가에 접어들었으며, 이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정성호, 2018) ‘저출산의 덫(hypothesis of low fertility trap)’에 빠져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를 초래할 것이다(이삼식, 2010).

합계출산율 감소와 함께 혼인율 또한 감소하였다. 박창우(2018)는 결혼지연과 저출산 현상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과 혼인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남녀 평균 초혼연령은 꾸준히 상승하는 결혼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정성호, 2018). 초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정책들을 재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정보를 홍보를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저출산 현상 해결하기 위해 기혼자의 출산 장려를 위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미혼자를 대상으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한 저출산 대응 방안으로는 혼인율을 높이는 것이다. 혼인율 증가는 출산율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혼 남성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권소영 외, 2017). 경제적 요인은 결혼 지연뿐만 아니라 출산 지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유삼현, 2006). 미혼남녀의 결혼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여유가 생긴 뒤 결혼을 하고

1) 본 논문은 2021학년도 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2)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졸업

3)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싶어하는 인식의 변화로 나타났다(도난영, 2018). 맞벌이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주택마련이었다(김동현, 전희정, 2018).

저출산 대책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박수미, 2008; 박지현, 주영아, 2020; 이성용, 200). 미혼남녀의 결혼 지연은 결국 출산 지연을 초래한다(강유진, 2017; 김미예, 송영숙, 2012). 출산 지연은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며 혼인율과 출산율 감소는 저출산을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박점미 외, 2019; 황인자, 2020). 또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는 미혼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미혼남성이 대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미혼남성의 결혼의지 저하 및 결혼관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출산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정우영, 조형숙, 안혜준 2019; 최연주, 2020). 특히 미혼남성의 결혼지연에 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저출산 현상 대응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미혼 남성 사무직 종사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과 결혼에 대한 인식 형성 배경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혼 남성 사무직 종사자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자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미혼 남성 사무직 종사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미혼 남성 사무직 종사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 형성의 배경 요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20년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5주 동안 미혼 남성 사무직 종사자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과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심층개별면담(in-depth interview)을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거나 연구 참여자의 면담 내용에 대한 의미 해석이 어려운 경우 전화 SNS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여 면담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였다. 심층개별면담은 연구 참여자가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하였으며, 면담은 반구조화면담 형식(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답변과 상황에 따라 중간에 다른 질문을 더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면담을 진행하였다(유기웅 외, 2012). 본 연구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적합한 면담 질문인지 유아교육 전문가 1인의 검토와 미혼 남성 사무직 종사자 2명의 검토를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이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며 연구 참여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유기웅, 정종원, 김영시, 김한별, 2012).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 연구 문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타당성 및 신뢰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유기웅 외, 2012). 또한 수집된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확인하여 연구자가 왜곡 없이 분석하였는지 검증하였다.

Ⅲ. 주요 결과

첫째, 미혼 남성은 결혼을 위한 물질 조건 마련에 대한 부담이 결혼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 모두 주택마련을 위해 전세대출과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나아가 결혼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하여 결혼을 지연하고자 하였다. 공통적으로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결혼 후 여성과 함께 맞벌이 부부 생활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을 통해 새로 갖게 되는 가족들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방해받기 싫어 하였으며 혼자 살아가기에도 힘든 현실이라고 말하였다. 결혼을 한다면 개인의 자유가 없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상호 이해가 되는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결혼생활이 아직은 시기적으로 부담스러워 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결혼이 개인의 시간과 희생해야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결혼은 희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가 생길 경우 자신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울 것이라 예측하였다. 자녀 출산은 일적인 측면에서의 개인의 체력적 정서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주변의 동료와 친구의 결혼 생활을 간접경험하며 자녀 양육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자녀와의 시간을 함께하는 것에 대해 체력적 심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자녀는 더 없이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 양육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녀양육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부담감을 갖고 있었으며 주변의 양육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간접경험하며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남정은, 2013).

Ⅳ. 결론

본 연구는 미혼남성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과 이러한 인식이 형성되기까지의 다양한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미혼 30대 미혼남성들이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인식과 인식 형성에 영향을 준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유아기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위험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김 선 희¹⁾ · 윤 재 희²⁾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양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종합하면 개인·심리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개인·심리적 요인은 부모 개인이 겪은 경험이나 심리상태가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며, 원가족으로부터 받은 양육 경험, 부모의 성격, 기질, 낙관성, 공감능력, 우울, 불안 성향 등이 연구되고 있다. 반면 사회·환경적 요인은 자녀, 부부, 직장동료와 같은 사회관계나 부모를 둘러싼 환경이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며, 양육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역할갈등, 결혼만족도,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인은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호요인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험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위험요인에 대해서 취약성이 높은 집단이다(이승하, 배정호, 2016; Scheithauer, Niebank, & Petermann, 2000). 이 시기 부모는 인생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라는 새로운 발달과업이 나타난다. 자녀 양육은 부모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가 하면 자녀 양육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부담감과 개인 생활에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정체성 상실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Webster-Stratton, 1988). 또한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무조건적 사랑, 존중, 더 많은 상호작용, 더 많은 안전과 보호 등의 부모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김명희, 2009), 부모는 가사와 경제적 활동 등과 같은 사회적 요구가 가중되어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위험요인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 양육 죄책감 및 부정적 양육태도 등을 유발하여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방해할 가능성 크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변인이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의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메타분석을 통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 1.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관련된 위험요인 간의 전체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1)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수료

2)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연구문제 2.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관련된 위험요인(개인·심리적, 사회·환경적)의 효과크기와 하위변인별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양육태도’를 주제로 1980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국내 학술논문과 학위논문 중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다. 양육태도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Shaefer의 양육태도 모형에 기초한 측정 도구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진다정, 이승연, 2019), 1980년은 한종혜(1980)에 의해 Shaefer의 양육태도 측정 도구가 번안되어 사용된 시기이다. 이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위험요인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으로 구분했다. 연구대상 논문의 선정기준으로는 개별 연구의 연구대상자(P: population or participants)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이며, 연구결과(O: outcomes)는 양육태도의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불안, 역할갈등, 스마트폰 중독 등이다. 그리고 연구설계 유형(S: study designs)은 양육태도와 위험요인들 간의 상호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 논문의 선정과정은 문헌발견, 문헌선별, 선정기준 검토, 최종선정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종선정 된 분석대상 논문의 출간연도 및 출간상태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최종선정 된 분석대상 논문의 출간연도 및 출간상태 특성

출간연도	출간상태	N	전체(%)
1980년 ~ 1990년	학술논문	0	0(0.00)
	학위논문	0	
1991년 ~ 2000년	학술논문	0	2(6.67)
	학위논문	2	
2001년 ~ 2010년	학술논문	0	6(20.00)
	학위논문	6	
2011년 ~ 2020년	학술논문	3	22(73.33)
	학위논문	19	
전체			30(100)

III. 주요 결과 및 결론

첫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관련된 위험요인 간의 전체 효과크기는 거부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가 정적인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는 부적인 효과크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위험요인이 높아지면 부정적 양육태도로 분류되는 거부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는 높아지고, 긍정적 양육태도로 분류되는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는 낮아진다는 결과이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울, 불안, 완벽주의, 양육스트레스, 역할갈등,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단일차원의 연구들이 위험요인으로써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관련된 위험요인의 전체 효과크기는 거부적 양육태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애정적, 통제적, 자율적 양육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위험요인이 거부적 양육태도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결과이다. 부모가 위험요인에 노출되면 자녀를 방치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형태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소진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싶으나 자신의 능력보다 많은 요구를 인식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 고갈(Freudenberger, 1974)의 현상으로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위험요인의 하위변인별 효과크기 결과를 종합해보면, 통제적 양육태도를 제외하고 애정적, 자율적, 거부적 양육태도는 개인·심리적 위험요인보다 사회·환경적 위험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사회·환경적 위험요인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 특성으로 양육스트레스, 역할갈등, 스마트폰 중독 등 과도한 외부자극에 의해 야기된다. 외부자극은 긴장감과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여 개인·심리적 위험요인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스트레스로 인해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 상태가 위태로워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이현정, 1997). 이를 통해 부모 양육태도 관련 위험요인은 하나의 단일차원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부모의 하위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는 부모가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부모의 바람직한 역할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시 대상(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 2 학술분과 논문 발표

교사론

좌장 : 정대현 교수(충신대학교)



-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 동향 141
정미선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강도희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채영란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 유아교육기관 유형별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인권의식 수준 및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 145
채영란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박연정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주영미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강춘자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김수아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 유아교사 자율성과 유아교육공동체 관계에서 교사현신의 매개효과 149
이상미 (전북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문병환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겸임교수)
- 유아교사 양성 개선에 관한 예비교사의 내러티브 탐구 153
서혜정 (백석예술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 동향

정 미 선¹⁾ · 강 도 희²⁾ · 채 영 란³⁾

I. 연구의 필요성

최근 영유아교사의 비리와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행동, 열악한 환경, 인력부족, CCTV 설치의 부담감 등 교사들의 여러 스트레스로 인해 아동학대로 연결되어 진다. 영유아 교육기관에서는 교사가 행복한 교육과 보육의 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교사의 스트레스 관리 실패로 인해 영유아들이 학대를 당하며 피해를 보고 있다. 교사들은 영유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작용과 행동지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전에 준비하고 활동한 후 평가를 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 외에도 학부모와 관련된 업무, 행사와 관련된 업무, 사무와 관련된 업무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면서 (강문숙, 황해익 2008; 정민정, 김유진, 2009)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또한 영유아교사는 원장과 부모의 과도한 요구와 간섭, 동료교사와의 관계, 업무의 연장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대부분의 영유아교사가 받는 스트레스는 적절히 해소되지 않고 부정적 정서상태가 유지되면 불만족을 가져와 보육교사의 소진이나 이직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김채봉, 조혜경, 박미선, 양경수, 2016),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권경이, 2015). 그러므로 영유아교사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위험요인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권혜리, 2020).

이에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발표된 국내 학위논문, 학술지를 바탕으로 영유아교사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시기, 주제, 대상 및 방법별 동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2010년 2020년까지 10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석·박사 학위논문,

1)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2)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3)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학술지에 게재된 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논문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1차 수집된 논문은 총 723편이었으나 검색한 논문 자료 중 그 내용이 교사와 관련되지 않은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인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석박사 학위논문 242편, 학술지 논문 181편, 총 423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2. 분석기준 및 분석방법

1)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시기별 동향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최근 2020년 학위논문 및 학술지를 포함한 10년 간의 연구물들을 가지고 영유아교사 스트레스에 대해 분석하였다.

2)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주제별 동향

학위논문 및 학술지에 게재된 스트레스 종류를 분석하여 직무(수업지도, 업무, 교사역할)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테크노 스트레스, 안전사고 스트레스, 실습 스트레스, 진로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로 분류하였다.

3)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대상별 동향

연구대상은 유아교사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논문으로 “유치원교사”, “보육교사”(유아, 영아, 영유아), 현직교사가 아니고 유아교육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로 분류하였다.

4)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방법별 동향

연구방법의 분석 기준은 선행연구(국지윤, 채영란, 2017)를 참고하여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문헌연구로 구분하였다.

3. 연구절차

1단계 스트레스 관련 검색을 통한 분석대상 논문을 추출하였다. 2단계는 검색된 스트레스 관련 논문의 분석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3단계는 분석기준에 따라 분석대상 논문을 기초자료로 목록을 구성하였다. 4단계는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코딩 기준을 정하고 코딩을 실시하였다. 5단계는 자료 분석의 단계로서 코딩된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자료는 연구자의 신뢰성 및 분석기준의 타당성을 검증 받기 위해 유아교육학과 교수 1인의 검토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하였고, 최종적인 결과로 기술하였다.

Ⅲ. 주요 결과

1.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연도별 연구 동향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논문 수 (%)	학위	석사	8	15	9	17	18	28	24	19	28	23	22	211
		박사	2	·	1	5	1	3	4	2	5	4	4	31
	학술지		10	14	14	9	20	24	24	13	19	15	19	181
	계		20	29	24	31	39	55	52	34	52	42	45	423

2.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주제별 연구 동향

분류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편
직무	20	28	23	31	36	52	46	29	47	35	42	389(91.9)
대인관계	·	1	1	·	2	1	3	2	3	4	2	19(4.5)
테크노	·	·	·	·	·	·	·	1	2	·	·	3(0.7)
안전사고	·	·	·	·	·	·	·	·	·	1	·	1(0.2)
실습	·	·	·	·	1	·	3	·	·	·	·	6(1.4)
진로	·	·	·	·	·	2	·	1	·	1	·	4(0.9)
취업	·	·	·	·	·	·	·	1	·	·	·	1(0.2)
총계	20	29	24	31	39	55	52	34	52	42	45	423(100)

3.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대상별 연구 동향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보육	유아교사	11	17	13	16	8	15	17	13	15	16	13	154
교사	영아교사	5	7	1	4	10	11	6	3	12	6	4	86
	유치원교사	9	11	10	15	18	18	24	11	17	12	21	166
	예비교사	·	1	1	·	3	2	2	4	·	2	2	17
	계	20	29	24	31	39	55	52	34	52	42	45	423

4.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방법별 연구 동향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편
양적연구	19	27	23	30	38	55	51	33	48	42	42	408(96.4)
질적연구	·	2	1	1	1	·	1	·	2	·	2	10(2.4)
문헌연구	·	·	·	·	·	·	·	·	1	·	·	1(0.2)
혼합연구	1	·	·	·	·	·	·	1	1	·	1	4(0.9)
총계	20	29	24	31	39	55	52	34	52	42	45	423(100)

IV. 결론

첫째,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시기별 동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423편의 연구가 수행되고, 영유아교사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주제별 동향을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를 다룬 연구가 389편(91.9%)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나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유아교사의 스트레스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위험요인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대상별 동향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중 유아교사 스트레스 연구를 가장 많이 다루었다. 그 다음으로는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교사, 영아교사, 예비교사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넷째,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방법별 동향을 살펴보면, 양적연구가 408편(96.4%)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질적연구가 10편(2.4%), 혼합연구가 4편(0.9%), 문헌연구 1편(0.2%)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기관 유형별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인권인식 수준 및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

채 영 란¹⁾ · 박 연 정²⁾ · 주 영 미³⁾ · 강 춘 자⁴⁾ · 김 수 아⁵⁾

I. 연구의 필요성

우리 사회는 급속한 도시화와 사회화로 인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해 왔고, 이와 더불어 유아교육기관에 자녀의 보육과 교육을 위탁하는 연령이 낮아졌으며, 유아교사에 의한 자녀 돌봄이 급속히 증가되어 왔다(곽희경, 2011).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들과 생활하는 유아교사는 유아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유아교사가 가지는 사회적 중요성 및 위상과 달리, 현실 속 유아교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시간의 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를 호소한다. 영유아보육법개정안으로 보육교사의 인권문제와 사생활 침해를 둘러싼 격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가 의무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당면 과제에서 유아의 안전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교사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영석과 이선미(2015)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사의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 속에서 유아의 안전과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근무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 유형별로 교사의 직무만족과 인권인식, 근무환경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역량과 행복이 곧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유아교육기관별 근로 환경, 직무 만족도와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 직무 만족과 인권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유아 교사의 인권을 확립하고, 직무에 대한 만족과 함께 유아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담보하며, 교사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한층 성숙된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교육기관 유형별 교사의 근로환경, 직무만족, 인권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인권인식은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교사의 근로환경은 직무만족도와 인권인식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가?

1)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2)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3)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4)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5)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은 G시 소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로, 국공립유치원 교사, 국공립 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민간어린이집 유아반 교사를 중심으로 계층표집 하였다. 2018년 6월 18일부터 2018년 7월 6일까지 연구 협조 동의를 얻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질문지를 직접 방문하여 배포하였고, 모든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한 271개의 설문응답을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1)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근로환경이 직업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김연아, 2012)의 설문도구를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인권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문헌(문지은, 2016; 송영미, 2016; 양다경, 2011; 조수현, 2005)을 기초로 김선영(2018)이 수정·보완한 문항들을 종합하여 설문도구를 개발하였다.

2) 연구절차

예비조사는 직장어린이집 1개소의 유아반 어린이집 교사 2명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13일부터 2018년 6월 14일까지 2일간 이루어졌다. 설문지 문항에 대한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타 정정 및 약간의 윤필이 실행된 후 설문 도구를 본 조사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는 2018년 6월 18일부터 2018년 7월 6일까지 19일간 광주지역에 소재한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원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현재 유아반을 맡고 있는 유아반 교사에게 설문지를 배부 작성하도록 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기관유형별 근로환경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기관유형별 직무만족도 및 인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Scheffee검증을 실시하였고, 직무만족과 인권인식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로환경에 해당하는 이산형 변수를 독립변인으로, 직무만족과 인권인식을 종속변인으로 회귀모델에 투입하였고, 모든 통계분석은 PASW Statistics 18을 활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유아교육 기관 유형별 근로 환경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근로환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응답자의 소속기관별 보조교사 유무, 보조교사의 역할, 대체인력의 활용여부를 교차분석 결과 <표 1>과 같이, 기관유형별 보조교사 유무($\chi^2=46.02, p<.01$), 대체인력 유무($\chi^2=51.372, p<.01$), CCTV 설치 유무($\chi^2=213.42, p<.01$) 및 찬반($\chi^2=51.87, p<.01$), 토요일 당직($\chi^2=51.24, p<.01$), 별도의 휴게시간($\chi^2=61.07, p<.01$)과 휴게 공간 존재($\chi^2=36.42, p<.01$), 급여기준 준수($\chi^2=40.31,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기관유형별 직무 만족도

유아교사로서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국공립유치원(M: 3.74, SD: 0.76)이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사립유치원(M: 2.94, SD: 0.78)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분석결과 기관유형별 직무만족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3.53, p<.01$).

3. 기관유형별 인권 인식

유아교사의 인권인식을 기관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유아교사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 평균 2.82(SD: 1.03)로 유아교사의 인권이 별로 존중되지 않다는 인식이 드러났다. 인권에 대한 중요성은 평균 4.62(SD: 0.56)로 나타나 인권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인권 침해 수준에 대해서는 평균 3.59(SD: 1.01)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침해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권 침해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유아교사의 인권침해 예시는 교사에 대한 언어폭력, 과도한 업무, 부당한 요구, 사생활 침해가 있다.

4.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인권인식 상관분석 결과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 및 인권에 대한 인식 간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직무만족도를 포함 인권 인식 관련 세 개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인권존중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r=.495, p<.001$), 인권침해 수준을 낮게 인식하였으며($r=-.428, p<.001$), 인권 존중 인식이 높을수록 인권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r=-.167, p<.01$). 아울러, 인권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인권침해의 수준이 낮아졌다($r=.129, p<.05$).

5. 근로환경요소를 통한 직무만족도와 인권인식의 예측

직무만족도와 인권인식을 각각 종속변수로 놓고 근로환경에 해당하는 1) 보조교사 유무, 2) 대체인력 유무, 3) CCTV 설치 유무, 4) 초과 근무 유무, 5) 토요일당직 유무, 6) 별도의 휴게 시간유무, 7) 별도의 휴게 공간 유무, 8) 급여기준 준수유무의 변수를 넣어 단계적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교사의 직무만족을 예측하는 회귀모형($F=35.005$, $p<.01$)은 급여기준준수($B=.374$, $p<.01$), 별도의 휴게공간유무($B=.205$, $p<.01$)를 정적으로, 초과 근무 유무($B=-.220$, $p<.01$), CCTV설치유무($B=-.205$, $p<.01$)를 부적으로 예측하여, 4개 변인이 직무만족도 총 변화량의 약 33.5%를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유아교사로서의 인권존중에 대한 인식을 예측하는 회귀모형($F=9.497$, $p<.01$) 또한 별도의 휴게 공간 유무($B=.212$, $p<.01$)와 급여기준준수($B=.176$, $p<.01$)를 정적으로 예측하고, 대체인력유무($B=-.177$, $p<.01$), 초과근무유무($B=-.137$, $p<.01$)를 부적으로 예측하여, 4개 변인이 인권에 대한 인식 총 변화량의 약 11.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 유형별 근로 환경의 차이, 교사의 직무만족도의 차이, 교사의 인권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 직무만족과 인권인식의 상관, 근로환경이 직무만족과 인권인식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교사 유무, 보조교사의 역할, 대체인력의 활용여부를 교차분석 결과 기관유형별 보조교사 유무, 대체인력 유무, CCTV 설치 유무 및 찬반, 토요일 당직, 별도의 휴게시간과 휴게 공간 존재, 급여기준 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직무만족도는 국공립유치원이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사립유치원이 가장 낮은 가운데, 분산분석결과 기관유형별 직무만족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인권이 별로 존중되지 않다는 인식이 들어났다.

셋째, 직무만족도를 포함 인권 인식 관련 세 개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를 통해,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인권존중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인권침해 수준을 낮게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들은 자신이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인권인식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로환경관련 변인 중 급여기준의 준수, 별도의 휴게공간유무, 초과근무 유무, CCTV 설치 유무가 직무 만족의 변화를 33.5% 설명, 별도의 휴게 공간, 급여기준 준수, 대체인력여부, 초과근무는 인권인식의 변화를 약 11.2% 예측하여, 근로환경이 교사들의 직무만족과 인권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였다.

유아교사 자율성과 유아교육공동체 관계에서 교사헌신의 매개효과

이 상 미¹⁾ · 문 병 환²⁾

I. 연구의 필요성

2019 개정 누리과정 시행으로 확보된 유아교사의 자율성은 유아교사로서 수행하는 교직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창의적인 교육을 융통성 있게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박혜영, 김혜순, 2020; Pearson & Moomaw, 2005)로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교사의 자율성은 교사 개인의 성장 발달과 자아성취 및 우수한 유아교육의 실현을 위한 요인이 된다. 즉 유아교사가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교사 자신의 경력과 전문적 능력을 발달시켜(고영미, 이금란, 2004), 유아에게 다양한 놀이와 교육을 연계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아교사의 자율성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유아교사는 자율성을 토대로 유아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돕고 있다.

유아교육공동체란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차적 공동체로서(석선화, 2019), 모든 구성원인 교사-유아-부모와의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밀접하게 공유하는 조직체이다(정계숙, 손환희, 2020). 유아교사는 유아교육공동체를 통해 놀이와 배움, 돌봄 등의 핵심가치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정계숙, 견주연, 박희경, 2015). 이러한 유아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교사헌신이 기여되고 있다. 교사헌신은 교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갖는 심리적 애착으로 자기 직업에 대한 헌신, 전문가로서의 애착, 유아들의 활동이 촉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노종희, 2004; Aliakbar, & Amoli, 2016). 교사헌신은(박균열, 2008) 유아의 성장 발달을 도우며 보람을 느끼며 노력하는 것(문태형, 2010; 임효신, 서현아, 2020; 홍창남, 2005)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남호순, 2001) 때문에 교사헌신이 유아교사의 다른 변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는 유아교사 자율성 인식 실태(이현경, 2008), 자율성과 직무만족 관계(김정원, 민희숙, 2013), 유아교육공동체 인식척도 개발(정계숙, 견주연, 박희경, 2015), 유아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석선화, 2019), 유아교사의 교직헌신도와 직무만족 관계(김희영, 홍지명, 2017), 유아교사헌신에 영향을 주는 변인 탐색 연구(김혜진, 양진희, 이쌍철, 손유진, 2017), 교사의 자율성과 교육공동체 관계(김선구, 1992; 문진미, 2021),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사의 자율성과 교사헌신 관계(고귀영, 2019; 김정인, 2013)가

1) 전북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겸임교수

있다. 이 연구들은 유아교사 자율성과 유아교육공동체 그리고 교사헌신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유아교사의 자율성은 유아와의 상호작용,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유아교육공동체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변인과 관련된 연구위주로 이루어졌을 뿐 유아교사 자율성과 유아교육공동체 그리고 교사헌신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사의 자율성과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유아교육공동체가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혀보고 교사의 자율성이 유아교육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미칠 때 교사헌신이 두 변인 간의 직·간접적인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 자율성과 유아교육공동체 및 교사헌신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유아교사 자율성이 유아교육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헌신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G시 유아교육기관에 근무 중인 유아교사 282명이다. 연구도구는 자율성은 조성만(1997)의 질문지를 연태협(2004)이 재구성하고 김정원, 민희숙(2013)이 수정·보완한 도구, 유아교육공동체는 정계숙, 견주연, 박희경(2015)의 도구, 교사헌신은 노종희(2004)의 초·중등학교 교사 질문지를 김하중(2015)이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3.0을 활용하여 상관분석과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주요 결과

1. 유아교사 자율성과 유아교육공동체 및 교사헌신의 관계

구분	동반자	핵심가치	유아교육 공동체	전문 의식	교육애	교사헌신
학습지도	.371***	.204***	.353***	.524***	.340***	.524***
생활지도	.404***	.296***	.420***	.876***	.343***	.745***
학급경영	.438***	.397***	.493***	.944***	.366***	.801***
연구 및 연수활동	.421***	.419***	.492***	.537***	.405***	.570***
유아교육기관 사무	.444***	.352***	.475***	.640***	.364***	.611***
유아교육기관 경영참여	.433***	.321***	.452***	.599***	.371***	.589***
교직생활	.483***	.394***	.522***	.508***	.509***	.613***
교사 자율성	.569***	.454***	.610***	.867***	.518***	.841***

*** $p < .001$

유아교사의 자율성과 유아교육공동체 및 교사헌신 간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유아교사의 자율성과 유아교육공동체 간의 상관계수는 $r=.204$ 에서 $r=.610$ 의 분포를 보였으며, 유아교사의 자율성과 교사헌신의 상관계수는 $r=.340$ 에서 $r=.944$ 의 분포를 보였다.

2. 유아교사 자율성이 유아교육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헌신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B	SE	β	t	R^2	F
1 (독립 → 매개)	교사 자율성 → 교사헌신	.387	.015	.841	26.034***	.708	677.751***
2 (독립 → 종속)	교사자율성 → 유아교육공동체	.421	.033	.610	12.898***	.373	166.364***
3 (독립, 매개 → 종속)	교사 자율성 → 유아교육공동체	.141	.057	.204	2.467***	.441	109.999***
	교사헌신 → 유아교육공동체	.724	.124	.483	5.832***		

*** $p<.001$

1단계는 독립변인인 유아교사 자율성이 매개변인인 교사헌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841, p<.001$), 70.8%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는 독립변인인 유아교사 자율성이 종속변인인 유아교육공동체 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610, p<.001$), 37.3%로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 3단계는 독립변인인 유아교사 자율성과 매개변인인 교사헌신이 종속변인인 유아교육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유아교사 자율성($\beta=.610, p<.001$)이 유아교육공동체($\beta=.204, p>.05$)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보다 작아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교사헌신이 유아교육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beta=.483,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부분매개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자율성, 유아교육공동체, 교사헌신의 Sobel Test 결과

독립변인	독립변인 → 매개변인		독립변인 → 종속변인		Z
	A	SEA	B	SE ^B	
교사자율성	.421	.033	.724	.124	5.309***

*** $p<.001$

위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교사 자율성이 유아교육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헌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5.309, p<.001$).

IV. 결론

유아교사 자율성과 유아교육공동체 관계에서 교사헌신의 매개효과 연구결과는 첫째, 유아교사의 자율성과 유아교육공동체 인식 그리고 교사헌신 간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유아교사 자율성이 유아교육공동체, 교사헌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교사헌신은 유아교육공동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교사 자율성이 유아교육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때 교사헌신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시행으로 확보된 교사의 자율성이 유아교육공동체 형성에 책무성이 따를 때 교사헌신이 매개하여 유아놀이 지원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아교사 양성 개선에 관한 예비교사의 내러티브 탐구

서 예 정¹⁾

I. 연구의 필요성

좋은 유아교사 양성은 일차적으로 대학 차원의 지원과 교수자들의 역량이 한데 모여 자격 기준에 합당한 능력을 함양시킨다. 대학 차원의 지원은 각 부서와의 체계적인 학습, 진로, 인적성과 관련한 것이라면 전공 학습은 학과 교수의 영역이 된다. 유아교육과의 교육과정은 교양, 교직, 전공의 교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과 운영에 대한 책임은 담당 교수에게 있다. 교수설계에 따른 15주 강의가 예비교사에게 어떠한 배움과 의미를 남겼을 지에 대해 교수자가 학습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은 자신의 수업에 대해 성찰하고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들을 귀한 기회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교수자들에게 필수적이지는 않다. 학기마다 학습자의 강의 평가 결과를 통해 자신의 강의를 성찰할 기회는 있지만 정해진 항목에 수치로 보이는 강의 평가는 전공 교과 특성에 맞는 학습자의 배움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교수자의 역량에 따라 각개전투처럼 진행되는 교과수업은 교수자의 유아교육현장 경험과 형성한 교육관에 따라 지향점을 갖게 되고, 교수자간의 서로 다른 지향점은 예비교사에게 혼돈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교수자들의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대학의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방향을 경청하여 예비교사들이 요구하는 양성교육의 방향을 탐구하여 예비교사교육에 환원하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예비교사들이 요구하는 교사양성교육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예비교사의 배움을 경청하여 예비교사교육에 환원하기 위한 것으로 B 대학 졸업반인 2학년 3인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2019년 9월 28일부터 2020년 6월 10일까지 심층면담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모두 전사하였고, 분석하는 과정에 궁금증을 적어 다음 면담에서 인터뷰하였다. 자료는 귀납적 분석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1) 백석예술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Ⅲ. 주요 결과

1.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반영한 교사양성교육

예비교사들은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며, 대학교육의 방향을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019 개정 누리과정 방향에 맞춘 모의수업 변화를 위해 먼저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맞춘 교수자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2. 이론과 실제 연결이 되는 가르치기 필요

예비교사들은 구성주의 이론과 실제가 연결되는 가르침을 강조하면서, 교육관 형성을 위해 유아주도 수업에 대한 계획, 모의수업을 통한 배움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실습 전에 유아들이 참여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접근하는 수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론을 듣는 것보다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수업이 더 배움에 적합하므로 실재를 보여주는 수업, 현장 체험을 통해 직접 경험할 기회가 많아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3. 유아 주도의 실제에 대한 교수들의 역량 강화 필요

예비교사들은 대학에서 배운 것을 교육 실습에서 적용하려던 시도가 실패한 원인을 대학에서 경험한 모의수업에서 찾았다. 대부분 교과에서 유아 주도를 강조하지만, 실제 모의수업에서는 교사 계획대로 진행하는 전통주의식 교육을 안내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때로는 교수의 피드백을 받아 계획안이 수정되면서 유아주도와 멀어지는 경험으로 유아주도도 해야 한다는 이론과 다른 실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4. 학습자가 참여하는 수업

예비교사들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이 배움에 유익하므로 학습자의 적극적인 사고가 가능한 학습 참여의 수업 방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예비교사들은 대학생도 수업에 참여하여 배우면 경험을 통해 배움이 체화될 수 있을 강조하였다. 또한 구성주의 교사로 양성되는 수업도 구성주의 강의실에서 배웠음을 이야기하였다.

5. 놀이지도에서의 교사 역할

예비교사들은 혼자 놀이하는 유아 돕기와 놀이 시 유아들 간에 갈등상황에 대한 지도 방법을 주로 배웠지 개정된 누리과정에서 제시하는 놀이에 대해 배우지 못하였다. 또한 교육실습에서 놀이하는 유아를 관찰하는 교사의 모습을 볼 수 없어 교육실습 이전과 실습 중에 충분한 배움을 하지 못했음을 이야기하였다. 교육실습 사후지도에서 교구 교재에 따른 제시

방법과 유아-교사-교사 관찰자 역할을 나누어 놀이와 교사 역할을 들여다보는 수업 형식을 좋았던 경험으로 기억하였으며, 후배들도 경험하기를 원하였다.

6. 교수자마다 다른 지향점을 갖게 하기

예비교사들은 ‘유아 주도’에 대한 강조는 모든 교과에서 반복되나 교수자가 가진 교육관에 따라 ‘유아주도’의 결이 달라 지향점과 배움에서 차이가 드러나며 실제에서 유아주도와 교사 중심으로 양분된다고 하였다. 즉 단위 활동에서 끝나는 모의수업과 지속 확장되는 활동으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수업의 차이, 그리고 평가 시간에 교사의 발문에 대한 교수의 지도가 달라 혼란이 있었음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교수마다 모의수업 요구가 달라 그것에 맞추지만 지향하는 방향은 학습자의 내면에 정해져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유아존중 교실 운영 수업’을 들은 학생과 듣지 않은 학생들 간에 모의수업 방향성의 차이를 느끼게 되며, 교수 간의 통일감 있는 교육 지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7. 기억이 나는 배움으로

예비교사들은 대학에서 배움이 기억나는 교과는 학습자가 시간을 들여 참여하는 수업과 생각하며 계획안을 짜며 모의수업을 하는 수업과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수업으로 예비교사 자신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나 참신한 접근을 하는 새로운 유형의 수업, 발상의 전환이 되는 배움을 기억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예를 들면, 한 교과에서의 모의수업이 모두 늘 같은 형식 정해진 방법이 있는데 교육실습 사후지도로 진행된 수업을 통해 11가지 유형의 모의수업이 기존 아는 방식과 달라 모두 색다른 체험이 되어 그동안 배웠던 일정한 틀 형식에서 벗어나는 모의수업을 경험하여 새롭게 알게 되었음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동료의 모의수업을 통해 유아의 반응을 경청하며 생각을 모으고 지속해서 펼쳐가는 수업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예비교사의 배움을 경청하여 예비교사교육에 환원하기 위해 예비교사의 내러티브를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예비교사들은 개정 누리과정을 반영한 교사양성교육, 이론과 실제 연결이 되는 가르치기 필요, 유아 주도의 실제에 대한 교수들의 역량 강화 필요, 학습자가 참여하는 수업, 놀이지도에서의 교사 역할, 교수마다 다른 지향점을 갖게 하기, 기억이 나는 배움의 교사양성교육을 요구하였다. 교사양성교육은 예비교사들이 유아교사로 첫출발을 하는 기본이 된다. 좋은 교사를 배출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희망적인 출발이 되므로 예비교사양성교육에서 예비교사들이 배움에 대한 경험을 들여다보는 것은 교수자의 입장과 학습자의 입장에서 서보도록 함으로써 보다 더 좋은 배움을 위한 교수자의 수업 연구 출발

선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예비교사의 목소리를 통해 교사양성교육자의 가르침을 되돌아볼 기회를 갖고자 탐구하였다. 예비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수자의 가르침에 변화를 가져오고, 그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 3 학술분과 논문 발표

교수법

좌장 : 성소영 교수(안양대학교)



-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159
임은정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졸업)
최미숙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순환적 탐구과정기술 중심 모형 개발 및 적용 162
정미애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졸업),
권정윤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만 3세 새싹반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흥미영역 통합 운영 실행연구 165
유예선 (세종YWCA어린이집 원감)
안지영 (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유치원 교원양성대학의 유아수학교육 교과목 운영현황 169
이주영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박소민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이정옥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영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임 은 정¹⁾ · 최 미 숙²⁾

I. 연구의 필요성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에서 선천적으로 호기심과 상상력이 풍부하며 궁금한 것을 탐구하고 실험해가는 창의적인 과정을 즐기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창의적인 사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기에 종합적인 사고를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누리과정의 내용 범주 중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안에 ‘극놀이로 경험이나 이야기를 표현한다.’는 세부내용을 명시하여 유아의 극적 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영화는 유아가 주인공을 동일시하고 상황 속에 몰입하여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장 친숙하면서도 효과가 큰 매체가 될 수 있다. 영화 속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확장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놀이는 진정한 극놀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영화감상을 활용한 극놀이는 영화 속 상황을 바탕으로 유아들이 하나의 주제를 극화하기까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가상세계까지 확장하여 놀이할 수 있다.

한편, 창의성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자질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창의성은 개인의 독특한 사고나 융통성 등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분위기에서 점차 정교하게 발달하고, 유아는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자발적인 몰입을 지속할 수 있다. 영화를 감상할 때 화가가 표현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다양한 상상을 하며 창의적인 발상을 하게 된다. 이처럼 영화감상을 활용한 극놀이를 하기 위해 유아는 영화 내용을 자유롭게 상상하고 대본을 구성해 보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 창의성 향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유아기에 언어를 사용하여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능력이 원동력이 되어 원만한 사회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언어능력이 중요하다. 영화감상을 활용한 극놀이는 영화 속 장면을 중심으로 유아의 경험과 상상을 덧붙여 이야기를 구성하고 더 나아가 이를 극놀이로 연결하므로 표현과정에서도 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1)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졸업

2)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명화감상을 활용해 유아들이 명화 속 상황 및 주인공의 생각 등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구성한 후 구성된 대본을 극놀이로 확장해 보는 극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개발한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과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유아 극놀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의 구성은 어떠한가? 둘째,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과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만5세 유아로 G시 B유치원 유아 20명, D유치원 유아 20명이다. 유아 창의성 검사는 전경원(2001)의 ‘유아 도형 창의성 검사(K-FCTYC)’를 사용하고, 언어능력 검사는 김영태, 성태제, 이윤경(2008)의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를 사용하였다. 실험 처치는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2월 14일까지 10주 동안 총 36회로, 실험집단은 명화감상을 활용한 극놀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비교집단은 대본에 기초한 극놀이 활동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 및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III. 프로그램 개발

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설정, 교육내용 선정,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을 유아교육전문가 5인, 대학원생 5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의 시안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의 구성된 시안을 유아교육전문가(5인), 대학원생(5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와 협력하여 다양한 극놀이를 구성하고 실행해봄으로써 창의적 표현과 상호적 의사소통을 즐긴다.’로 선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풍부한 감수성을 기른다.’,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여 창의적 표현을 즐긴다.’,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여 이야기 구성 능력을 기른다.’,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다.’를 선정하였다.

교육내용은 ‘심미적 탐색’, ‘창의적 표현’, ‘상호적 협력’, ‘확장적 의사소통’으로 구성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은 교수-학습 원리, 교수-학습 전략, 교수-학습 단계, 교사의 역할로 구성하였다. 교수-학습 원리는 ‘놀이의 원리’, ‘흥미중심의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 ‘상상의 원리’, ‘통합의 원리’로 구성하였다. 교수-학습 전략은 ‘인정하기’, ‘자기표현하기’, ‘토의하기’, ‘협력하기’로 구성하였다. 교수-학습 단계는 2차시 활동으로 도입, 전개, 마무리 단계를 적용하였다. 1차시 도입은 ‘명화감상’, 전개 단계는 ‘명화와 경험 공유’, ‘극놀이 대본 구성’, ‘소품 준비 및 역할선정’, 마무리는 ‘평가’로 구성하였다. 2차시 도입은 ‘극놀이 대본소개’, 전개는 ‘무대준비’, ‘극놀이’, ‘확장된 극놀이 및 공유’, 마무리는 ‘평가’로 구성하였다. 교사의 역할은 ‘확산적 발문자’, ‘격려자’, ‘환경 구성자’, ‘중재자’, ‘평가자’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평가는 유아 평가와 프로그램 평가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IV. 연구 결과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명화감상을 활용한 극놀이 프로그램은 유아의 창의성과 언어능력에 있어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이 창의성과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첫째, 본 연구에서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은 유아가 명화 속 내용과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경험을 공유하여 창의적으로 극놀이를 구성하고 실행해봄으로써 창의적인 표현과 상호적 의사소통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둘째,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은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을, 비교집단은 대본에 기초한 극놀이 활동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은 유아의 창의성과 언어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은 목적 및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가 적합하게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와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순환적 탐구과정기술 중심 모형 개발 및 적용¹⁾

정미애²⁾ · 권정윤³⁾

I.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학기술과 이에 따른 일상의 변화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 이제는 우리에게 미래공상 과학 영화 속의 과학기술이 실제 생활에서 밀접하게 접목되어 살아가게 될 미래사회가 예측됨에 따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2020)에서는 미래지향적 사고를 강조하였으며 과학과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과제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과학의 대중화와 과학적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문가 위주의 지식이나 기술의 창출 수준을 넘어서 대중화된 과학이 생활화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유아기 과학교육을 위해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자연탐구영역의 목표를 유아·놀이중심의 누리과정의 성격을 토대로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갖는 것으로 정하고, 내용 범주로서 탐구과정 즐기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를 고시하였다(교육부, 2019). 유아과학교육은 ‘탐구하기’를 통하여 유아가 자연현상의 관계를 인식하게 하고 정보를 해석할 수 있게 하며(Hamurcu, 2003), 유아가 자연에 대한 과학적 탐구능력과 과학적 태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Zeynep & Dilek, 2018). 이때 탐구하기란 탐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과학적 지식과 개념을 얻고, 과학적 과정기술을 통해서 과학에 대한 흥미와 과학적 태도를 기를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NSTA, 2020). 또한, 탐구하기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기에 유아가 주도적으로 과학을 하는(sciencing) 경험을 중요시 하는 탐구중심의 과학활동이다((NAP, 2007).

한편, 유아교사들은 여전히 유아과학교육을 관찰 및 실험 위주의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고, 실행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들은 과학적 전문 지식의 부족과 실험 위주의 과학교육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접근방법이 어렵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이경민, 2013; 조형숙, 노승희,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과학교육이 단계적이며 관찰과 실험을 중심으로 하고, 교사가 주도하는 과학활동에서 벗어나 유아에게 적용하기 수월하고 교사가 지원가능한 교수-학습방법을 모색하고자

1)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요약임

2)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졸업

3)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순환적 탐구과정기술(cyclical inquiry process skills) 중심 모형을 개발하여 유아가 놀이상황에서 탐구과정기술인 관찰, 분류, 측정, 추측, 예측, 의사소통, 질문을 활용하여 과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순환적 탐구과정 중심 모형이란 유아의 탐구과정은 일정한 순서나 단계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유아의 궁금증이나 호기심에 의해 탐구과정이 순환하고 반복되며 교차됨에 따라 유아가 질문을 통해 탐구과정 기술을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교수-학습방법이다.

본 연구는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순환적 탐구과정기술중심 모형을 개발하여 과학활동에 적용한 유아에게 나타난 변화가 어떠한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순환적 탐구과정기술 중심 모형의 구성은 어떠한가?
2.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순환적 탐구과정기술 중심 모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유아에게 나타난 변화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적용한 과학활동을 통해 유아에게 나타난 변화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순환적 탐구과정기술 중심 모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20년 6월 15일부터 2020년 8월 14일까지 경기도의 A 어린이집의 만 5세반 20명(남아 10명, 여아 1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20-30분씩 총 16회 과학놀이 활동을 실행하였다. 순환적 탐구과정기술 중심 모형을 적용한 과학활동을 통해 유아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알아보고자 교사면담, 활동계획안, 활동 촬영영상과 현장노트, 유아놀이 관찰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유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III. 주요 결과

본 연구의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순환적 탐구과정기술 중심 모형 개발의 목적은 순환적인 과학탐구과정에서 탐구과정기술을 활용하여 유아의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한 목표는 ‘일상생활에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사물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을 즐긴다’, ‘탐구과정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과학적 탐구능력을 기른다’, ‘일상과 탐구가 생활화되는 과학적 태도를 기른다’로 설정하였다.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순환적 탐구과정기술 중심 모형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 교육내용은 유아의 일상생활 속 경험을 중심으로 물질과 물체의 특성 탐구하기, 물질과 물체의 변화과정 탐구하기, 생명체 탐구하기 및 생명체 존중하기, 자연환경 탐구하기 및 자연환경 보호하기 관련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순환적 탐구과정기술 중심 모형의 교수-학습방법은 교수-학습 원리

로서 유아의 흥미 및 호기심의 원리, 일상생활 중심의 원리, 순환 및 반복의 탐구과정의 원리, 질문기반 탐색의 원리, 문제해결 중심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교수-학습 과정은 유아에게 호기심을 줄 수 있는 질문을 바탕으로 탐구과정기술인 관찰, 분류, 측정, 추측, 예측, 의사소통, 질문을 유아의 흥미와 활동의 진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순환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교수전략으로는 유아에게 질문하기, 탐색하기, 상호작용하기를 설정하였으며, 교사의 역할은 관찰자, 환경조성자, 질문기반 촉진자, 조력자의 역할을 설정하였다. 넷째, 평가방법은 본 과학활동을 실제 적용해 봄으로써 모형 평가, 유아평가, 교사평가를 실시하였다.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순환적 탐구기술 중심 모형을 적용한 효과와 유아에게 나타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구과정에서 유아의 태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하위범주로서 유아들은 탐구과정에서 일상의 익숙한 환경과 자료들을 자세히 관찰하였다. 또한 유아는 탐구과정을 통해 일상에서의 특별한 것들 발견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탐구과정에서 비롯되는 유아 자신의 궁금증과 교사의 질문에 대해 관찰, 예측, 측정, 분류, 예측, 의사소통, 질문과 같은 탐구과정기술을 활용하여 문제해결하는 모습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유아는 탐구과정에서 일상의 자료들에 대한 호기심의 변화가 나타났다.

둘째, 탐구과정에서 유아의 심리적 변화가 나타났다. 하위범주로서 유아들은 탐구과정에서 실수를 겁내는 것이 줄었고, 주도적으로 도전해 보려는 탐구과정을 통해 성취감 느끼게 되었으며, 탐구과정을 놀이와 같이 즐거워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IV. 결론

본 연구는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순환적 탐구과정기술 중심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유아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어떠한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순환적 탐구과정기술 중심 모형 적용과정에서 유아는 탐구과정을 통해 질문을 기반으로 과학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탐구과정기술을 적용하여 탐구과정을 놀이처럼 즐거워하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생활 속에서 유아가 흥미와 관심을 갖는 대상을 통해 질문을 활용하고 유아의 탐구과정을 확장시킬 수 있는 유아과학교육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나 놀이상황에서 갖게 되는 궁금증을 기반으로 하는 질문을 통해 순환적 탐구과정기술 중심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개발하고 교사에게 유아과학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만 3세 새싹반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흥미영역 통합 운영 실행연구

유 예 선¹⁾ · 안 지 영²⁾

I. 연구의 필요성

사회적,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맞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늘 강조되고 있으며 오늘날 유아교육에서의 변화를 반영한 혁신방안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유아·놀이중심 교육, 전문·다양화된 유아교육 환경에 따른 현장에서의 자율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교육부, 2018). 이러한 방안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의 경험과 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유아·놀이중심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아의 건강과 행복, 놀이를 통한 배움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교육과정에서 유아의 주도적인 학습 운영을 강조한다(교육부, 보건지부, 2020). 교육과정에서 유아가 놀이의 주체가 되고 유아교육의 기본정신인 놀이를 중심으로 유아들의 배움을 지원하는 놀이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놀이가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Arce, 2000; Copple & Bredekamp, 2009).

유아교육 현장에서 놀이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유아 주도의 자유놀이 시간이다. 자유놀이는 다양한 흥미영역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많은 교육 현장에서는 분리된 흥미영역의 환경에서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분리된 영역의 공간에서 놀이를 할 때 놀이공간, 놀이감으로 인한 유아들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양옥순, 나은숙, 2005) 분리된 공간에서 남아, 여아가 자연스럽게 성을 구분 짓게 된다(나은숙, 한수정, 2011).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실의 흥미 영역은 유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유아들이 흥미를 보이지 않는 영역은 다른 영역과 통합하여 재구성하거나 다른 영역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아의 관심과 흥미, 요구에 따라 새로운 영역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유아가 주도적으로 놀이 영역을 창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20).

자유놀이 시간 이외에 하루일과의 운영을 살펴보면 교사들이 계획한 대소집단 활동을 진행하며 성급하게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거나 유아들에게 시간을 재촉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유아들이 흥미 있어 하는 놀이와 활동을 확장하거나 다양한 주제와 연계하기보다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지도서에 제시된 활동을 획일적인 나열하여 실천하

1) 세종YWCA 어린이집 원감

2) 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윤민아(2019)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교사가 교실에서 경험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에 관한 어려움은 ‘놀이, 놀이중심 교육의 모호함 그리고 불안감’, ‘놀이와 배움, 어려운 조화’, ‘다양한 내부적 저해 요인의 산재’로 나타났다. 교사가 소속돼 있는 교육기관의 다양한 현장의 상황에 따라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어려움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놀이를 하며 배우는 놀이의 주체는 유아이지만 놀이와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것은 교사의 역할이다. 놀이에서 교사는 갈등해결자, 규칙입안자, 훈육자, 보이지 않는 권력자로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아들 놀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손유진, 2011). 교사는 유아의 놀이에 대한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며 질 높은 수준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적 환경요인이 되기도 한다(곽정인, 나귀옥, 2015). 또한 교사의 실행 수준이 교사 역할의 중요성과 교육과정의 질을 결정짓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윤정아, 정정희 2019)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놀이중심 교육을 위한 실천에 대한 연구 의미 있는 과정임이 분명하다.

이에 놀이중심 교육을 위한 흥미영역 통합 운영의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하고, 그 실천 과정과 교사의 다양한 교육지원이 유아의 놀이에 어떠한 변화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영역의 통합 운영이 실천되는 놀이중심 교실에서의 놀이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아봄으로써 현장에서의 실천적인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활성화 방안의 실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1. 만 3세 새싹반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흥미영역 통합의 실행 과정은 어떠한가?
2. 만 3세 새싹반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흥미영역 통합 운영이 유아와 교사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만 3세 유아 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19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예비연구 기간으로 연구 참여자와의 친밀감 형성 및 연구 학습에 대한 놀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관련된 문헌 연구를 통해 실행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 참여자에 대한 연구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1차 실행은 5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유아들의 놀이 과정에서의 반응을 관찰하고 놀이에 따른 일부 영역을 통합 운영한 후의 놀이 활동 반성 및 평가가 이루어졌다. 2차 실행은 6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교사가 계획한 놀이가 아닌 유아들에 의해 진행된 놀이를 기초로 한 놀이중심 교육이었다. 유아들의 흥미와 요구에 의해 진행된 놀이에 교사의 교육적 의도를 반영하며 일과와 영역통합의 융통성 있는 놀이공간과 시간 운영의 필요함을 인식하였고 3차 실행은 10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 교사와 유아가 함께 진행된 놀이를 통합한 놀이중심 교육이었다. 이를 위해 교사가 계획한 놀이와 유아들에 의해 진행되는 놀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흥미영역의 통합과 놀이 시간, 일과 운영 통합을 활성화 하였다.

2019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된 본 연구의 실행목표와 방법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1~3차에 걸친 실행목표와 실행방법



본 연구를 진행하며 수집된 자료에 나타난 유아의 반응과 변화, 연구자의 느낌이나 해석, 새롭게 나타난 문제점 및 의미, 보완점 등을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수집된 자료로부터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귀납적 분석 과정을 거쳤으며 놀이 과정에서의 실행 과정과 반응, 실행 후의 변화 및 의미를 찾고 저널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유목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였다. 분류된 자료는 의미 있는 어휘, 내용 등을 표시하고 대표되는 의미를 진술문으로 도출하고 진술문을 통해 의미를 해석하였다. 해석을 지지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 일부를 발췌하여 기록하기도 하였다.

Ⅲ. 주요 결과

실행연구 결과와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만3세 새싹반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흥미영역 통합운영 실행과정

1차~3차 실행을 통해 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따라 분리되어 놀이하던 흥미영역을 통합하여 운영, 실내·외의 놀이 통합, 유아들의 특성, 배경을 고려하여 일과의 통합도 이루어졌다. 교사가 사전에 계획한 놀이에 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며, 유아에 의해 만들어진 놀이에 교육적인 지원을 하고, 놀이 환경, 충분한 놀이 시간과 놀이에 방해받지 않는 공간

확보 등 융통성 있는 운영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교수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또한, 유아들이 놀이를 계획, 운영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놀이 구성원 관계에 있어 친사회적인 행동 증가, 새로운 놀이를 재창조, 놀이 속에서 다양한 학습개념을 탐구하였다. 유아와 교사가 주체가 되어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며 유아에게 놀이의 주도권을 줌으로써 일과를 운영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개방적인 교실 분위기로 이어졌다.

2. 만3세 새싹반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흥미영역 통합운영이 유아와 교사에게 가지는 의미

유아는 놀이에 대해 본질적인 즐거움을 느끼게 되며 놀이 참여가 증가하였다. 또한 놀이 속에서 학습개념에 대한 탐구의 모습이 증가하였으며, 놀이 소재서 물체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탐색이 많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실행과정에서 유아들은 새로운 방식의 놀이를 지속적으로 만들며 유아 스스로 놀이에 즐겁게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계획한 활동이 아닌 유아들만의 놀이로 재창조되고 새로운 규칙과 놀이방법을 고안해내며 스스로 놀이를 확대해나갔다.

교사는 놀이에 대한 관점을 동료 교사, 부모와 공유하는 협력자, 놀이공간과 놀이자료, 유아들과의 상호작용, 놀이 안전을 지원하는 놀이 지원자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보였으며 교육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되었다. 교사주도의 유아활동에 대한 한계점에 대한 성찰의 기회가 되었으며, 유아중심의 놀이가 교실 안에서 교육과정의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기 위해서 교사 스스로 연구하고 탐구하는 행위와 실천적 행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순환의 과정이 이루어짐을 인식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가 가져야 할 역할 중 놀이의 특성, 의미, 가치를 이해하여 유아가 즐겁게 놀이하면서 배우는 경험을 지원하는 지원자로서의 교사역할에 대한 재인식과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놀이중심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흥미영역 통합에 대한 필요성 및 실행 연구를 통해 놀이가 활성화되고 교사의 다양한 교육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교사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성 향상의 변화를 통해서 만 3세 유아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유아들이 놀이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놀이를 진행하고 확장되며 놀이를 통한 전인적인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며 각 기관의 특수성(교육 환경, 이념, 교사 경력)과 배경, 다양한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연계에 대한 폭 넓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유아교육 현장에서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놀이 중심을 위한 흥미영역 통합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이고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어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유치원 교원양성대학의 유아수학교육 교과목 운영현황

이 주 영¹⁾ · 박 소 민²⁾ · 이 정 욱³⁾

I. 서론

오랜 시간에 걸쳐 유아기 수학교육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유아교사는 유아의 발달과 수준에 알맞은 수학을 일상생활에서 풍부하게 경험하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NAEYC & NCTM, 2002). 정답을 구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수학 학습 경험은 예비유아교사로 하여금 현장에서 교수활동을 실천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미래, 김정숙, 이은형, 2020). 수학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태도 등은 수학 교수를 실천하는 데 영향력이 있다(한중화, 2014).

유아교사는 중등교사와 달리, 모든 교과영역을 혼자서 가르치고 있어 교과에 대한 전문성은 중등교사에 비해 다소 부족할 수 있다. 교과영역 관련 개념은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 대부분 형성되며(서동미, 이영미, 2006), 이는 현장 교사가 된 후 교수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 영향력이 있다(백은주, 구정아, 2012).

최근 발표된 미래 창의융합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양성 교육과정 운영 권고사항(교육부, 2020a), 포스트 코로나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지원방안(교육부, 2020b) 등과 같은 교육계의 움직임은 유래 없던 팬데믹과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양성과정에서 경험한 최신의 교육 경향, 효율적인 접근은 교사가 되었을 때, 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낮출 수 있다(조형숙, 남기원, 고선아, 2016). 이에 본 연구는 2020학년도 유치원 교원양성대학에 개설된 유아수학교육 교과목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어 유치원 교원양성대학의 유아수학교육 교과목 운영에 대한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유치원 교원양성대학에 개설된 유아수학교육 교과목의 운영현황은 어떠한가?

1)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2)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lilies1009@naver.com)

3)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I. 연구방법

유치원 교원을 양성하는 전국 134개 대학 유아교육과에 2020학년도 1, 2학기 개설된 유아수학교육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정보 공개요청을 하였고, 80개 대학에서 85개 강좌의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강의계획서를 토대로 기본 현황,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방법으로 구분하여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문서상에서 드러나지 않은 실제적 경험과 의견을 함께 알아보고자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고 교과목을 운영한 교수자 8명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기본 현황

‘유아수학교육’ 교과목 명으로, 주로 2학년에 3학점으로 개설하는 강좌의 수가 가장 많았다. 소수 대학에서는 교원 자격증 취득에 있어 수학과 과학 관련 교과목 중 선택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학과 과학 교과를 통합하여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목표

Bloom(1956)의 교육목표 분류기준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종합’차원의 수업목표를 가장 많이 기술한 반면, ‘분석’차원의 수업목표는 가장 적게 기술하였다. 면담을 통해 교수자들은 학습자가 수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수학과 관련된 이론적 지식을 함양하고 이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교육내용

주차별 교육내용을 코딩하여 범주화한 결과, ‘필요성 및 목적’, ‘이론적 배경’, ‘교육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면담을 통해 교수자들은 범주화된 내용 외에 예비유아교사의 수학에 대한 인식개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의 유아수학교육, 유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수학교육, 교사의 교과내용지식의 중요성, 실천적 지식 함양 및 교수 효능감 증진을 위한 방법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교육방법

유아수학교육 교과목의 교육방법으로 이론식 강의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반면, 프로젝트 수업, 팀티칭은 적은 빈도로 나타났다. 면담을 통해 교수자들은 수학에 대한 교과지식과

이론 관련 내용들을 초반에 배치하고, 후반에는 이를 토대로 놀이와 활동을 계획하거나 수업시연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20학년도 1학기 개강 직전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개학 연기,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 등으로 교육방법에 있어 혼란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계기로 교수자들은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의 교육방법(예: 모의수업)에 대해 고민하였다.

5. 평가방법

학습자 평가를 위해 지필시험을 가장 선호했다. 이외에 모의수업, 출석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면담을 통해 교수자들은 비대면 상황에서 학습자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규 평가 외에 수시로 질문을 하거나 간단한 퀴즈 풀이 시간 등을 마련하여 운영한 사례를 언급하였다. 교수자는 제한된 상황이지만, 학습자의 이해 정도와 반응을 살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이후 수업 운영에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해 교과목을 운영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목표를 기반으로 교육내용, 방법, 평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강의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기 분석된 교육내용 외에 미래교육현장 등을 고려하여 유아에게 지원할 수학교육의 방법으로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e)’을 실현해 볼 수 있도록 교육내용에 포함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수자는 학습자인 예비교사가 궁극적으로 습득된 교과지식을 현장에서 유아를 교육하는 데 활용하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재적소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자주 사용하는 강의 혹은 학생 발표 외에 액션러닝, 사례기반학습, 마이크로 티칭 등 효과적인 예비교사교육을 위해 교육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과 새로운 시도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평가방법의 경우, 지필평가를 넘어 반성적 탐구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탐구하고, 배운 지식들을 적용해보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교과목 관련 포트폴리오 작성 경험을 통해 유아수학교육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적용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유아교육현장은 2019 개정 누리과정 시행과 더불어 팬데믹으로 인한 유치원 등원 제한, 원격수업 대체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유치원 교원양성대학에서는 유아수학교육 교과목을 운영하는 데 있어 예비교사의 현장 실천력 강화를 위한 사전 계획과 교과목 운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연구의 주 자료였던 강의계획서는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하는 문서다. 면담과정에서 2020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강의계획의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문서상에 모든 것을 업데이트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대신 2학기에는 앞서 경험한 상황들과 교육부에서 지향하는 운영방향 등을 고려한 강의계획이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또한, 전국 유치원 교원양성대학 중 일부는 강의계획서 정보 공개에 불응하였고, 2020학년도에 유아수학교육 관련 교과목을 미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강의계획서 수집이 제한적이었다. 연구자는 교과목 운영현황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실제 강의계획서를 작성한 교수자와 면담을 시도하였으나, 이들의 수가 전체 유치원 교원양성대학의 수에 비해 매우 적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유치원 교원양성대학 전체의 표준화된 운영현황으로 간주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 4 학술분과 논문 발표

부모교육

좌장 : 김민정 교수(창원대학교)



- 다층구조모델 기반 사회정서 부모교육전문가과정 개발과 검증: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175
김남임 (숭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 부모의 양육 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178
정현선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이승민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
-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181
오규호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졸업)
백지혜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다층구조모델 기반 사회정서 부모교육전문가과정 개발과 검증: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 남 임¹⁾

I. 연구의 필요성

본 프로그램은 유아교육현장과 양육현장의 부모교육 지원요구가 확대되고 근본적으로 부모교육 전문가양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일차적인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양적·질적 효과들을 증명해 온 다층구조모델 기반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현장중심 인지적 도제교육방법을 활용하여 유아교육전문인을 훈련하는 전문가과정으로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질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즉, 기존 프로그램을 유아교육전문인들이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심화·확장시킨 형태로서 통계적 유의성을 재차 규명하는 차원을 넘어, 그동안 규명되지 않은 프로그램 실행자의 직접 경험을 토대로 부모교육 현장실행을 포괄하고 있는 전문가과정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다층구조모델 기반 사회정서 부모교육 전문가과정이 실효성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행을 기다려온 유아교육기관 부모교육 담당자들과 부모의 지원 요구를 반영하여 현장의 요구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문제1. 다층구조모델 기반 사회정서 부모교육전문가과정에 참여한 유아교육전문인들의 현장실행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다층구조모델 기반 사회정서 부모교육전문가과정에 참여한 유아교육전문인들의 변화과정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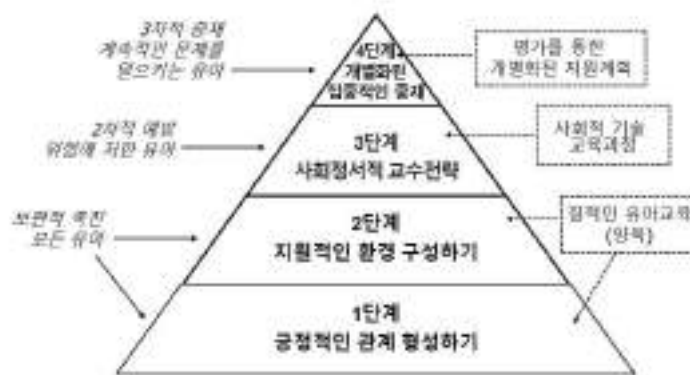
연구문제3. 다층구조모델 기반 사회정서 부모교육전문가과정에 참여한 유아교육전문인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다층구조모델은 과학적, 경험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사회정서적 교수전략들을 피라미드 형태의 다층구조체계로 구성하여 유아기 적기에 지원함으로서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Head Start, Child Care 사무국과 미국의 여러 정부체제가 협력하여 다양한 수준의 유아들을 포괄하는 단계적, 다차원적, 종합적 지원체계이다. 먼저, 보편적

1) 숭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지원으로서 주변의 성인이나 또래들과 1단계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정서적 발달을 촉진하는 2단계 ‘지원적 환경’을 제공한다. 2차적 예방에서는 좀 더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는 유아에게 3단계 ‘사회정서적 기술’을 교수한다. 이 세 단계의 지속적 수행을 통해 학급 내 95%의 유아는 대부분 필요한 사회정서능력을 함양하며 4단계의 문제행동 지도에 대한 개별화된 집중적 지원 요구는 5% 미만으로 상당히 감소한다(Dunlap & Fox, 2011; Green, May, & Jolivet, 2011; <http://csefel.vanderbilt.edu/>)([그림 1] 참조).



출처: <http://csefel.vanderbilt.edu>

[그림 1] 다층구조모델 기반의 사회정서 교수 학습 전략

다층구조모델 기반 사회정서 부모교육전문가과정은 한국형으로 개발된 다층구조모델 기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Collins, Brown과 Duguid(1989)가 개발한 인지적 도제교육에 이론과 현장성을 강화한 전문가과정으로 구축하였다. 부모교육전문가과정의 내용은 현장실행체계에 따라 4단계 11회기로 구성하였다. 1회기는 프로그램을 개관하고 수업계획을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되며 이후 부모교육 교재 각 장별 주제에 따라 진행된다. 1단계 긍정적 관계형성(2,3회기)은 ‘1장 연결고리를 만들어요’와 ‘2장 놀이를 통해 성공해요’이며, 2단계 지원적 환경구성(4,5회기)은 ‘3장 아이의 행동, 이렇게 이해하고 지원해요’이다. 3단계의 사회정서적 교수전략(6,7,8회기)은 ‘4장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세요’이다. 4단계 개별화된 집중적인 지원(9,10회기)은 5, 6장 ‘문제행동 이렇게 지도해요’이며, ‘긍정적 행동지원(PBS; Positive Behavior Support)’을 다룬다. 마지막 11회기는 평가회 및 수료식으로 진행된다.

교수학습방법은 현장중심 인지적 도제교육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시범(모델링), 교수적지원(코칭, 스캐폴딩, 명료화), 내면화(반영, 탐색) 단계 순으로 진행하였으며(신재한, 2008), 해당주차의 내용은 다음 주차 수업 전까지 현장에서 실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장실행결과를 다음주차 수업 시작 시 나누면서 내면화단계도 종료되도록 하였다. 본격적인 전문가과정 수업은 전주의 실행과정 나눔을 통한 반영과 탐색을 통한 일반화(내면화), 이론 강의 및 수업 시범과 모델링(시범), 파트별 수업시연을 통한 코칭, 비계설정 및 주제나 행동에 대한 명료화과정(교수적 지원), 그리고 한 주간 현장에서의 실행으로 진행되었다. 유아교육전문인들의

현장실행은 소속기관의 모집 과정이 종료 된 이후 전문가과정 3주차부터 시작하여 1주일에 한 번 1시간~1시간 30분씩 총 5회기를 실시였다.

III. 주요 결과

본 부모교육전문가과정의 개발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정서행동 변화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근거기반실제(Dunlap & Fox, 2015; Hemmeter, Fox, Jack, Broyles, & Doubet, 2007)에 토대를 둔 다차원적 설계방식이다. 다음, 전문가양성을 위한 시범과 체험 위주의 실제적 교육의 대표적인 형태인 인지적 도제식 교육이다(류지현, 김민정, 2013). 마지막으로, 운영실제로서 현장실행력을 강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된 적용과 실행중점의 훈련자료와 훈련방식을 구축하였다(김혜경, 2014, 이재택, 2016). 다층구조모델 기반 사회정서 부모교육전문가과정의 효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그 효과성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본 부모교육전문가과정은 유아교육전문인들이 부모교육전문가로서의 현장실행 역량을 갖추도록 한 프로그램으로서 그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부모교육전문가과정에 참여한 유아교육전문인들의 현장실행 결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 자신에게서부터 변화가 일어났고, 이것은 아이와 가정의 변화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전문가과정에 참여한 유아교육전문인들이 부모교육전문가로 준비되는 과정에서 현장실행에 대한 무거운 부담이 자신감으로 바뀌었으며, 변화와 성찰을 가져온 프로그램으로서 그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셋째, 부모교육전문가과정에 참여한 유아교육전문인들은 본 부모교육전문가과정을 평소 느끼던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해갈시켜 주고 양육현장에서 부모의 실행력을 강화시켜 줄 뿐 아니라, 최근 사회정서인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흐름을 반영하여 유아교육현장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교육과정으로 평가하였다.

IV. 결론

다층구조모델 기반 사회정서 부모교육전문가과정은 유아교육전문인들이 부모교육전문가로서 현장실행역량을 갖추게 하고, 변화와 성찰을 경험하도록 하였으며, 실행중심의 양육프로그램 및 사회정서인성 중심의 기관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후 다양한 측면의 종속변인 및 평가방식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서 근거기반실제를 탄탄히 구축해나가야 한다. 둘째, 본 부모교육전문가과정은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위한 유아교육기관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모델로 운영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셋째, 본 부모교육전문가과정 5,6장 문제행동지도 현장실행은 추후 일정 기간의 심화과정으로 구축하여 보다 심도 있는 학습과정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양육 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정 현 선¹⁾ · 이 승 민²⁾

I. 연구의 필요성

유아들은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여 쉽게 분노하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강하게 표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의 표출은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문제행동은 해당 연령에게 기대되는 규범이나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 정상적인 적응으로 보이지 않는 행동을 말한다(고인숙, 이정숙, 2008; 이찬숙, 김경윤, 2008). 적절한 반응이나 교육의 부재로 고착된 유아의 문제행동은 유아 자신의 발달뿐 아니라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학령기 이후에도 문제행동이 이어지면 학교 부적응 문제를 초래하여 학업 문제, 사회적 기술 결핍 등이 나타나고(Campbell & Ewing, 1990; Tomblin, Zhamg, Buckwalter, & Catts, 2000; Qi & Kaiser, 2003), 이는 성인기에 심리적·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다(송진숙, 2003). 이와 같은 유아의 문제행동은 부모의 양육 행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데(최정은, 이소연, 2017) 부모의 양육 행동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이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태도 및 행동으로 온정적 양육 행동과 통제적 양육 행동으로 나뉜다(이원영, 1983). 또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 출현 빈도를 높이지만,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상호작용이 높으면 문제행동이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김경숙, 김은향, 2019; 김동진, 박윤희, 이순형, 2016; 이영진, 노승희, 2017; 전효정, 고은경, 2019; 최은정, 김은향, 2019;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 2016). 따라서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부모의 양육 행동의 특징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양육 행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 행동과 관련된 변인에 주목하여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부모의 양육 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부모의 양육 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는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가?

1)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2)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수료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중 6차(2013년)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모집단은 만 4세 유아 2,150명과 이들의 부모이다. 연구 도구는 표준화된 유아의 문제행동 측정 검사지인 유아행동 평가척도(오경자, 김영아, 2009) 중 ‘행동평가척도’를 발췌하여 사용하였고, 100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4이다. 부모의 양육 행동 측정 척도(Cho, 1999)는 한국아동패널팀이 번역·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총 12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1이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측정 척도(김기현, 강희경, 1997)는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발췌한 11문항의 질문지이고,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5이다. 부모의 가족상호작용 척도(David, 2010)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신뢰도 Cronbach's α .938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은 SPSS 26.0와 Amo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Pearson의 상관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이후 연구모형의 구조를 분석, 경로계수를 확인하여 각 변인들 간의 관계와 효과를 검증하였고, Bootstrapping 분석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대응모수 비교를 통한 다중집단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집단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III. 주요 결과

1. 부모의 양육 행동,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 유아의 문제행동 간 상관관계

부모의 양육 행동,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은 유아의 문제행동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r=-.177$, $p<.01$), 하위요인인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r=-.245$, $p<.01$), 통제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359$, $p<.01$). 가족상호작용과 유아의 문제행동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r=-.230$, $p<.01$), 하위요인인 균형있는 응집성과 유연성은 유아의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215$, $p<.01$; $r=-.166$, $p<.227$).

2 부모의 양육 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양육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beta=-.577$, $p<.001$)을 주며, 가족상호작용에는 정적인 영향($\beta=.565$, $p<.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정적인 영향($\beta=.345$, $p<.001$)을 주며, 가족상호작용은 유아의 문제행

동에 부적인 영향($\beta = -.093, p < .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 행동은 양육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beta = -.573, p < .001$)을 주며, 가족상호작용에는 정적인 영향($\beta = .776, p < .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정적인 영향($\beta = .147, p < .001$)을 주며, 가족상호작용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부적인 영향($\beta = -.114, p < .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한 결과, 부모의 양육 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어머니, 아버지 집단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252, p < .01$; $\beta = -.172, p < .01$).

3. 어머니, 아버지의 집단 간 매개효과 비교 분석

대응모수비교를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집단 간 효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모수 차이($t = -5.217, p < .05$)가 1.96 이상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어머니, 아버지의 표준화계수를 확인한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모두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는데,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beta = .147, p < .001$)보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beta = .345, p < .001$)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의 양육 행동은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보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 행동의 강화를 위해 주요 예측 변인인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되고, 가족상호작용이 증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과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양육 행동 조절과 이를 통한 유아의 문제행동 예방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환경인 부모의 양육 행동과 관련한 심리적 요인 및 행동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 행동을 장려하는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오 규 호¹⁾ · 백 지 혜²⁾

I.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해주었다.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스마트폰의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는데, 육아정책연구소(2014)의 유아의 스마트기기 노출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유아들이 처음으로 스마트기기를 접하는 연령은 2.27세로 만 3세 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마트폰 사용연령이 낮아지면서 유아 또한 스마트폰 과몰입 및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4세의 유아기의 뇌 발달은 외부자극에 영향을 받으며, 4~6세 유아의 뇌 에너지 대사가 최고로 활발하다는 의견이 있다(곽노의, 김경철, 김유미, 박대근, 2007). 하지만 뇌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유아 시기에 반복적인 영상시청은 뇌발달의 속도를 늦추어 언어, 인지, 정서 등의 발달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권장희, 2012). 유아기는 외부환경의 자극에 영향을 받는 시기이므로 부모에 의한 스마트기기의 노출과 지속적인 사용은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는 유아와 함께 살아가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이다(이원석, 성영화, 2012). 이는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에도 나타나는데, 유아들은 실제로 스마트기기를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의 스마트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스마트기기에 노출되고 있다(문경임, 2017).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은 부모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유아가 스마트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부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고서린, 2014).

최근에는 자녀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아버지는 단순히 어머니의 보조자나 자녀의 놀이친구로서 뿐 아니라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아버지에 의한 보호와 양육 또한 어머니만큼 자녀의 인지, 정서, 사회성, 도덕성, 성역할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Barnett & Baruch, 1987).

부모의 자녀 놀이 참여는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과 건강한 성장,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특히, 부모 중 아버지의 놀이참여는 놀이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아와 긍정적 관계를

1)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졸업

2)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맺는데 도움을 주며, 유아의 언어능력, 협동심, 창의성을 발달시킨다(김자영, 2007). 따라서 아버지의 놀이참여는 유아의 활동 및 놀이 전개에도 중요한 변인이 되므로, 아버지의 놀이 참여의 방법과 정도는 자녀의 스마트폰 경험 및 과몰입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사회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매우 급증하고 있다(김미정, 하지민, 2013). 강주연(2012)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일반적 스트레스는 유아의 핸드폰 중독과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정도가 높다(서소정, 박주영, 김진희, 2014)는 결과처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마트기기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유아가 스마트기기에 과몰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놀이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자녀의 양육에 있어 받는 스트레스는 어떤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문제

첫째,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대한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의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D광역시에 위치한 두 개의 유치원에 재원 중인 자녀를 둔 아버지와 그들의 자녀에게 실시 한 설문 180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도구로 아버지의 놀이 참여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만 3, 4, 5세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평가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으며,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대한 아버지의 놀이참여 및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의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선택방식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주요 결과

연구결과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 전체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전체 및 하위요인 중 이상발달, 과도한 추구, 집착적 사용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과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전체 및 하위요인들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전체 및 하위요인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대하여 가지는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인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놀이참여는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과 부분적으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아이와 몸을 접촉하며 놀이하는 신체놀이 또는 규칙을 정해 승부를 겨루는 게임 등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유아가 스마트기기에 과도하게 몰입하지 않고, 스마트기기의 이용에 방해를 받거나 제지를 하였을 때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스마트기기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 스스로 중단하며 발달 지연이나 퇴행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상생활 과정 중에 어려움을 느끼며 부모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담감이 높고 심리적인 고통과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들은 스마트기기를 과도하게 추구하고 몰두하며,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도 중단치 못하고 발달지연이나 퇴행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전체에 유의미한 정적 설명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가 스마트기기에 과몰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부모역할에 대해 부담감을 갖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한다. 아버지는 자녀와의 원활한 상호작용 방법이 미숙하여 양육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고(유영수, 2019), 부부관계에서 친밀한 대화는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인지할 확률이 줄어든다(김진희, 1998). 따라서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의 참여,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양육스트레스 인지 및 정보공유는 아버지의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제 5 학술분과 논문 발표

생활지도

좌장 : 배율미 교수(강원대학교)



- 유아특수교사가 인식하는 음악활동에 대한 의미 187
박슬기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석사졸업)
백지혜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유아 또래유능성 관련 연구동향 분석 190
이승하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신나은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 피라미드 모델에 기초한 행동지도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193
김영아 (숭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유아특수교사가 인식하는 음악활동에 대한 의미

박 슬 기¹⁾ · 백 지 혜²⁾

I.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활동은 청각적 자극과 진동을 통해 즉각적이고 감각적으로 쉽게 반응 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이다(방명애, 하민경, 2003).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음악활동은 음악적 발달을 이루는 데 유익하다(장금옥, 2003).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 향상, 사회성 발달, 신체운동능력 발달(김지연, 2003; 장혜원, 2013; 최세민, 이운옥, 2007)등 전인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음악활동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교사들의 인식 및 실행 정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최윤미, 강영심, 2016). 이에 교사는 유아들에게 질 높은 음악환경 및 활동 제공을 통해 음악적 경험을 끌어낼 수 있어야한다(방은영, 2015). 또한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적절한 교수전략을 개발하여 적합한 활동을 제공하여야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다(조현영,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특수교사가 제공하는 음악활동의 실체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특수교육대상유아가 경험하는 음악활동의 교육적의미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음악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1) 유아특수교사가 제공하는 음악활동의 실체는 어떠한가? 2) 유아특수교사의 관점에서 특수교육대상유아가 경험하는 음악활동의 의미는 어떠한가? 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유아특수교육현장의 다양한 지역적 특색 및 근무환경에 따라 음악활동에 대한 인식 및 실태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경력 3년 이상인 교사, 근무기관의 유형, 음악활동의 경험 유무를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위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D, S, U시에 소재하는 단설유치원교사 2명, 병설유치원교사 2명, 특수학교 교사 1명, 유아특수학교교사 1명 총 6명이다.

1)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석사졸업

2)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와 일대일 심층면담 및 추가면담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유아와의 음악활동에 대한 경험과 의미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후 수집된 면담자료, 연구노트, 음악활동 사진 자료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이후 연구 참여자 검토를 실시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Ⅲ. 주요 결과

1. 교사가 제공하는 음악활동의 실제

1) 일상생활 중 제공되는 음악

유아특수교사들은 일과 중 자연스럽게 음악을 제공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비형식적 음악 경험을 지원하고 있었다. 유치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의 연계를 위해 음원 공유, 율동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생활하는 다양한 공간에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었다.

2) 단위활동으로서 음악활동

유아특수교사들은 통합적 음악활동을 제공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들이 반복적으로 음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에어캡, 풍선, 스카프, 리본막대, 세탁기 호스 등의 다양한 도구나 소품을 활용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들의 청각 자극 뿐 아니라 촉각 및 시각 자극 등의 감각을 할 수 있도록 음악활동을 진행한다고 답했다.

3)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음악활동

특수교육대상유아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사들은 쉬운 가사의 노래를 선정하여 반복하여 활동하거나 다양한 감각을 자극 할 수 있는 가사판을 제작하여 음악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밴드형 마라카스, 목걸이형 셰이커 등 수정된 악기 제공하여 유아들이 쉽게 음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4) 음악활동 지도의 어려움

유아특수교사들은 악기 및 활동공간이 부족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들과 음악활동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교사들은 특수교육대상유아들의 지니고 있는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음악활동을 제공하는 것과 교사의 음악활동에 대한 효능감이 부족하여 음악활동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였다.

2. 특수교육대상유아가 경험하는 음악활동의 의미

1) 즐거운 음악활동

특수교육대상유아들은 지속적인 음악활동을 탐색하고 다른 활동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활동 중 배운 음악을 놀이시간에 흥얼거리거나 교사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음악 자체를 즐기고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적 교류는 교사가 음악활동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 나를 이해하고 친구와 함께하는 음악활동

특수교육대상유아들은 지속적인 음악활동을 통해 보다 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고 있었다. 또한 음악활동은 개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래와 함께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유아들이 타인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놀이를 시도하고 지속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나의 발달을 독려하는 음악활동

유아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대상유아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음악을 탐색하여 음악의 개념과 소리의 성질을 익힌다고 했다. 음악활동을 통해 발달의 어려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편마비인 특수교육대상유아가 편마비 부위의 손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IV.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통해 유아특수교사들은 음악활동이 일상생활 및 교육상황에서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 특성 및 교사의 음악적 지식의 부족은 음악활동을 제공함에 있어 걸림돌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미숙(2011)이 언급한 음악활동에 관한 역량 강화 및 연수 기회가 필요함을 뒷받침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유아들은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발달 영역 전반에 걸쳐 긍정적으로 발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활동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한다고 한 연구들과(이운진, 2007; 장혜원, 2007)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음악활동이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며, 음악활동이 유아특수 교육 현장에 활성화 되어야함을 시사한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유아 또래유능성 관련 연구동향 분석

이 승 하¹⁾ · 신 나 은²⁾

I. 연구의 필요성

또래유능성이란 또래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며 관계 내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으로(박주희, 이은혜, 2001), 또래관계에서의 사회적유능성을 의미한다(유경훈, 강순미, 2013). 또래유능성이 높은 유아는 다른 유아와 쉽게 어울리며, 민감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또래와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단현국, 2011; Kostelnik, Gregory, Soderman, & Whiren, 2011). 유아기 또래유능성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도울 뿐 아니라, 일생에 걸친 사회적 및 대인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Hartup, 1992).

또래유능성이 발달한 유아들은 다른 유아를 잘 도와주고 사이좋게 지내며, 갈등이 생겼을 때도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Newcomb, Bukowski, & Pattee, 1993). 또한 새로운 환경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안정감을 보인다(Johnson, Ironsmith, Snow, & Poteat, 2000). 반면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유아는 성장 후 사회 부적응 문제를 일으켜 비행이나 범죄 행위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들을 보이기도 한다(Crick, 1996; Parker & Asher, 1987). 따라서 유아가 또래관계에서 유능하게 기능하여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유아기 또래유능성과 관련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포함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구조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유아 또래유능성 관련 연구물의 주제어를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선행연구에 포함된 핵심 변인들을 추출하고 변인들 간의 중심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 또래유능성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유아 또래유능성 관련 연구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 유아 또래유능성 관련 연구물의 키워드 중심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 또래유능성 관련 연구물의 핵심키워드는 어떻게 시각화되는가?

1)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유아 또래유능성 관련 연구물에 제시된 키워드이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상세검색을 통해 제목이나 키워드에 ‘유아’, ‘아동’, ‘또래유능성’, ‘또래유능감’을 포함하는 연구물을 수집하였다. 이 중 중복된 자료, 유아가 아닌 타학교급에 해당하는 자료, 주제관련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제외하였다. 선정된 논문에서 키워드를 추출한 후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수상(2012)이 제시한 방법을 참고하여 키워드 정제작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유아 또래유능성 관련 연구가 처음 시작된 1998년부터 본 연구의 자료수집 시점의 직전해인 2020년까지 간행된 총 175편의 유아 또래유능성 관련 KCI 등재 학술지 논문의 키워드 473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NetMiner 4 프로그램을 활용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키워드의 중심구조 분석을 위해 키워드의 직접적인 영향력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다른 키워드와의 연결거리를 나타내는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다른 키워드 간의 연결을 매개하는 정도인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분석하였다. 둘째, 출현빈도 상위 8개 핵심키워드의 관계를 시각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키워드의 경로거리를 반영하고 최적화하여 시각화하는 방법인 Kamada와 Kawai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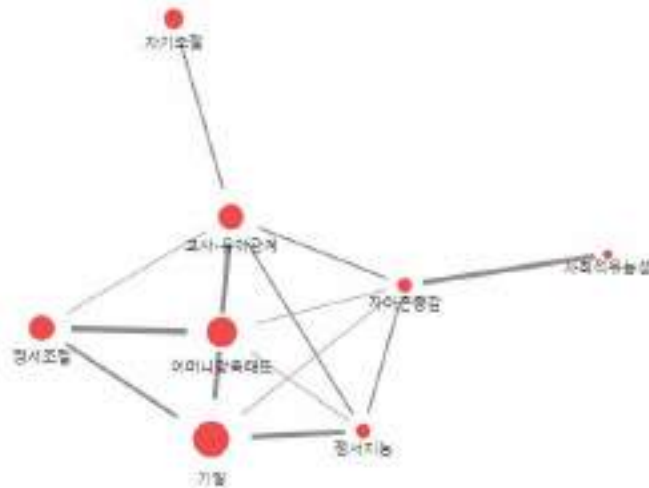
III. 주요 결과

유아 또래유능성 관련 연구물의 키워드 중심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유아 또래유능성 관련 연구물의 키워드 중심구조 분석 결과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1	교사-유아관계 (0.110)	교사-유아관계 (0.352)	자아존중감 (0.138)
2	어머니양육태도 (0.105)	자아존중감 (0.350)	교사-유아관계 (0.104)
3	기질 (0.100)	어머니양육태도 (0.347)	사회적유능성 (0.100)
4	자아존중감 (0.096)	기질 (0.331)	어머니양육태도 (0.094)
5	사회적유능성 (0.096)	정서지능 (0.320)	자기조절 (0.092)
6	정서지능 (0.091)	정서조절 (0.317)	정서지능 (0.085)
7	자기조절 (0.091)	또래상호작용 (0.314)	기질 (0.081)
8	정서조절 (0.082)	부모양육태도 (0.313)	정서조절 (0.059)

175편의 연구물에 10회 이상 출현한 핵심키워드는 기질(19회), 어머니양육태도(17회), 교사-유아관계(14회), 정서조절(14회), 자기조절(13회), 정서지능(12회), 자아존중감(12회), 사회적유능감(10회) 순으로 나타났다. 8개 핵심키워드의 관계를 spring map으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유아 또래유능성 관련 연구물의 핵심키워드 spring map

IV. 결론

출현빈도 상위 8개의 핵심키워드 중 유아 변인의 키워드는 6개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단순히 출현빈도가 높은 키워드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단정지를 수는 없다. 키워드 중심구조를 분석한 결과 ‘교사-유아관계’가 키워드 전반에서 큰 상대적 영향력과 일반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양육태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는 유아 또래유능성에 관한 연구가 유아 내재적 변인뿐만 아니라 교사 혹은 어머니와의 관계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다른 키워드 간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키워드이다. 이는 연구자들이 유아 또래유능성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어, 다양한 키워드와 함께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또래유능성 관련 연구들이 유아를 둘러싼 인적환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적절한 교육환경과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적변인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유아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주고받는 다양한 변인을 파악함으로써 유아의 또래관계 증진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피라미드 모델에 기초한 행동지도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김 영 아¹⁾

I. 연구의 필요성

유아들의 문제행동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활동 참여나 교사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에 지도될 필요가 있다. 유아교사들의 중요한 책임인 문제행동 지도역량은 교사양성과정에서 ‘유아사회교육’, ‘생활지도’, ‘사회정서지도’ 등의 과목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김영아, 2013). 하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효과적인 교사교육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재진, 2020). 피라미드 모델은 4단계의 다층적 접근방식으로 유아들의 사회정서 발달을 촉진하고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국외에서 검증되고 있다(Hemmeter, Snyder, Fox, & Algina, 2016). 국내에서는 주로 장애유아들을 대상으로 피라미드 모델과 유사한 다층적 접근방법인 긍정적 행동지원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권소영, 이병인, 2017). 피라미드 모델은 긍정적 행동지원과 같은 이론에 기초한 다층적 접근방식으로 유아교육기관과 유아발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4단계(긍정적 관계형성, 지원적 환경구성, 사회정서발달 지도, 개별적 지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이 피라미드 모델에 기초한 행동지도방법을 학습한 후 피라미드 모델의 전략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들은 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의 3학년 학생들로 3학년 2학기에 아동생활지도 과목을 수강한 153명의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보육실습과 교육실습을 모두 이수하였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 10주와 실시간 줌 수업 3주로 구성된 아동생활지도 과목에서 피라미드 모델에 기초한 생활지도 방법을 학습하였다. 학생들은 수업 1주차와 15주차에 피라미드 모델 단계들의 중요도와 실행도 평가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연구도구는 교사의 유아사회정서지도 및 문제행동 지도 역량을 검사하기 위해 제작된 총 23문항의 설문지이다(허계형, 노진아, 2012). 이 도구는 피라미드 모델의 실행충실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찰과 면담방식으로 평가하도록 개발된 TPOT(Teaching Pyramid Observation Tool, Hemmeter & Fox, 2008)를 교사의

1) 숭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자기 평가식 설문지로 수정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것이다(Heo, Cheatham, Hemmeter, & Noh, 2014). 설문지의 하위영역은 피라미드 모델의 4단계이며 영역별 전략에 해당되는 4~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예비교사들은 각 문항이 행동지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와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4점 척도로 평가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중요도와 실행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데이터로 분석된 신뢰도는 총점이 .91이고 영역별로 .76~.87이다.

수업은 중간, 기말고사 주간을 제외하고 총 13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라미드의 각 단계를 2~4주에 걸쳐 학습하였다. 학생들은 각 단계의 의미, 중요성, 특성, 실행방법에 대해 교수의 설명, 사례토론, 실습을 통해 학습하였다. 온라인 수업은 매주 25분 내외의 수업 동영상 3개를 보고 각 주의 주제와 관련된 학습과제를 제출하였다. 1~3단계는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하였고 4단계는 온라인 수업과 줌 수업으로 학습하였다. 2주간의 줌 수업에서 개별적 지도 방법인 목표행동 수립과 삽입된 학습기회의 작성방법과 실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4명이 한 팀이 되어 줌 회의실에서 사례유아를 대상으로 목표수립과 삽입된 학습기회를 수립하였다. 평가는 8주차에 대면 필기시험, 12~13주차에 목표행동 수립과 삽입된 학습기회 팀별 레포트, 그리고 15주차에 피라미드 모델 전략에 기반한 부모용 온라인 생활지도 자료로 이루어졌다.

III. 주요 결과

1. 피라미드 모델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피라미드 모델 단계들의 중요도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은 수업전후로 차이를 보였다. 표 1에서와 같이 4단계의 개별화 지도를 제외하고 전체와 3개의 하위영역별 평균에서 사후 검사 점수가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별화 지도의 경우에는 사전 검사에서 다른 하위영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중요도 점수가 높았고 사후검사의 평균이 사전검사의 평균과 거의 차이가 없어 통계상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2단계인 지원적 환경 구성하기 영역은 사후 검사에서 사전 검사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사전, 사후 모두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2. 피라미드 모델의 실행도에 대한 인식

피라미드 모델 단계들을 얼마나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은 수업 전후로 차이를 보였다. 표 2에서와 같이 총점을 비롯하여 모든 하위영역에서 사후 검사 점수가 사전 검사 점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전 검사에서는 하위영역 중에서 지원적 환경구성이 가장 높은 실행도를 보였으며 개별화 지도가 가장 낮은 실행도를 나타냈다. 사후 검사에서 가장 낮은 실행도를 보인 개별화 지도는 사전, 사후 검사의 평균 점수의 차이는 하위영역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1> 피라미드 모델 영역별 중요도 인식 (N=153)

영역	<i>M</i>		<i>SD</i>		<i>t</i> -test
	사전	사후	사전	사후	
긍정적 상호작용	3.42	3.64	.37	.38	-6.23***
지원적 환경구성	2.96	3.12	.47	.56	-3.57***
사회정서 기술 지도	3.49	3.60	.34	.37	-3.20**
개별화 지도	3.54	3.57	.49	.46	-.83
전체	3.26	3.46	.55	.37	-4.13***

*** $p < .001$, ** $p < .01$

<표 2> 피라미드 모델 영역별 실행도 인식 (N=151)

영역	<i>M</i>		<i>SD</i>		<i>t</i> -test
	사전	사후	사전	사후	
긍정적 상호작용	2.66	3.00	.56	.44	-6.85***
지원적 환경구성	3.05	3.20	.48	.44	-3.87***
사회정서 기술 지도	2.79	3.10	.55	.44	-6.70***
개별화 지도	2.16	2.81	.79	.54	-9.52***
전체	2.73	2.93	.46	.37	-5.15***

*** $p < .001$

IV. 결론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유아 행동지도 방법인 피라미드 모델을 학습한 전후로 피라미드 모델 전략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중요도와 실행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였다. 수업 후에 개별적 지도에 대한 중요도를 제외하고 모든 하위영역에서 중요도와 실행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개별적 지도에 대한 중요도에 차이가 없었던 이유는 수업 전부터 그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높았고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생소한 4단계의 개별화 중재방법에 대한 학습기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개별화 지도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실행도는 수업 전과 비교하여 수업 후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하위영역으로 수업을 통해 실행역량에 대한 인식은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13주간의 비대면 수업을 통해 예비유아교사들의 피라미드 모델의 중요성과 실행역량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화 중재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예비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실제로 교사가 되었을 때 교실에서 피라미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제 6 학술분과 논문 발표

운영관리

좌장 : 박애경 교수(동남보건대학교)



-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연장반 운영 경험 199
이남수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임민정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 보육교사의 긴급보육서비스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202
이상선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임민정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 코로나 19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경험과 의미 탐색 215
채영란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부교수)
윤민아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교수)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연장반 운영 경험

이 남 수¹⁾ · 임 민 정²⁾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17). 영유아 연령과 학부모 취업 유무에 따라 맞춤형과 종일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던 기존의 보육체계는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본보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까지 연장보육은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제공된다. 즉, 연장보육의 경우 기본보육이 종료된 이후 최대 3시간 30분 동안 별도의 반이 구성되어 운영된다.

이와 같은 보육 운영체계 개편을 통해 정부는 취업모 가정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기본보육 담임교사의 수업 준비시간 확보로 보육 및 교육을 내실화하며, 기본보육 이후 연장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을 높이려는 기대를 지니고 있다. 연장보육 운영의 기대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규 채용된 연장보육 전담교사(이하 연장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보육교사의 질이 보육의 질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연장교사의 책무성과 전문성 인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장반 운영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알아보고 보육현장에서 연장반 교사의 역할수행과 직업적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환경적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장교사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검토는 보육운영체계 개편에 대한 실증적 사례를 제공하고 연장보육의 운영방향 및 안심보육·질적보육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연장반 운영 경험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연장교사의 연장반 운영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를 위하여 D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3곳의 연장교사 3인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연장교사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1)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2)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진행되었다. 면담은 연구개요와 과정을 연구참여자에게 설명하고, 참여자별로 각 2회 총 6회 이루어졌다. 면담은 어린이집, 카페 등에서 60분에서 90분 동안 진행되었고, 동의를 얻어 녹음된 후 전사되었다. 면담의 수행은 일반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의미를 파악하는 반 구조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 참여관찰은 Patton의 5가지 참여관찰 형태 중 참여자로서 참여관찰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관찰의 목적을 알리고 현장에 들어갔으며, 참여자로서의 참여관찰은 약 1시간동안 총 3회 이루어졌다. 참여관찰과 함께 연장교사가 기록한 연장보육일지와 사진, 동영상 자료가 수집되었다.

자료 분석은 면담 전사본의 경우 Charmaz(2011)가 제시한 기초코딩과 초점코딩이 실시되었고, 연구자의 참여관찰기록과 연장보육일지 등을 토대로 보육활동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졌다.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는 제1저자는 연구참여자와의 공감대를 자연스럽게 형성함으로써 면담을 촉진하되, 원장과 교사의 권력관계에 의해 면담의 방향이 왜곡되지 않도록 연구방법에 대하여 반성적으로 성찰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배경

구분	연령	보육경력	취업동기	*유사경력기간
A교사	41세	6개월	구직희망	없음
B교사	42세	20년	보육소진	1년2개월
C교사	57세	4년2개월	단기보육	6개월

* 2020년 3월 시점 경력

III. 주요결과

연장반의 운영은 영유아들에게 돌봄과 쉼 제공을 통한 안전한 보육과 지속적인 놀이 지원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연장반 교사들은 일반적 배경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두 연장보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연장반 운영의 근거에는 정서적 안정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9 개정누리과정과 2020 표준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놀이중심의 일과운영을 위해 놀이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참여관찰과 일지작성 내용에서 혼합 연령과 단일 연령 내의 자주적·자발적 놀이가 관찰되었다.

연장교사들은 영유아들의 놀이를 지원하는 역할수행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으나 연장반 운영의 놀이지원과 활동계획은 연장교사의 경력과 역량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었다. 더 나아가 연장교사로서 전문적 역할수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전문적 역할수행에 대한 개념의 혼재가 나타났다. 혼재의 범위는 놀이 지원 및 활동계획, 상호작용의 반응적 정도였고, 교사의 발현된 인성적인 부분도 전문적 역할수행 개념으로 포함하기도 하였다. 반면 기본보육반 담임교사, 어린이집 원장, 연장반 이용자들은 연장교사의 역할수행을 영유아의 안

전과 하원지도에 한정하는 인식적 차이를 보였다. 연장반의 물리적 환경으로는 모두 별도의 반이 구성되지 않아 기본보육반과 보육실을 시계열적으로 함께 사용함으로 인해 기본보육반의 놀이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연장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장반 운영의 업무는 근무환경과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B교사의 경우 여러 명의 연장교사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원장 혹은 주임교사의 업무로 여겨지는 교사관리를 수행하며 업무과중의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는 연장반 운영에 관한 면담과 참여관찰등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연장교사의 연장반 운영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알아보고, 보육현장에서 연장반 교사의 역할수행과 직업적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환경적 맥락이 어떠한지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에 도입된 연장보육에 대한 연장반 운영 기간이 1년여 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시간 연장보육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돌봄윤리가 강조되는 연장교사의 전문적 역할수행의 개념화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간 배경 즉, 연령·경력·취업동기·경험유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상이(相異)한 연구참여자들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 수행이 요구된다.

셋째, 연장반 교사의 직무분석에 대한 요구가 연장반 이용자, 원장, 기본반교사, 연장반교사 등에서 다각적인 관점과 입장에서 제고하여 봄으로써 연장보육의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보육교사의 긴급보육서비스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이 상 선¹⁾ · 임 민 정²⁾

I.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에 대한 WHO의 팬데믹(Pandemic) 선포 이후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등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지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보육현장의 모습도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것과 돌봄의 공백을 보완한다는 두 가지 목적에 따라 긴급보육서비스를 도입하였고, 2020년 2월 중순부터 어린이집은 감염병 확산의 추세에 따라 긴급보육과 정상보육을 반복하고 있다.

긴급보육서비스의 통일되지 않은 운영체계(손희나, 2020)는 몇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다. 긴급보육 이용에 대한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긴급보육’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80%에 육박하는 높은 이용률(SBS 보도자료)을 보이며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연령이 낮은 영아에게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도하는 데 있어 적절한 인원이 유지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고, 주말을 이용하여 다수 이용시설을 다녀오는 등 가정의 비협조적인 태도 또한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보육교사들은 감염병 확산세에 대해 불안함을 호소하였고, 보육교사의 인권을 보호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국민청원 등을 통해 확산시켰다.

본 연구자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이에 참여하기 위해 본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주제로 하여 수행된 선행연구(박영아, 조미현, 2020; 최예린, 2020)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최근 급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연구물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한 보육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하여, 질적인 자료를 제시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긴급보육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보육교사의 삶과 내러티브를 보다 심도 있게 탐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2)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긴급보육서비스 관련 경험을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중에도 긴급보육서비스를 제공한 10명의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로 선정된 10명의 보육교사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등에도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주된 자료 수집 방법은 면담으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5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자료에 대한 분석력과 이해력을 높이고자 참여관찰이 병행되었다. 참여관찰의 경우 연구자가 현장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내부자적 관점을 견지할 수 있었다. 참여관찰을 통해 기록된 자료는 면담의 질문지를 구성하고, 수집된 자료를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III. 주요 결과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살펴본 보육교사들의 경험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이 드러났다. 우선, ‘일상의 변화’로 명명된 의미가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 이후 긴급보육을 수행하면서 변화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그 내용은 임하진(2021)의 연구결과에 드러난 주요한 세 가지 변화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기존 업무에 추가된 방역 관련 업무에 대한 부담감, 감염 위기와 아동 퇴소로 인한 실직 불안 등으로 요약된다.

둘째, ‘유연근무를 통한 일상의 재발견’으로 명명된 의미가 도출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소수의 영유아 보육을 위해 당직 교사가 배치되는 유연근무제 형태로 긴급보육이 운영됨에 따라 보육교사들은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보육업무에 젖어 일상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그들은 교사 이전의 한 개인으로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고, 가족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면서 새로운 시간적 의미를 발견했다고 한다. 두 아이를 둔 한 보육교사는 유연근무 경험을 계기로 가정에서 엄마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면서 육아휴직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셋째, ‘방역 통제와 집단생활의 딜레마적 공간’으로 명명된 의미가 도출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긴급보육으로의 전환 이전까지 보육교사에게 어린이집이라는 공간은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곳이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긴급보육의 여파로 인해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 두는 공간적 의미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역을 위해 엄격히 통제된 환경인 동시에 여전히 많은 아이들과 교사가 한 공간에 모인다는 점에서 감염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으며, 그들은 어린이집을 감염 위험성이 팽배한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어린이집의 공간적 의미는 크게 변화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보호자와 기관의 중간 입장에서 경험하는 딜레마’로 명명된 의미가 도출되었다. 긴급보육 운영을 둘러싸고 학부모와 기관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입장 차이가 존재했고, 보육교사들은 중간 입장에서 딜레마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한다. 기초 체온이나 영아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미한 증상에 대해 무조건적 귀가 조치를 취하려는 기관장과 맞벌이로 인한 보육공백에 난처함을 호소하는 학부모 사이에서 보육교사는 항상 선택과 판단의 순간에 놓여야 했다. 전적으로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설 수 없었던 보육교사는 딜레마 끝에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 대해 기준을 달리 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자 노력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가정보육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대해선 보다 유연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가정보육을 권고하는 등 딜레마를 극복하여 주도적인 선택을 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다섯째,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제도’로 명명된 의미가 도출되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보육공백 보완을 위해 운영된 긴급보육은 정상보육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용률을 보이며, 그 목적이 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 2부제로 운영되며 통제가 잘된 것과 달리 어린이집의 경우 마땅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80% 이상의 이용률을 보이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보육교사들은 이름과 달리 전혀 실속 없는 제도라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며, 보육교사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함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표정이 사라지고, 소통이 단절된 세상’으로 명명된 의미가 도출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아이들 간의 혹은 아이들과 교사 간의 신체 접촉이 제한되면서, 아이들의 정상적인 정서표현에 큰 제약이 생겼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함에 따라 아이들의 눈만 보고 정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큰 제약이 생겼으며, 아이들 또한 표정을 통한 정서표현 모델을 관찰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언어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입 모양과 말소리를 동시에 활용하는 적절한 언어모델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의 언어발달을 정상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IV. 결론

본 연구는 긴급보육 운영에 대한 보육교사의 목소리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긴급보육 운영, 영유아 정서·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장시간 동안의 자료를 내부자적 관점을 통해 제시하면서, 보다 입체감과 생동감이 있으면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온 보육교사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경험과 의미 탐색

채 영 란¹⁾ · 윤 민 아²⁾

I. 연구의 필요성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보육시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여전히 예전의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 휴원과 긴급보육이 시행되면서 유아들은 자유롭게 놀이터에 가는 것도 어려워졌고,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놀이하는 것도 거리두기와 마스크 등의 제한으로 힘들어졌다. 유아들이 자유롭게 놀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경험에서 변화된 역할 수행과 향후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코로나 19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경험한 어려움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코로나 19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변화된 역할 수행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어린이집 원장에게 코로나 19 상황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들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변화된 역할 수행은 무엇이며, 코로나 19 상황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10명(국공립 2명, 직장 3명, 민간 5명)의 어린이집 원장들과 3월 15일에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면담으로 1차 집단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2차 면담은 3월 19일~3월 31일까지 일대일 방식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의 방법으로 반구조적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평균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면담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은 면담 중 혹은 면담 직후 연구일지에 기록하였다. 3차로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단상이나 특별한 사건에 대한 의미 등을 일정한 형식 없이 저널로 기록하도록 추가 요청하였다. 수집된 저널의 분량은 연구 참여자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다양한 형식의 저널을 총 10편을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2인의 공동 연구자가 함께 전사본과 면담노트, 저널을 읽으면서 반복되거나

1)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부교수

2)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교수

유사한 맥락의 패턴을 찾고, 중요한 주제별로 부호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1차 분석과정에서는 어려움, 역할수행, 의미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한 후, 2차 분석과정에서 세부내용에 따른 유목화를 통해 하위 범주를 구성하였다.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3인에게 검토와 의견을 요청하는 참여자 확인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어린이집 원장이 경험한 어려움

1) 현저하게 감소된 원생 수와 저조한 원아모집

어린이집 원장들은 학부모들의 바깥출입에 대한 두려움, 기관 내에서의 종일 마스크 착용, 장기 휴원 등으로 어린이집 이용 원생이 현저히 줄었다고 한다. 또한 가정교육이 장기화되면서 신입원생이 없어 어린이집 운영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한다.

2) 학부모와의 소통 및 신뢰 구축의 난제

코로나 19 이전에는 항상 개방되었던 어린이집이 코로나로 인해 학부모와 교사들과의 실질적 접촉이 어려워졌으며 이로 인해 소통의 단절이 생겼다고 한다. 소통의 단절은 신뢰 형성의 장벽이 되어 어린이집 운영의 큰 장애가 되었다고 한다.

3) 부재되거나 미흡한 매뉴얼로 인한 긴급 상황 대처에서의 혼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시간차를 둔 대응 방안발표는 학부모에게 혼선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한 민원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규제는 명확하나 상황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내려오지 않아 긴급 상황에서 혼란을 많이 경험하였다고 한다.

2.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어린이집 원장의 변화된 역할 수행

1) 방역의 최일선에 서기

어린이집 원장들은 등하원 발열체크, 외부인 방문 체크, 매일 시간별 소독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한다. 원장의 관리 책임이 다각도로 늘어났으며, 질병과 관련된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2) 새로운 소통의 통로 만들기

각종 행사를 온라인으로 기획하여 운영하고, 드라이브 쓰루로 놀이 꾸러미 배달하기, 정기적으로 화상 상담하기 등 학부모와의 새로운 소통의 통로를 만드는 시도를 하였다고 한다.

3)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 아우르기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우울감을 토로하는 교사들의 마음을 달래는 일도 최선을 다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이 겪을 파장이 우려되어 교사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일은 멈출 수 없었다고 한다.

3. 어린이집 원장이 인식하는 코로나 19 상황의 의미

1) 학부모와의 소통과 신뢰 형성에 대한 중요성 재인식하기

어린이집 원장들은 학부모와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소통만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어린이집 운영의 주체로서 학부모를 바라보고 자녀와 원 운영 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노력을 실천하겠다고 한다.

2) 자연, 놀이... 일상과 본질의 가치 음미하기

어린이집 원장들은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자연과 놀이 등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가정교육의 증가로 한 학급의 원아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교사와 유아 간의 질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특성화 프로그램 미실시가 오히려 유아들의 자발적인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했던 시간이라 회고하며 앞으로 유아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3) 생존과 도약을 위한 새로운 시도하기

급격한 변화로 인해 원 운영의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하였으나 생존과 도약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4) 연대적 위기 극복과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하기

코로나 19 상황을 경험하면서 어린이집만의 자구책으로는 보육현장과 관련된 산재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강하게 하였으며, 국가, 지자체, 지역사회 등의 연대적 노력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고 한다.

IV. 결론

어린이집 원장들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다각도의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나 위기를 극복하

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어려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나 어린이집 원장들은 코로나 19가 가져온 변화에 적응하면서 교육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고, 연대적 위기 극복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지원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국가 경제의 축을 지키는 근로자의 가정지원과 우리 미래를 담당할 영유아를 책임지고 돌보며 겪은 어려움과 보람을 생생히 드러내고 있다. 국가 존망의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경험과 역할 수행에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실제적인 대응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7 학술분과 논문 발표

코로나19와 현장

좌장 : 김대옥 교수(경상대학교)



- 코로나 19 상황의 비대면 유치원 수업 경험에 대한 교사의 이야기 21
정하나 (백석예술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서혜정 (백석예술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보육현장의 변화는 어떠한가? 22
백지혜 (계명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김소희 (계명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 신종감염병 대응에 관한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공동체간 협력의 실제
- 코로나19 경험을 중심으로 28
최영미 (경산중앙유치원 원장)
박인전 (영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윤재희 (영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코로나 19 상황의 비대면 유치원 수업 경험에 대한 교사의 이야기

정 하 나¹⁾ · 서 혜 정²⁾

I. 연구의 필요성

2020년의 코로나 19 상황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다. 교육 현장도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면서 개강이 늦춰지는 초유의 사태와 함께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이 펼쳐졌다.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자체 판단 아래 진행하는 교육기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국가 발표에 귀 기울이며 교육부에서 제안한 방안 내에서 충실하게 진행하려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맞물린 또 하나의 변화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국가 유치원 교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이다.

2020년 3월 2일은 유아교육기관이 새 학기를 여는 날이자,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시행하는 첫날이 된다. 그러나 코로나 19 상황으로 유치원 개학은 미루어졌고, 경험하지 않았던 교육이 이루어져야 했다. 본 연구는 당연히하던 일상에서의 유아교육이 아닌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된 삶 속에서 유아교육을 실행한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코로나 19 상황의 비대면 유치원 수업 경험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코로나 19 상황의 비대면 유치원 수업 경험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13년 차 경력 교사 1인과 신입교사 1인이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3월 18일까지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다. 3회의 집단 면담 218분과 2회의 개인 면담 54분으로 이루어졌다. 심층면담 한 자료는 모두 전사하여 귀납적 분석방법에 의해 분석하였으며, 신뢰도 확보를 위해 공동 연구자간에 코더 간 일치도를 검증하였다(Creswell, 2017).

1) 백석예술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2) 백석예술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Ⅲ. 주요 결과

1. 새로운 경험인 낯선 줌(Zoom) 수업

연구 참여자들은 처음 시행하는 쌍방 소통 온라인 수업을 시작할 때 컴퓨터 화면에서 유아들과 만나 어떻게 수업할지 막막하여 부담스러웠다. 교사 옆에 없는 유아들의 쓰기 자극 및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웠고, 수 놀이를 할 때면 유아들이 참여할 방법으로 시도하기 보다는 줌 수업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의 활동을 완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수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줌 수업을 할 때 화면 안에 유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유아가 자리에 앉아서만 하는 활동으로 진행했음을 깨달았다. 유아들은 영상 속에 보이는 자신을 보며 신기해하였지만, 연구 참여자인 교사들은 유아들이 화면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미숙한 단계라 토의하는 수업 진행은 하지 못하였다. 그래도 영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2. 줌 수업에 동행하는 학부모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가 줌 수업에 같이 참여하다 보니 자유로운 수업에 대한 교사의 어려움과 함께 유아들 또한 유아 옆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어려운 수업 분위기를 맞이하였다.

3. 유아를 위한 최선의 방법 찾아가기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 19 상황의 유아교육은 다중의 어려움을 수반하고 교사가 힘들더라도 유아들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진행하고자 하였다. 교사들은 유아에게 최선의 교육을 고민하며 줌 수업과 함께 수업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기를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각 유아의 수업 참여 여건을 고려하고 비대면 수업 방식의 장단점을 절충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영상 제작이 교사에게는 어렵지만, 실시간 줌 수업에 들어오지 못하는 유아들과 기계 조작이 어려운 만3, 4세 반 유아들을 위해 줌 수업과 영상 제공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동영상은 교사가 제작한 것이라 인터넷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보다 질 높은 교육적 의미로 다가갈 것이라 기대하였다.

4. 편견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놀이

연구 참여자들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반영하여 놀이 중심으로 줌 수업을 운영하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컴퓨터 화면 안에 유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 생각의 한계 안에서만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하던 수업이 줌 수업 환경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편견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수업이 진행되어 유아의

즐거움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30분 단위로 짜인 줌 수업 시간표는 수업 시간에 대한 융통성을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5. 절실한 유아 참여 비대면 교육에 대한 고민

연구 참여자들은 비대면 상황의 거리감을 제거할 방법으로 비록 화상이지만, 얼굴을 보며 만날 수 있는 줌 수업을 도입하였다. 줌 수업의 첫 시도는 수업의 질보다 비대면 수업에 보다 많은 유아들이 참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고 아이들이 주도하며 확장하는 비대면 놀이를 진행하는 것은 교사에게 가로막힌 큰 돌덩어리와도 같이 어려운 도전이라 생각하였다. 유아중심 수업을 지향하면서도 줌 수업에서는 유아중심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포기하여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사가 줌 수업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벗어나면 충분히 유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만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다다랐다. 그러나 단지 생각에 멈춰있었다.

6. 들쭉날쭉한 등원으로 맥이 끊기는 수업

연구 참여자들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등원하는 유아들과의 대면수업을 병행해야만 했다. 등원 결정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 진행하였으나 비대면 참여 유아수의 변동, 일관성 있게 등원하지 않는 유아로 인해 비대면 수업에 대한 교사의 어려움과 고민이 커졌으며, 이는 줌 수업의 한계점으로 작용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의 비대면 유치원 수업 경험에 대해 2명의 유치원 교사의 경험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갑작스런 교육 환경의 변화로 경험해보지 않았던 수업 방식으로 전환해야 했다. 처음 가보는 낯선 길로 인해 새로운 경험을 탐색하고 적응하는데 급급하던 유아교사들은 비대면 수업에 대한 편견과 맞물려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의 끈을 놓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하고 있었으므로 비대면 유치원 수업의 적절성에 대해 고민하며 유아를 위한 최선의 수업 운영 노력과 더불어 유아 참여로 이루어지는 놀이 중심 비대면 교육 방안을 찾아 개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19 상황의 유아교육을 살아내는 현장 유치원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비록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시작된 비대면 수업이었지만, 여전히 예측 불허한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이어나가야만 한다. 이는 보다 의미 있는 비대면 교육 실현을 위해 유아 참여형 비대면 수업 모형 개발과 사례 나눔의 지원체계가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위기 상황의 비대면 유치원 수업은 예비교사 양성교육과 연결된다. 위기 상황의 미래를 대비한 대학의 교사양성교육에 대한 역할을 탐구하는 추후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보육현장의 변화는 어떠한가?

백 지 혜¹⁾ · 김 소 희²⁾

I. 시작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내의 코로나 상황을 살펴보면 2020년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자 수가 급증하여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어린이집에 휴원을 권고하였다. 그간의 팬데믹 상황은 사회적 공포와 불편함은 있었지만 이로 인해 특별히 교육에 대한 변화와 영향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사실상 공적 돌봄 체계의 마비상태를 경험하게 되면서 기존의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체계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하는 계기를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되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이 휴원 중이라고는 하나 긴급보육의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보육교직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더 중요하고 다양해졌으며 그간의 역할에 비해 공포, 스트레스, 불안감과 같은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최예린, 2020). 또한 보육교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부여된 역할에 대한 책임,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걱정과 '나'로 인한 타인의 감염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김정화 외, 2020). 이처럼 코로나-19와 관련 된 선행연구에는 어린이집에서의 보육교사와 원장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피로와 심리적 소진과 스트레스에 대해 보고한 논문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역할과 대응방법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으며 더불어 위기상황 가운데 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차원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와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어린이집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구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육현장의 변화를 경험하는 교사의 내러티브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연구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경험의 다양성, 민감성 및 변화의 방법을 찾아가는

1) 계명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2) 계명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보육 현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총 4명의 보육교사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시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변화하는 보육현장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0년 6월 4일부터 10일 까지 7일간, 2020년 9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교사 1인당 40 50분 각 2회씩, 질문을 최소화하여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진행된 대화에서 연구자는 즉각적으로 녹음된 대화를 전사하였고, 전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정독하며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였다. 자료 분석은 수집된 대화 녹취자료를 주제별 암호화와 분류, 주제 및 의미 생성 작업의 세 가지 과정(김영천, 2006)을 거쳐 분석, 코딩하였다. 코딩된 자료는 연구자의 반복적 읽기작업으로 상위범주를 나누었고, 이를 다시 하위범주로 유목화하면서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또한 연구물을 완성하고 나서 참여자들 모두가 자신들의 이야기와 그에 대한 의미를 읽어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연구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III.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보육현장의 변화

1.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경험

1) 교사의 심리적 불안감

교사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며 그로 인해 영유아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감염이 되었을 때 다른 직업군에 비해 보육교사의 경우는 좀 더 예민한 잣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더 큰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다.

2) 매일 매일 계속되는 교실 방역

사람간의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상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보육실에서 참여자들은 교실 내 청결과 위생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매일 매일 교실 환경을 소독하고 점검해야 했으므로 이에 대한 부담감과 피로감을 느꼈다.

3) 우리 반 아이의 개인위생에 대한 노력

아이들과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손 씻기 스티커 판 제작, 하루 3회 발열체크, 일렬로 앉아 식사하기, 가정에서 양치하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었다.

2. 교육 과정 변화에 대한 경험

1) 비대면 기간 (휴원 기간) 가정 양육지원 꾸러미 제작

가정연계학습지원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기존의 대면기간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또 다른 차원의 교사업무를 경험하게 되었다.

2) 기존 수업 방법에 한계를 경험함

교사는 보육현장에서 새로운 수업방식과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성을 실감하였으며 지식뿐만 아니라 영유아기에 적합한 비대면 수업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의 필요성도 이야기 하였다.

3) 디지털 교육 노하우에 대한 부담감

전통적인 교실 수업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미디어 사용 등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의 경우에는 가정연계 학습방법의 제공과 교실 수업에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선정,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데 많은 부담감을 표현하였다.

3. 부모님과과의 소통에서의 변화에 대한 경험

1) 비대면 소통의 한계

휴원 기간 동안 교사는 부모님과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면 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보다 원활하지 못한 소통으로 섭섭함과 피곤함을 경험하였다.

2) 부모님과과의 진심이 통한 소통

교사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모님과과의 진심어린 대화와 가정보육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교감을 경험하였다.

4.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의 변화에 대한 경험

1) 영·유아와의 신체적 접촉의 제약

교사는 교실 내에서 영·유아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놀이 활동 감소 등의 많은 제약을 경험하게 되었다. 교사는 영·유아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상호작용자의 역할 가운데에서 신체적 접촉보다는 눈빛이나 표정, 목소리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2) 미디어를 활용한 상호작용

교사는 어린이집과 해당 반을 소개하는 동영상과 같은 미디어의 활용을 통해 영·유아와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비대면 기간 동안 영·유아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신뢰감을 형성하며 코로나-19 전과 다름없는 익숙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IV.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1. 보육현장의 변화 이야기 다시 읽기

본 연구는 코로나-19 가운데 보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경험하는 현장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교사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경험,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경험, 학부모와의 소통의 변화에 대한 경험,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의 변화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재난 위기 상황에서 보육교사가 보육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본 이번 연구를 통해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명확하지 않은 대응 지침, 부모와의 중재 방법의 다양화, 언택트 교육의 노하우 부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들이 갖는 심리적인 어려움과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국가 재난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다양한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필요성을 재고하는 근거 자료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국가 재난 위기 발생 시 보육현장의 부담을 줄이며 영·유아의 안정적인 발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육현장의 변화에 대한 교사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냄으로써 교사로서 그들의 불안감과 부담감을 덜어주고 교사의 자질 및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교육환경에서의 새로운 대응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신종감염병 대응에 관한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공동체간 협력의 실제 -코로나19 경험을 중심으로

최 영 미¹⁾ · 박 인 전²⁾ · 윤 재 희³⁾

I. 연구의 필요성

2020년 1월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전염병의 최고 단계인 팬데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고 전 세계는 유례없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코로나19라는 신종감염병을 직면한 한국 역시 사회,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는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 따른 조치에 따라 휴업 또는 휴교령을 내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으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자 어린이집과 모든 교육기관은 수개월 동안 개학이 미루어졌다. 신종감염병에 의한 국가적 혼란으로 얻은 교훈은 학교 감염 예방의식 함양, 확산 시 학교와 교육 주체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연구 및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정다혜, 2020) 물론 교육부에서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매뉴얼은 보급(2011년)되었으나, 학생 빈발 감염병 및 신종감염병의 특성과 유치원의 여건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학급별 여건 등을 고려한 매뉴얼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교육부, 2016) 지금까지 감염병 재난과 전개 과정의 결과는 정부와 사회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보았는데(이예슬, 2017) 실제로는 감염병을 예방하는 주체인 유아와 책임지고 관리하는 교사,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시 여겨져야 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교사 및 가정과 연계한 학부모의 감염병을 다룬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위기 대응에 있어 유아교육기관이 실제 경험하고 인식한 바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교육공동체(유아-교사-학부모)간 협력 상황의 실재를 상향식 접근 방법(Bottom-up approach)으로 살펴봄으로써 유아교육기관 내 구성원 간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신종 코로나19 감염병을 경험한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공동체(유아-교사-학부모)간 물리적, 정서적 협력은 어떠한가?

1) 경산중앙유치원 원장

2) 영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3) 영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경북 K시에 소재하는 유치원이다. 연구 현장은 202명(원아 180명, 교직원 22명)이 다니는 대규모의 기관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이 부모로부터 감염 원아가 3차례 감염 사례가 있었으나 선제적 방역 대응으로 전체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보건관리(코로나19 대응) 최우수교 사례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측면에서 성공적인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20년 3월 ~ 2021년 2월 1학기·2학기 대응했던 사례를 통해 교사-유아협력, 교사-교사협력, 교사-부모협력으로 구성하였고 이러한 교육공동체의 물리적 협력체계와 정서적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종감염병 코로나19를 대응 했다.

III. 주요 결과

1. 유아-교사간 협력

첫째, 유아-교사 간의 협력을 통해 교사는 유아에게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탐색 및 이해함으로 스스로 방역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유아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안전한 손의 하루’, ‘함께 지키는 마스크’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위생의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방역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안전 매뉴얼 및 거리두기 안내는 유아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교사를 중심으로 한 설명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둘째, 유아-교사 간의 협력을 통해 놀이 결손을 보완하였다. 재난 발생 시 미취학 아동의 경우 휴식, 놀이, 여가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놀이 비중이 감소하였음을 나타낸 바 있다(이봉주, 2020). 놀이가 현저히 축소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놀이꾸러미를 영역 별로 구분하여 배부함으로써 다양한 놀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유아의 놀이 사진, 동영상은 교사와 공유함으로써 교육과정과 지속적인 연계가 이루어졌다.

셋째, 유아-교사 간의 협력을 통해 유아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교사는 파트너로서의 유아와 주 1회 상담 ‘마음 읽기’를 통해 정서적으로 지원하였고 ‘나의 안전 이야기’시간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실천 사례를 공유하여 불안 심리에 대해 지원하였다.

2. 교사-교사간의 협력

첫째, 교사-교사의 협력을 통해 교사들은 톱다운(Top-down)방식의 매뉴얼을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유치원 현실에 맞게 재조직화하였다. 기존 감염병 재난대응 매뉴얼과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처에 대한 상이한 부분을 교사 간 협의를 통해 세분화시키고 구체화함으로써 방역에 효율성을 높였으며 '슬기로운 안전매뉴얼-교사편'을 제작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

둘째, 교사-교사의 협력 모델링을 구축하여 교사 간의 수업의 질과 양적인 격차를 줄일 수 있었다. 교사 개개인의 역량에 따른 수업의 질적 차이는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수업 전환과 함께 기술적인 차이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영상 제작 연구회 및 온라인 수업 시연을 통해 제작 방법의 효율성과 수업 시안을 검증받고 아이디어를 수렴함으로써 제작과정에서 오는 시간적, 물리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

셋째, 교사-교사간 자체 업무 시스템 조정을 통해 업무 공백을 메우고 교사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함으로써 위기를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 자신도 신종 코로나19를 처음 겪는 상황으로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오는 부담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위기상황을 대처 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 소그룹 간담회와 1:1 지킴이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업무 분담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어려움을 지원함으로써 업무 전반의 공백이 없도록 하였다.

3. 교사-학부모의 협력

첫째, 교사는 학부모에게 올바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세분화된 매뉴얼을 안내함으로써 가정에서 협력해야 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가정과 연계한 '슬기로운 안전 매뉴얼-가정용'과 가정 내 '자가 건강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족 간 건강상태를 공유하고 협조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최소화하였다. 코로나19 확진의 학생 환자의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가족 감염이 60%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경북도교육청 브리핑 2021.03.15.) 발표되었다. 감염병이 가족 내 전염으로부터 시작하여 전파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 '자가 건강 체크리스트'에 증상 유·무를 작성함으로써 조기 발견 및 확산을 예방할 수 있었다.

둘째,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모-교사 놀이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부모를 유아의 공동교육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학부모 또한 놀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놀이 지원의 협력을 위해 '학부모 놀이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공동 놀이 연구자로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모 중 의료계 종사자와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습득이 용이한 그룹과의 소통을 통해 올바른 감염병 예방 수칙에 관한 동영상 제작을 학부모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동교육지원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며 교사-부모 간의 새로운 협력의 모델을 제시하

었다.

셋째, 교사-학부모의 협력을 통해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교육 공동체간 긍정적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지원하였다.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에서의 격리로 인한 정서적 불안감과 우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는 격리대상인 유아, 부모의 전화로 소통하였고, 누구나 전파자 또는 감염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따뜻한 공감’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책자를 발간하여 나눔으로써 학부모와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였다.

IV. 결론

첫째, 교사 간 협력을 통해 공적인 업무 협력 뿐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분담, 정서적 유대감을 만드는 협력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재난 대응 상황에서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 하였다. 협력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함으로써 재난 대응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재고하게 되었고 교사 간의 관계망 형성을 통해 물리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현장에서는 재난대응에 필요한 대책을 각 기관별로 확립하여 맞춤형 대응 정책을 확립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과 연계하여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정과의 소통 방법에서 영상 공유를 통한 부모교육, 가정과 연계한 활동, 학부모 아카데미 등 가정에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한 지원체제의 구축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원활한 소통을 통해 재난 대응에 협력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유아가 방역의 주체로서 재난 대응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참여자이자 대상자인 유아의 참여를 독려하여 유아가 재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유아가 안전교육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이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포스터 발표

01. 교사의 놀이신념과 유머감각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25
전혜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졸업)
유은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02. ‘영어유치원’에 근무하는 한국인 유아교사의 역할과 갈등 26
안채윤 (세종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졸업)
김희연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03.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어려움
-공립유치원 교사를 중심으로- 27
민현지 (한대유치원 교사)
남기원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04. 영아반 보육교사의 관계스트레스와 보육현신의 관계에서 전문성인식과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 28
이지영 (Tarlac State University, College of Art and Social Science 시간강사)
05. 국내 저출산 관련 연구동향 분석: 2011~2020년 중심으로 92
조형숙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조현정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06. 어린이집 원장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조직임베디드니스에 미치는 영향:
직무자율성에 의한 내외동기지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30
정민선 (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졸업)
채진영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07. 부모, 원장, 교사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본 가정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 22
김연희 (창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졸업)
김민정 (창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교사의 놀이신념과 유머감각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전 혜 진¹⁾ · 유 은 영²⁾

I. 연구의 필요성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및 역할 수행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권혜진, 2013; 이병선, 2015; 이재진, 2013)에서 교사의 내면적 특성 중 교사가 가진 신념체계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영유아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놀이에 관한 신념은 영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에 기초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권혜진, 2013)으로 놀이를 강조하는 개정누리과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유머는 타인과 상호작용 할 때,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원활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김정희,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놀이신념, 유머감각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관계와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주요 결과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 지역 유아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영유아반 교사 316명이며 수집된 자료는 Pearson적률상관계수, 중다회귀분석 등의 통계방법으로 자료를 처리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교사의 놀이신념과 유머감각 하위요인 유머 선호도와 전체는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놀이신념과 유머감각은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간의 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의 놀이신념과 유머감각은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사의 놀이신념과 유머생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결론

교사의 놀이신념과 유머감각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놀이신념과 유머생성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임이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이는 놀이가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교사의 신념이 영유아와 양질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선행연구결과(서지은, 2014; 이소연, 2018)와 유머감각 중 유머생성 능력이 대인관계기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최명선, 최태산, 안재영, 2007)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영유아 간 상호작용 신장을 돕기 위해 교사의 놀이신념과 유머감각 증진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교사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졸업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영어유치원”에 근무하는 한국인 유아교사의 역할과 갈등

안 채 윤¹⁾ · 김 희 연²⁾

I. 연구의 필요성

한국인 유아교사가 유치원/어린이집이라는 교육기관/보육시설과는 다른 영어교습 사설 학원인 “영어유치원”³⁾에서 어떠한 역할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영어유치원”에서의 유아교사의 정체성에 관한 의미를 구성함으로써 영유아 영어교습의 문제점과 미취학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경기도에 위치한 3년 이상의 연혁을 가지고 있는 프렌차이즈 “영어 유치원” 3곳에 근무하는 경력 3년~8년의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5명이다. 2009년 9월부터 2010년 4월까지 5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평균 20여 차례 면담을 진행하였고, 음성 녹취, 동영상 촬영, 유선 전화, 메신저 등을 활용하였다.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유아교사로 근무하는 “A영어유치원”에서 사전 동의를 얻어 3주간 2회 진행되었다.

III. 주요 결과

“영어유치원”에서 유아교사가 경험하고 있는 역할과 동시에 나타나는 갈등은 ‘전문성 지원과 교육신념의 충돌’, ‘문화적 중재와 생활의 장벽’, ‘심리적 거점과 업무의 편재화’, ‘생활간극조정 및 기관 운영의 도구화’로 상호연결구조로 경험되고 있었다.

IV. 결론

“영어유치원”에서 유아교육의 수단화가 방지되고 유아가 그 부작용의 부정적 결과를 안게 되는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영어유치원”의 목적 및 취지를 유아를 교육하는 맥락의 관점에서 재조정하고 운영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시대적 수요에 따른 다각적인 사교육 확산 실태에 비추어 유아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대안점을 찾기 위한 유아의 경험 관점의 질적 연구의 필요 또한 제기된다.

1) 세종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졸업

2)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3)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설영어학원의 유치부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어려움 – 공립유치원 교사를 중심으로 –

민 현 지¹⁾ · 남 기 원²⁾

I.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유아 중심·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실행력 증진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공립유치원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개정 누리과정 실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밝히는 연구목적에 따라 19코로나 시대의 교육과정 운영 측면이 교육기관유형에 따라 영향 받을 수 있음을 판단하여, 공립유치원 교사로 연구대상을 단일화한 것이다. 연구기간은 2020년 8월 23일부터 약 2주 동안 이메일, 눈 등의 방법으로 설문지를 배부·회수하고,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전화 통화를 통해 답변을 보충하고 추가하였다. 자료분석과정에서는 주요 내용과 핵심 단어들을 유목화하면서 총 4차에 걸쳐 범주화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III. 주요 결과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들의 어려움은 교수 활동 측면에서 놀이의 가치와 개념에 대한 교사의 고민(열린 일과에 대한 불안, 놀이에 대한 모호함),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전 교육과정과의 차이이해, 모호한 교사 역할, 유아-교사 상호작용의 어려움, 관찰 기록의 자율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이 있었다. 대인관계 측면에서 관리자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 차이, 문서화에 대한 견해 차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놀이 결과에만 관심 있는 학부모, 인지 교육을 요구하는 학부모), 교직원과의 관계 측면에서의 어려움(놀이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동료 교사, 교육공무직과의 놀이이해 차이)이 있었다. 환경적, 제도적 측면에서 환경적 원인으로 인한 어려움(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시·공간 제약, 미세먼지 등 날씨로 인한 바깥놀이 부족), 제도적 원인으로 인한 어려움(복잡한 예산 처리 절차, 과중한 행정업무, 놀이 사례에 치우친 교사 연수)이 있었다.

IV. 결론

본 연구는 개정 누리과정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인식을 알아본 것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교사들의 어려움을 예견하여 이를 지원하는 국가 및 지역적 노력이 필요하며, 교사 양성과정에서 이에 대한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고 본다.

1) 한내유치원 교사

2)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영아반 보육교사의 관계스트레스와 보육헌신의 관계에서 전문성인식과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

이 지 영¹⁾

I.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영아반 보육교사의 관계스트레스와 보육헌신의 관계에서 전문성인식과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보육교사 관련 변인을 탐색함으로써 보육정책을 제안하는 기초연구로 의미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II.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아 보육교사 186명이다. 관계스트레스, 보육헌신, 전문성인식, 교수효능감 설문지를 배부한 후 최종 분석자료를 SPSS와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과 Process macro 모형 6번이다.

III. 주요 결과

첫째, 관계스트레스, 보육헌신, 전문성인식, 교수효능감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계스트레스는 전문성인식, 교수효능감을 통하여 보육헌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영아반 보육교사의 보육헌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스트레스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을 통해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관계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상담적 중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영아반 보육교사의 체계적인 보수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1) Tarlac State University, College of Art and Social Science, 강사

국내 저출산 관련 연구동향 분석: 2011~2020년 중심으로

조 형 숙¹⁾ · 조 현 정²⁾

I.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제2~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실행된 2011년에서 2020년에 발행된 논문을 중심으로 국내 저출산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후속 연구와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저출산 관련 키워드중심으로 한국연구정보서비스(RISS) 검색을 통해 문헌발견을 하고 문헌선별, 선정기준검토, 최종선정 순으로 진행되었다. 2011년에서 2020년에 발행된 학위논문 227편과 학술지 357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시기는 1년 단위와 제2차, 3차 기본계획 시기로서 5년 단위로 구분하였다. 전문가와 협의된 분석기준에 따라 연구시기 및 발표유형, 연구자 학문분야,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으로 구분하고 빈도분석으로 도출된 결과표를 활용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III. 주요 결과

국가정책에 관하여 정책·행정학과 사회복지학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2015년 이후 비사회과학분야의 연구가 증가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2011~2015년) 대비 기혼자 대상 연구가 감소한 반면, 미혼자 대상 연구는 증가하였다.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총 5건으로 미비하게 나타났다. 양적연구와 문헌연구에 치중되었고 질적연구는 사례연구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저출산 요인에 관한 연구가 많았으며 실행 중인 저출산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이 제3차 기본계획(2016년~2020년)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IV. 결론

제2~3차 기본계획에서 추진한 가족친화제도와 일·가정양립정책은 남성의 참여와 기업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관련 연구가 미비하였다.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나타났다. 유아기 가족친화문화 인식 형성 및 건강한 가족 지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아이를 낳고도 행복한 삶의 이행에 대해 범사회적으로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1)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어린이집 원장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조직임베디드니스에 미치는 영향: 직무자율성에 의한 내외동기지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 민 선¹⁾ · 채 진 영²⁾

산업화의 변화로 조직문화 및 개인의 가치관이 급변하며 구성원의 세대교체 또한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의 이익보다 기업의 목적 및 이익을 우선시하였지만, 현재는 개인적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는 등 직장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보육현장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보육교사의 이직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지만 최근에는 직장을 떠나는 이유를 밝히는 것보다 왜 남아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가 현 근무기관에 잔류하는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임파워링 리더십(empowering leadership)과 보육교사의 조직 임베디드니스(job embeddedness) 관계에서 직무자율성(job autonomy)에 의한 내외동기지향성(intrinsic/extrinsic motivation)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등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교사 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조직 임베디드니스의 척도는 Mitchell 등(2001)이 개발하고 이종현과 신강현(2017)이 국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임파워링 리더십은 Arnold 등(2000)의 Empowering Leadership Questionnaire(ELQ)를 기초로 심지영(2016)이 번안한 문항을 이용하였다. 또한, 직무자율성은 Morgeson과 Humphrey(2006)가 개발한 The Work Design Questionnaire(WDQ)에서 직무자율성 요인만을 추출하여 사용하였으며, Amabile 등(1994)이 설계한 직무선호도 검사(Work Preference Inventory: WPI)를 장재윤(2000)이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모든 척도는 보육교사에 맞춰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또한, 관련 변인간의 관계를 상세히 파악하고자 위의 도구를 바탕으로 면접 질문지를 구성하여 설문조사자 중 9명을 대상으로 1회 20분 정도 면접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양적 자료는 SPSS versio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빈도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The PROCESS macro version 3.5의 model 7을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면접 자료는 면접 녹음 자료를 연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분류하고 수정 없이 연구결과에 반영하여 기술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원장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조

1) 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졸업

2)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직 임베디드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직무자율성에 의한 내재적동기지향성만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어린이집 원장의 임파워링 리더십을 통해 직무자율성을 보장 및 강화해주면 보육교사의 내재적동기지향성이 감소하려는 경향을 완화시켜주어 조직 임베디드니스를 상승하게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보육교사의 직무자율성, 내외동기지향성, 조직 임베디드니스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보육교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힘을 높이기 위해 자유로운 직무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원장의 리더십 교육프로그램과 보육교사의 자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부모, 원장, 교사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본 가정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

김 연 희¹⁾ · 김 민 정²⁾

I. 연구의 필요성

시간제 보육(Part-time childcare)은 부모가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도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이다. 2013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였고, 향후 5년간 전국적인 확대 실시 후 2020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현시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함께 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II. 연구방법

4곳의 가정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을 경험한 부모 3명, 원장 4명, 교사 4명, 총 11명이 참여하였으며,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III. 주요 결과

가정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은 부모와 교사에게는 사회 진출로의, 원장에게는 원아 모집으로의 ‘마중물’ 기능을 하지만 가정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에 대한 관점, 지정과 수급, 교사의 역할 등 ‘걸림돌’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시간제 보육과 지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교사교육, 행·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디딤돌’을 제공함으로써 가정어린이집에서의 시간제 보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창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졸업

2) 창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 수 증

이 름:

소 속:

위 사람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에서 주최하는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일시: 2021년 4월 24일 토요일 09:00 ~ 14:20
- 장소: 온라인 학술대회

2021년 4월 24일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장



2021년 춘계학술대회

유아교육기관 세대문화의 이해와 협력방안 모색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303관 1230호

Tel. (02)820-5398

E-mail : ks_ecte@naver.com

<http://www.eceteacher.com>